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조경학석사 학위논문

도시 커뮤니티가든 활동을 통한 사회적협동조합 형성 및 전개과정 연구

- 인천시 용현동 '두레정원'을 대상으로 -

A Study on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Social Cooperatives for Urban Community Gardening

- Focused on Incheon 'Doore-Jeongwon' -

2022년 8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오 연 수

도시 커뮤니티가든 활동을 통한 사회적협동조합 형성 및 전개과정 연구

- 인천시 용현동 '두레정원'을 대상으로 -

지도교수 성 종 상

이 논문을 조경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4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오 연 수

오연수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2년 6월

위 원 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도시 커뮤니티가든 활동을 통한 사회적협동조합 형성 및 전개과정 연구

- 인천시 용현동 '두레정원'을 대상으로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오 연 수

위 논문은 서울대학교 및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학위논문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심사위원의 지도과정을 충실히 이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2년 8월

위 원 장 _____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부위원장 _____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위　　원 _____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도시 커뮤니티가든 활동을 통한 사회적협동조합 형성 및 전개과정 연구

- 인천시 용현동 '두레정원'을 대상으로 -

오 연 수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환경조경학전공

도시 커뮤니티가든은 일정 지역 주민들이 농작물, 꽃, 수목을 재배하기 위해 이웃들과 공동으로 소유 또는 운영하는 텃밭, 화단 등으로 정의할 수 있다. 국내의 경우 그동안 커뮤니티가든을 도시텃밭의 형태로 조성해왔으나, 최근 정원에 대한 관심 증대 및 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수요 증가로 텃밭과 원예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형태로도 조성하고 있다. 이러한 공동체정원은 정부의 도시재생 정책사업으로 연결되어 유휴부지를 활용한 경관 개선, 근린생활권 내 녹지자원 확보, 주민 공동체의식 증진, 건강한 먹거리 생산, 일자리 창출 등 주거환경 내 복지서비스 제공 및 지역문제 해결의 방안이 되어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가치를 나타내고 있다.

국내 도시지역은 아파트 주거환경의 비율이 높아 공공부지를 활용한 커뮤니티가든이 정부 및 지자체 주관 사업을 통해 양산되고 있다. 그러나 사업내용의 대부분이 정원의 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이후 운영적 측면에서 지속가능성이 확보되지 못하였다는 평가가 뒤따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3장에서는 공공사업을 통해 조성된 커뮤니티가든 대상지의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였다. 크게 경기도, 행정안전부, 산림청이 주관한 사업을 살펴보았으며, 사업추진내용과 연도별 정원조성 대상지 목록, 그리고 그 규모 및 운영주체 등을 파악하였다.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각 사업별 정원 조성계획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그리고 사후 운영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 지속가능성의 세 범위인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각 정원 조성사업의 목적은 공동체의식 함양, 도시 경관 또는 생활환경 개선이 공통적이며, 산림청과 경기도의 경우에는 신규 일자리 창출이이라는 경제적 기대효과가 추가되었다. 사업기간은 각 대상지별로 상이

하나, 산림청은 6개월로 가장 짧고 경기도는 10~15개월, 행안부는 18~20개월 순으로 확장된다. 각 사업의 정원 조성내용은 특히 경제적 활용에 대해 비교적 단조로운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사후 운영계획은 지역사업이나 프로그램 및 행사 운영과 연계하는 행정주도적이고 성과 위주의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그 내용은 구체화되지 않은 현황을 보였다.

본 연구의 4장에서는 조사한 커뮤니티가든 사업을 통해 조성된 공동체정원과 그 주민운영주체를 선정하여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2015년 행정안전부 사업으로 조성된 인천시 용현동 두레정원은 아파트 밀집지역 내 미조성 완충녹지(18,540㎡)를 활용한 커뮤니티가든으로, 대상지를 기반으로 주민공동체가 사회적협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재 7년째 운영이 유지되고 있다. 대상지의 전개과정은 시계열적으로 아카이빙하였으며, 크게 정원이 조성된 배경과 초기 운영양상, 주민 사회적협동조합의 형성, 그리고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 전개과정의 순서로 구성하였다.

용현동 완충녹지가 두레정원이라는 공동체정원으로 조성된 배경에는 세 가지 공간적 현황이 작용하였다. 첫째 대규모 및 중형 아파트단지 밀집지역인 것과, 둘째 500m이내 학교시설 5곳이 밀집되어 있는 것, 마지막으로 지역의 세대당 공원녹지면적이 부족한 와중에 대상지가 주변 녹지네트워크 구축에 활용가능성이 있어 공원시설로서의 잠재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배경으로는 기존 완충녹지였던 부지 5,600평이 공장의 이전 및 주변여건 변화에 따라 오랜기간 미조성되고 지역문제를 발생시켜, 약 2014년부터 해당부지에 대한 지자체의 공원화 방안이 논의 되어왔다는 점이다. 두레정원의 사업추진단계를 주도한 주체는 지자체 시민공동체과(마을협력센터)로, 정원 계획단계부터 주민참여 디자인워크숍과 마을정원사 육성 및 정원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2016년 10월에 개원한 두레정원은 시민공동체과의 공동체 활동 지원, 공원녹지과의 토지 및 시설관리 지원, 그리고 마을정원사 공동체의 순수 자원봉사로 운영되었다. 당시 시민공동체과는 마을정원사들에게 직접 가꾼 공동체정원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태 및 도시농업교육을 제공하는 주민운영시범사업의 기회를 마련해주었으며, 마을정원사 공동체의 내부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체 워크숍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두레정원의 마을정원사 공동체는 자원봉사활동의 경제적 한계를 경험하여 보다 체계적인 주민주도적 운영방안에 대한 필요를 인식하였으며, 이에 대한 지자체의 제안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였다. ‘두레정원 사회적협동조합’은 생산자와 자원봉사자조합원이 결합한 5명의 다중이해관계자가 설립하여 현재는 총 20명의 조합원이 교육담당 및 정원담당 그룹으로 분류되어 활동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모두 용현동 주민이며, 연령대는 40~60

대로 이루어졌다. 이들 대부분이 두레정원 마을정원사로 위촉되었으며, 특히 교육담당 조합원들은 원예관리사, 유기농업기능사, 도시농업관리사 등 전문가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두레정원 사회적협동조합’ 의 전개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자산으로서 두레정원을 활용하여 지역 교육공모사업을 통한 텃밭 생태체험 및 원예교실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뿐만 아니라 정원을 통한 봉사활동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지역 차상위계층 주민을 대상으로 한 원예프로그램, 농작물 재배 및 기부활동을 활발히 하였다. 둘째, 다양한 계기로 지역 아동복지센터나 초등학교와 연계한 교육사업, 또는 타 행정동과 연계한 환경개선사업 등을 통해 다양한 지역주체와의 협력을 확대하였다. 셋째, 두레정원의 운영사례는 지역의 공동체정원 시범모델로서 근처 다른 완충녹지에 제2의 공동체정원 조성사업이 추진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넷째, 2020년에는 두레정원이 조성된 완충녹지가 도시관리계획상 도시농업공원으로 변경되었다. 이로써 현재 두레정원은 ‘용현도시농업공원’으로 전환되었으며, 2022년까지 도시텃밭 확대 및 관리사무소 확장 조성 등의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종합하였을 때, 두레정원의 주요 운영주체는 지자체 시민공동체과와 공원녹지과, 그리고 정원공동체(두레정원 사회적협동조합)이다. 이들의 협력체계는 크게 행정안전부 사업의 종료와 두레정원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의 두 가지 계기를 기점으로 변화하였다. 2022년 현재의 협력체계는 공원녹지과의 주도적 운영·관리 단계로 볼 수 있으며, 그 이유로는 2019년 사회적협동조합의 자립에 따른 시민공동체과의 역할 축소와 2020년 도시농업공원으로의 전환이 있다.

두레정원과 ‘두레정원 사회적협동조합’의 성과 및 활성화요인은 다음과 같다. 우선 두레정원의 조성 및 운영은 환경적으로 기존에 훼손되었던 완충녹지에 대한 경관 개선 및 생태환경 회복을 하였으며, 사회적으로는 거주민 인식 변화, 공동체의식 증진, 생활권 공원녹지 확보를 통한 주민 삶의 질 제고, 주민 여가 및 교육 기회 확대의 효과를 보였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취약계층 주민일자리 창출 및 건강 먹거리 생산의 성과가 있다. 이에 대한 활성화요인은 크게 네 가지로, 적합한 장소의 확보(용현동 완충녹지의 적절한 입지와 규모, 지역사회의 필요), 공동체 중심의 행정지원(마을정원사 교육프로그램, 공동체워크숍, 주민운영시범사업), 주민들의 높은 학습참여도 및 리더의 역량, 그리고 재원 확보(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한 주민참여 활동재원, 도시농업공원 전환을 통한 대상지 운영재원)이다.

한편, 커뮤니티가든을 기반으로 한 두레정원 사회적협동조합에 몇 가지 한계점이 관찰되기도 하였다. 우선 ‘커뮤니티가든’을 중심으로 주요 협력주체; 지자체 시민공동체과와 공원녹지과, 그리고 정원공동체(두레정원 사회적협동조합) 간에 적절한 거버넌스를 형성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이는 비단 두레정원의 사례뿐만 아니라, 주로 공공용지에 조성되는 국내 커뮤니티가든의 많은 경우에서 마주할 수 있는 민관협치에 대한 적절한 방향성을 찾는 데에 참고가 될 것이다. 둘째는 두레정원이 도시농업공원으로 변경되어 담당부서가 공원녹지과로 이관됨으로써 공동체 가치가 축소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두레정원의 주민주도적 운영방식이 행정주도적으로 변화되어 정원공동체가 협력관계에서 배재될 우려가 있다. 셋째로, '사회적협동조합' 이기에 주민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이 있다. 현재 두레정원 사회적협동조합은 조직 내 역할 배분·조정의 어려움, 교육서비스 업종으로서 운영자금 마련 한계, 공동체정원 기반 수익활동의 한계에 당면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국내 사회적협동조합의 보편적인 한계점과도 상통한다.

주민참여가 핵심요소인 커뮤니티가든은 행정이 주도하는 하향식의 운영이 아닌 주민주도적 운영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갖는다. 따라서 국내 커뮤니티가든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공동체가 정원의 사후 운영·관리와 정원활동을 하는 데에 있어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민-관 협력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며, 행정적 측면에서는 이를 위한 자발적인 고민과 주민들에 대한 배려 또한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커뮤니티가든에 참여하는 주민들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꽃과 흙을 좋아해 정원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과, 지역사회를 위해 자발적으로 봉사할 의지가 있는 이타적 태도 등이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증진과 지역사회 공헌을 목적으로 한 조직인만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마을정원사들이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은 함께 애정으로 가꾸어온 정원에 대해 아무도 보장해주지 않는 참여 권리를 획득하고, 공동체정원 활동을 통해 경험한 보람과 자부심을 오래도록 유지하기 위한 결단이다. 이제는 도시 커뮤니티가든이 가진 다원화된 가치를 증명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에 대한 운영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지해 나갈 방안을 구체화해야 할 시점이다. 그 첫 걸음으로 주민참여의 가치를 한 번 더 살피고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대안이 가진 가능성을 분석한 본 연구는 이후 커뮤니티가든 운영계획에 참고할만한 자료가 될 것이다.

.....

주요어: 도시 커뮤니티가든, 커뮤니티가든 운영체계, 공동체정원 조성사업, 두레정원, 사회적협동조합, 정원교육
학 번: 2020-29579

목 차

제1장 서론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1. 연구의 배경 ····· 1
2. 연구의 목적 ····· 3

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
1. 연구의 범위 ····· 4
2. 연구의 방법 ····· 5

3절. 연구의 흐름 ····· 8

제2장 이론적 고찰

1절. 커뮤니티가든의 이해 ····· 9
1. 커뮤니티가든의 개념 ····· 9
2. 사회적 관점에서의 커뮤니티가든 ····· 12

2절. 지속가능한 커뮤니티가든 운영 ····· 15
1. 커뮤니티가든과 지속가능성 ····· 17
2. 커뮤니티가든 운영주체로서 사회적협동조합 ····· 19

3절. 분석의 틀 ····· 24

제3장 국내 커뮤니티가든의 실태 분석 및 연구대상 선정

1절. 커뮤니티가든 조성 사업 ····· 27
1. 경기도 마을정원 조성사업 ····· 27
2. 행정안전부 마을공동체정원 조성사업 ····· 32
3. 산림청 공동체정원 조성사업 ····· 34

2절. 커뮤니티가든 조성 및 운영 실태 ····· 36
1. 커뮤니티가든의 조성내용 분석 ····· 38
2. 커뮤니티가든의 운영계획 분석 ····· 41

3절. 국내 커뮤니티가든 연구대상 선정 ····· 43

제4장 두레정원과 '두레정원 사회적협동조합'의 형성 및 전개과정

1절. 사회적협동조합의 기반으로서 두레정원 ····· 45
1. 두레정원 일반 현황 ····· 47
2. 두레정원 조성 배경 및 과정 ····· 51
3. 두레정원 운영 양상 ····· 62

2절. '두레정원 사회적협동조합'의 형성 ····· 74
1. 주민주도적 정원 운영체계에 대한 필요 인식 ····· 75
2. '두레정원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 77

3절. '두레정원 사회적협동조합'의 전개과정 ····· 81
1. 지역자산으로서 두레정원의 활용 ····· 82
2. 다양한 지역주체와의 협력 ····· 86
3. 공원녹지 확충 대안으로서 공동체정원 ····· 87
4. 도시농업공원으로의 변경 ····· 88

4절. 두레정원의 성과 및 한계 ····· 90
1. 두레정원의 성과 및 활성화 요인 ····· 90
2. 주민주도적 공동체정원 운영의 한계 ····· 99

제5장 결론

1절.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 106

[참고문헌] ····· 109
[부 록] ····· 113
[Abstract] ····· 119

<표 차례>

[표 1-1] 커뮤니티가든 현장 조사 항목 ····· 6
[표 1-2] 개별 면담 응답자 개요 ····· 7
[표 1-3] 연구의 흐름도 ····· 8
[표 2-1] 커뮤니티가든 개념정립을 위한 요소 ····· 11
[표 2-2] 국내 적용 커뮤니티가든의 범위 ····· 12
[표 2-3] 아파트 텃밭의 목적 ····· 13
[표 2-4] 도시농업 및 텃밭에 대한 서울시 시민들의 인식 ····· 15
[표 2-5] 국내 커뮤니티가든의 현황적 문제 및 한계점 ····· 16
[표 2-6]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비교 ····· 21
[표 2-7] 2022년 3월 기준 협동조합 설립현황 ····· 22
[표 2-8] 커뮤니티가든 분석의 내용 ····· 25
[표 3-1] 경기도 '마을정원만들기 사업' 대상지(2013~2017년) ····· 29
[표 3-2] 경기도 '시민참여형 마을정원만들기 사업' 추진체계 ····· 30
[표 3-3] 경기도 '마을정원만들기 사업' 대상지(2021년) ····· 32
[표 3-4] 산림청 '녹색자금 공모사업' 선정 공동체정원 조성 대상지 ····· 35
[표 3-5] 주관부처별 커뮤니티가든 조성사업 개요 ····· 37
[표 4-1] 용현동 두레정원 일반 현황 ····· 45
[표 4-2] 2022년 3월 인구 현황 ····· 50
[표 4-3] 용현녹지 공동체정원 국민디자인단 구성 현황 ····· 54
[표 4-4] 공동체정원 주민참여 디자인워크숍 과정(2016) ····· 55
[표 4-5] '마을 숲 정원교실' 교육과정 ····· 57
[표 4-6] 용현녹지 공동체정원 조성 현황(2020) ····· 61
[표 4-7] 두레정원 단계별 로드맵(2018) ····· 63
[표 4-8] 공동체정원 소통향상 및 비전세우기 워크숍 교육내용 ····· 65
[표 4-9] 주민운영시범사업 '파릇파릇 새싹정원' 세부내역 ····· 66
[표 4-10] 두레정원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 종류 ····· 78
[표 4-11] 두레정원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과정 및 기본정보 ····· 79
[표 4-12] 두레정원 사회적협동조합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80
[표 4-13] 두레정원의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성과 ····· 90
[표 5-1] 경기도 마을정원 조성사업 대상지(2018~2019년) ····· 114
[표 5-2] 경기도 마을정원 조성사업 대상지(2020년) ····· 115
[표 5-3] 행정안전부 '마을공동체 정원사업' 대상지 ····· 116

<그림 차례>

[그림 2-1] 지속가능한 커뮤니티가든 운영을 위한 개념적 틀 ····· 17
[그림 2-2]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절차 ····· 20
[그림 2-3] 연구 분석의 틀 ····· 24
[그림 2-4] 사회적경제조직 활동 분석의 틀 ····· 26
[그림 3-1] 행정안전부 '마을공동체 정원사업' 추진체계 ····· 33
[그림 4-1] 용현동 두레정원의 조성 및 운영 단계 ····· 46
[그림 4-2] 두레정원 반경 1km 이내 아파트 및 오피스텔 현황 ····· 47
[그림 4-3] 용현5동 완충녹지 및 공원시설 현황 ····· 48
[그림 4-4] 용현5동 학교시설 현황 ····· 49
[그림 4-5] 용현동 2021년 연령별 인구비율 현황 ····· 50
[그림 4-6] 과거 용현녹지의 무질서한 개인텃밭(2016) ····· 52
[그림 4-7] 과거 용현녹지의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2016) ····· 52
[그림 4-8] 공동체정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협력체계 ····· 53
[그림 4-9] 주민참여 디자인워크숍(2016) ····· 55
[그림 4-10] 용현녹지 공동체정원 조성사업 기본계획안 ····· 56
[그림 4-11] '마을 숲 정원교실' 강의 및 탐방 ····· 57
[그림 4-12] '마을 숲 정원교실' 및 동아리 운영체계 ····· 58
[그림 4-13] '마을 숲 정원교실' 수료식 및 마을정원사 위촉식(2017) ····· 58
[그림 4-14] 마을정원사와 지역 청소년들의 정원 조성작업 ····· 59
[그림 4-15] 용현녹지 공동체정원 토질 개선 작업 ····· 60
[그림 4-16] 두레정원의 원형정원과 도시텃밭 전경 ····· 60
[그림 4-17] 용현녹지 공동체정원 개원식 및 마을축제 프로그램 ····· 61
[그림 4-18] 두레정원 마을정원사 비전소통워크숍 ····· 64
[그림 4-19] 가족단위 봄꽃, 가을꽃 심기 행사(2019) ····· 67
[그림 4-20] 두레정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 68
[그림 4-21] 두레정원 맹꽁이 습지 조성(2018) ····· 69
[그림 4-22] '파릇파릇 새싹정원' 두레생태교육 교육프로그램 ····· 69
[그림 4-23] 두레정원의 산책로 ····· 70
[그림 4-24] 용현녹지 공동체정원 조성사업 협력체계(2015~2017) ····· 72
[그림 4-25] 주민참여형 두레정원 운영 협력체계(2017~2019) ····· 73
[그림 4-26] '두레정원 사회적협동조합' 활동 흐름도 - (A) ····· 74
[그림 4-27] '두레정원 사회적협동조합' 활동 흐름도 - (B), (C), (D), (E) ····· 81

[그림 4-28] '미추홀구 온마을학교' 방과후 수업 ····· 83
[그림 4-29] 두레정원 고구마 재배 및 나눔(2019) ····· 85
[그림 4-30] 김장 체험 및 나눔 행사(2019) ····· 85
[그림 4-31] 두레정원 리스 제작 및 나눔 ····· 85
[그림 4-32] 공공도서관 연계 두레정원 생태체험 및 원예교실 ····· 86
[그림 4-33] 지역 환경개선사업 골목상자정원 조성활동 참여 ····· 86
[그림 4-34] '자연숲 놀이정원'위치도 및 전경 ····· 87
[그림 4-35] 용현도시농업공원 협력체계(2022) ····· 89
[그림 4-36] 두레정원의 활성화 요인 ····· 91
[그림 4-37] 두레정원에 대한 마을협력센터의 공동체 중심적 지원 ····· 93
[그림 4-38] 두레정원과 용현도시농업공원 운영주체의 주도권 변화 ····· 101
[그림 4-39] 두레정원 사회적협동조합의 자금 부족에 따른 운영한계 ····· 104
[그림 5-1] 두레정원 전개과정(1)-공동체정원 계획 및 조성(2015~2017) ····· 117
[그림 5-2] 두레정원 전개과정(2)-주민 자원봉사를 통한 두레정원 운영 및 관리 ····· 118
[그림 5-3] 두레정원 전개과정(3)-사회적협동조합의 두레정원 운영 및 관리 ····· 119

제1장 서론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도시환경에서의 공동체 회복, 주거환경 개선, 녹지공간 확보 등의 효과를 가진 도시재생 전략의 하나로서 커뮤니티가든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해외 '커뮤니티가든(Community Garden)'을 '공동체정원'으로 명명하여, 그 개념을 '일정지역 주민이 농작물·꽃·수목을 이웃과 함께 재배하기 위해 공동으로 소유 또는 운영하는 농장, 텃밭, 화단, 꽃밭, 꽃길 등으로 구성된 자연공간'이라고 정의하였다.[1] 이처럼 국내에서 커뮤니티가든은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 증대로 공동체를 기반으로 텃밭 또는 원예 등의 공동체활동을 하는 장소로 인식된다(조인숙 외 1, 2019). 특히 최근에는 정원과 지역공동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욱 높아지면서, 도시농업보다는 주민들이 함께 가꾸어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커뮤니티정원 조성에 대한 필요성과 수요가 증가하여(이애란 외 1, 2018) 커뮤니티가든의 유형이 도시농업 뿐만이 아닌 원예활동을 포함한 정원형으로 변화하고 있다.

국내에서 '정원'이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순천만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에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산림청(2013)은 선진국의 경우 '찾아가는 정원'에서 '만드는 정원'의 형태로 정원의 개념이 변화하고 있으며, 정원 가꾸기가 중심이 되는 정원문화가 발달하고 있는 등 국내에서도 정원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이야기하였다(이광희, 2021). 이러한 '정원'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은 정부의 주요한 정책사업인 도시재생 분야로도 연결되어 우리의 주거환경과 생활문화로 확장되었다. 특히 도시 속 유휴부지

1) 행정안전부, 2016년 '마을공동체 정원사업' 공모 지침

를 활용한 도시 경관 및 소규모 낙후주거지 개선방안인 공동체정원은 중요한 자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애란 외 1, 2018).

반면 최근 일각에서는 조성된 커뮤니티가든의 지속성에 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내 도시 커뮤니티가든의 실태에 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대상지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헌상 존재하는 도시텃밭 및 공동체정원 대상지가 조사시기에는 관리미비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없어진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음을 언급한다(김혜주 외 1, 2017). 이 밖에 관련 연구에서도 주민들의 지속적 참여의 어려움, 운영비용 부족 등 커뮤니티가든의 유지·관리 문제가 제시되고 있다(오주석 외 3, 2018; 김민선 외 2, 2015).

커뮤니티가든의 지속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은 정원을 조성할 수 있는 장소 및 지속적인 재원의 확보, 그리고 이것을 지원하는 제도적 시스템 등이다. 국내의 경우 대부분의 커뮤니티가든이 정부 및 지자체 사업을 계기로 조성되는데, 참여주체인 주민공동체가 사업 공모를 위해 급조된 경우가 많아 사업기간이 만료된 이후로는 정원과 공동체에 대한 지속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최근 공공사업을 통해 조성된 커뮤니티가든 대상지에서 주민공동체가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커뮤니티가든과 그 활동 전반을 사회적 자본[2]으로 확장시키려는 시도가 관찰되고 있다.

공동체정원 조성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시도가 태동한지 약 6년 이상 경과한 현 시점에서, 사업 이후 정원의 존치여부와 참여했던 주민공동체의 정원 운영양상을 조사하고 연구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커뮤니티가든의 핵심적인 발전 요인을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2017년 이후 크게 양산된 공동체정원 및 마을정원 사례가 공공지원의 유효기간에 따라 방치되고 의미없이 와해되는 것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커뮤니티가든 운영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주민공동체가 자생력을 갖고 다양한 협력주체와 함께

2)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란 지속적인 네트워크 혹은 상호 면식이나 인정이 제도화된 관계, 즉 특정한 집단 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획득되는 실제적인 혹은 잠재적인 자원의 총합이다(박은지, 이연숙, 안창헌, 2011).

정원을 운영해나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커뮤니티가든에 있어 활동주체인 주민들의 지속적 참여와 주도적인 운영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연구 과정은 우선 주관부처별 커뮤니티가든 조성사업 내용을 검토하여 정원 조성 및 운영 실태를 간접적으로 파악한다. 이를 바탕으로, 주민으로 구성된 사회적협동조합이 정원의 사후 운영관리를 주도하고 있는 국내 사례를 선정하여 그 전개양상을 분석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커뮤니티가든 운영을 위한 주민조직과 그 외 협력주체별 역할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은 첫째, 선행연구 및 문헌 고찰을 통해 커뮤니티가든의 개념과 가치, 그리고 지속가능한 커뮤니티가든 운영의 의미를 살펴본다. 둘째, 정부 및 지자체 주도의 커뮤니티가든 조성사업을 조사하여 국내 커뮤니티가든의 실태를 분석한다. 셋째,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커뮤니티가든 중에서 대외적인 성과를 보이는 공동체정원 및 운영 주민조직 사례의 전개과정을 면밀히 조사하여 그 특징을 분석한다. 이는 특히 커뮤니티가든 운영계획의 중요요소인 공동체 형성 및 참여와 관련하여 참고할만한 사례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사례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인천광역시 용현5동에 위치한 두레정원(현 용현도시농업공원)이다. 두레정원은 본래 18,540㎡ 규모의 완충녹지였던 곳에 조성된 공동체정원으로, 원형정원 12개소, 테마정원 50개소, 도시텃밭 50개소 등이 설치되어있다. 대상지 인근에는 대규모 및 중형 아파트단지와 학교시설, 그리고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 등의 공원시설이 접하여 있다.

(2) 시간적 범위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행정안전부 주관 마을공동체 정원 조성사업에 용현5동 완충녹지가 대상지로 선정된 2015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로 설정한다. 2016년 3월부터 10월까지는 정원 시공이 이루어졌다. 공동체정원의 개원식 이후 행정안전부의 사업지원은 종료되었으나, 지자체와 정원조성작업에 참여한 주민공동체가 협업하여 6년 이상 정원의 운영 및 관리가 유지되고 있다.

(3) 내용적 범위

본 연구에서는 행정주도의 정원 조성사업을 계기로 주민조직이 형성되고, 주민과 지자체가 함께 커뮤니티가든을 운영해나가는 단일 사례의 공간적, 활동적 전개과정을 정리한다. 특히 커뮤니티가든을 기반으로 하여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한 주민공동체의 활동양상 및 민-관 협력관계 변화를 심층인터뷰를 통해 규명하고, 전반적인 전개과정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해 국내 도시 커뮤니티가든의 특징과 성과 및 한계를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 흐름으로는 첫째, 커뮤니티가든의 개념과 가치, 그리고 지속가능한 커뮤니티가든 운영에 관한 논의를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커뮤니티가든의 주민

운영주체로서 사회적협동조합 조직의 형성 및 전개양상을 분석할 수 있는 분석의 틀을 설정한다. 둘째, 국내 커뮤니티가든의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공공지원 주민참여형 정원조성사업 현황을 조사하여 커뮤니티가든 조성 및 운영의 실태를 파악한다. 셋째, 사회적협동조합 활동을 통해 주민주도적 커뮤니티가든 운영을 유지하는 우수 사례를 선정하여 해당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수집된 인터뷰와 문헌자료로 정원 운영 과정에서의 협력체계 변화와 성과 및 한계점을 분석하여 사회적협동조합 활동이 커뮤니티가든 운영과 어떠한 관계성을 가지는지에 관한 결론을 도출한다.

2. 연구의 방법

(1) 이론 및 문헌조사

이론 및 선행연구 조사를 통해 커뮤니티가든 관련 개념과 속성을 정립하고, 사회적 관점에서 바라본 커뮤니티가든의 의미를 살펴본다. 또한 커뮤니티가든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논의를 통해 주민 운영주체의 중요성을 살피고, 주민조직 유형 중의 하나인 사회적협동조합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한다. 분석 단계에선 국내에서 전개되고 있는 커뮤니티가든의 조성 및 운영 현황을 이해하기 위하여 각종 문헌과 신문기사 등을 참조하여 정리한다. 이를 통해 한국형 커뮤니티가든의 목적과 기능을 파악하고, 조성된 정원의 현주소를 점검하여 향후 지속가능한 커뮤니티가든 조성 및 운영의 개선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

(2) 현장조사

국내 도시 커뮤니티가든 사례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선정한 연구대상지의 현장을 답사한다. 현장조사를 통해 커뮤니티가든의 물리적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주민조직이 활동하는 정원 거점공간으로서의 특징을 도출한다. 뿐만 아니

라, 주민들의 이용행태를 관찰하여 커뮤니티가든의 주요 이용 특성 및 목적 등 내용적 현황도 살펴볼 수 있다.

[표 1-1] 커뮤니티가든 현장 조사 항목

구분		세부 항목	
물리적 현황	일반	위치, 면적, 입지유형, 공공접근성	
	도입시설	기반시설	관리실(사무실), 화장실, 휴게시설, 안내판
		원예시설	꽃밭, 텃밭, 관수시설, 농기구보관창고, 퇴비장
		커뮤니티시설	공동교육장, 어린이 놀이시설
내용적 현황	일반	주요 이용 대상자	
	주요 활동 및 프로그램	이용 목적 및 형태	

(3) 관계자 심층인터뷰

인터뷰의 목적은 연구대상인 커뮤니티가든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전개과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도시 커뮤니티가든 조성 및 운영에서 각 참여주체의 기능과 역할을 분석하기 위함이다. 정원조성사업과 관련한 공공데이터 및 언론자료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참여한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전개양상을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 인터뷰 항목은 크게 커뮤니티가든 조성사업의 추진내용, 사업 이후 주민공동체와 지자체 및 협력기관 간의 정원 운영 내용, 그리고 사회적협동조합 설립과정과 이후 운영주체별 활동 내용 등이다.

인터뷰는 반구조화(semi-structured) 형식으로, 사전 녹취에 대한 고지를 한 뒤 자유로운 대화형식으로 진행한다. 초기 공동체정원 조성단계에 참여하여, 주민공동체의 대표부터 현재 두레정원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직을 담당하고 있는 중심 인물과 4월부터 6월에 걸쳐 총 3회의 대면 및 유선 인터뷰를 시행하였으며, 최초 인터뷰는 대상자의 개인사업장에서 진행하며 라포 형성을 하였다. 협동조합의 조합원이자 부대표를 맡은 대상자와의 면담은 조합원들이 주로 활동하는 두레정원 내 관리동에서 진행하였으며, 당일 예정된 어린이 생

태교육 수업에도 일부 참관하여 협동조합 활동을 관찰조사 하였다. 관련 공무원과의 면담은 미추홀구청 시민공동체과와 공원녹지과의 담당자를 각각 섭외하여 대면 및 유선으로 진행하였다.

▎인터뷰 대상자

[표 1-2] 개별 면담 응답자 개요

번호	특성	응답자	성별
1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A	여
2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	B	여
3	관련 공무원(시민공동체과)	C	남
4	관련 공무원(공원녹지과)	D	여

3절. 연구의 흐름

[표 1-3] 연구의 흐름도

<table>
<tr><th>단계</th><th>항목</th><th colspan="2">연구내용</th><th>연구방법</th><th>본문의 구성</th></tr>
<tr><td rowspan="6">1단계</td><td rowspan="6">서론</td><td rowspan="3">연구 배경</td><td>지역 공동체 활성화 전략으로서 커뮤니티가든 조성</td><td rowspan="6"></td><td rowspan="6">제1장</td></tr>
<tr><td>국내 도시 커뮤니티가든 운영 지속성의 한계</td></tr>
<tr><td>커뮤니티가든 활동을 통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td></tr>
<tr><td rowspan="2">연구 목적</td><td>행정주도 커뮤니티가든 조성 및 운영 실태 파악</td></tr>
<tr><td>지속가능한 커뮤니티가든 운영주체로서 사회적협동조합의 가능성 탐구</td></tr>
<tr><td colspan="2">연구의 범위 및 방법</td></tr>
<tr><td colspan="6">▼</td></tr>
<tr><td rowspan="3">2단계</td><td rowspan="3">이론적 고찰</td><td colspan="2">선행연구 및 문헌 고찰을 통한 커뮤니티가든의 이해</td><td rowspan="3">선행연구, 문헌고찰</td><td rowspan="3">제2장</td></tr>
<tr><td colspan="2">커뮤니티가든에 대한 이해</td></tr>
<tr><td colspan="2">지속가능한 커뮤니티가든 운영</td></tr>
<tr><td colspan="6">▼</td></tr>
<tr><td rowspan="4">3단계</td><td rowspan="4">일반 현황 및 분석</td><td colspan="2">국내 커뮤니티가든의 이해</td><td rowspan="4">선행연구, 미디어자료, 인터뷰</td><td rowspan="4">제3장</td></tr>
<tr><td colspan="2">국내 행정주도 커뮤니티가든 조성 사업</td></tr>
<tr><td colspan="2">커뮤니티가든 조성 및 운영 실태</td></tr>
<tr><td colspan="2">커뮤니티가든 사례연구 대상 선정</td></tr>
<tr><td colspan="6">▼</td></tr>
<tr><td rowspan="4">4단계</td><td rowspan="4">사례 연구</td><td colspan="2">커뮤니티가든 활동을 통한 사회적협동조합 형성 및 전개과정</td><td rowspan="4">현장조사, 심층인터뷰</td><td rowspan="4">제4장</td></tr>
<tr><td colspan="2">인천시 용현동 두레정원의 개요</td></tr>
<tr><td colspan="2">‘두레정원 사회적협동조합’의 형성 및 전개과정</td></tr>
<tr><td colspan="2">두레정원의 성과 및 한계</td></tr>
<tr><td colspan="6">▼</td></tr>
<tr><td>5단계</td><td>결론</td><td colspan="2">연구 결과 요약 및 시사점</td><td></td><td>제5장</td></tr>
</table>

제2장 이론 및 선행연구

1절. 커뮤니티가든의 이해

1. 커뮤니티가든의 개념

지역공동체가 함께 정원을 가꾼다는 의미의 커뮤니티가든은 공동체와 정원의 합성어로 각각의 단어가 본래 지니는 기능과 역할을 함께 내포하며(함연수, 2021), 사전적 의미로는 영역에 의해 명확하게 구분되는 개인정원 외에 공동체에 의해 조성된 개방된 공간으로서 식물요소와 조형물로 공동체 의식을 키우거나 행사나 이벤트가 열리고 놀이장소로서 역할하는 공간이다(김미향, 2011). 해외에서는 커뮤니티가든이 식량 안보, 신체적 활동, 정신적 웰빙, 그리고 사회적 교류를 통해 지역사회의 커뮤니티를 활성화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공중보건기구로 인식하기도 한다(Matthew R. Bice 외 8, 2018). 한편 커뮤니티가든은 지역 내 유휴지 뿐 아니라 학교, 병원, 감옥, 기업 등 다양한 장소에 조성할 수 있으며, 주최 역시 개인, 학교, 비영리 단체, 공공기관 등 매우 다양하다(박은지 외 2, 2011).

본 연구는 최근 도시지역의 공동체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 정원문화 확산 등을 목적으로 한 커뮤니티가든 조성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특히 지역 주민들을 주체로 한 커뮤니티가든에 주목해보고자 한다. 농촌진흥청(2011)은 커뮤니티가든(Community Garden)을 도시민이 겪고 있는 교통문제, 먹거리의 안정성 불안, 열섬현상, 사회적 소외 등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도시농업의 한 형태로 보았으며, 행정안전부(2015)는 일정지역 주민이 농작물·꽃·수목을 이웃과 함께 재배하기 위해 공동으로 소유 또는 운영하는 농장, 텃밭, 화단, 꽃밭, 꽃길 등으로 구성된 자연공간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조인숙, 최정민(2019)은 도시 커뮤니티가든을 다양한 공동체 효과 및 목적을

가지면서 다양한 활동을 통한 도시민의 공동체증진과 도시경관개선을 증진하는 공간으로 정의한 바 있다.

국내에서의 커뮤니티가든은 2012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2844호) 제정에 따라 도시농업이 먼저 활성화 되면서 유사개념으로 함께 언급되어 왔는데, 최근 선행연구는 도시텃밭의 공동체 활성화 및 지속성의 한계점을 이야기하며 텃밭과 원예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념의 커뮤니티가든 조성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애란, 박재민(2018)은 도시농업은 주로 생산 중심의 활동이자 지역공동체보다는 가족단위의 활동이라는 측면에서 커뮤니티가든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범위가 한정적이라고 언급하였으며, 최정민, 김유나, 박동찬(2018)은 국내 커뮤니티가든의 개념이 기존 도시농업의 개념에 비해 화훼나 재배와 같은 농업활동 이외에도 다양한 목적을 함께 담고 있음을 도출하였다. 신명진, 최정민(2018)은 최근 마을만들기 등 지역공동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함에 따라 주민참여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든의 필요성이 공감받고 있음을 이야기하였다. 커뮤니티가든 개념 정립에 있어 원상지인 북미지역의 광의의 개념과 국내 및 일본에서 지칭하는 협의의 개념이 상이한데, 우선 광의의 개념 특성을 바탕으로 커뮤니티가든 개념정립 고려요소를 도출하고, 국내 환경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협의의 커뮤니티가든 개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오늘날에 적합한 새로운 방향성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표 2-1] 커뮤니티가든 개념정립을 위한 요소 (출처: 최정민 외2, 2018. 인용)

개념정립 요소	주요 내용
용어 구성적 의미	• Community(영역성, 사회적 상호작용, 공동체) + Garden(개방성, 공공성, 실천성; 노동, 땀의 의미) → 식물생산, 주민참여, 사회적 관계(공동체 형성)
개념 요소	• 물리적 특성: 공간의 입지 및 위치적 특성, 공간조성 형태, 도입시설 • 내용적 특성: 주요 이용 대상자, 이용 목적 및 형태, 주요 활동(프로그램), 운영관리 형태(주체, 지원 등)
주요 주체	• 토지소유주(장소) → 조성주체(건설/종사) → 이용자(지역주민 등) → 조직 및 활동단체(시민단체 등 네트워킹) → 운영관리 주체 → 지원(공공 및 관련단체 지원)
기능 및 역할	• 재배활동의 場(식량생산), 커뮤니케이션의 場(주민참여), 도시정비의 場(도시재생, 마을만들기), 치유의 場(취미)

또 다른 유사개념인 마을정원은 마을에 속해있는 내 집 안팎에 있는 정원을 포함하여 마을 사람들이 함께 즐기는 정원, 마을 골목길 화단 모두를 포함한다(농촌진흥청, 2015). 이는 커뮤니티가든으로 명명되지 않더라도 주거지와 가로의 식물가꾸기 활동을 통해 거주자들끼리 상호 교류하게 되어(함연수, 2021) 마을의 공동체 의식 증진 효과가 있음이 규명됨으로서 공간 확보의 어려움이 큰 국내 도시환경의 새로운 커뮤니티가든 유형으로 바라볼 수 있다. 이상아(2017)는 마을정원을 마을의 오픈스페이스뿐 아니라 내 집 앞의 공간도 주민과 함께 조성하고 가꾸는 정원, 텃밭, 휴식 공간 등의 개념을 포괄하는 공간으로 해석하였으며, 이는 주로 공공용지의 활용을 도모하는 국내 커뮤니티가든과는 조금 다르게 사적공간의 공적 이용을 유도하여 개인정원까지 공동체를 위한 정원의 범위에 포함시켜 주민들의 원예와 휴식을 위한 장소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개념적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이처럼 마을정원의 경우 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공유지나 유휴부지 확보가 어려운 도시 주거지역에 도입되는데, 정원의 목적과 기대효과 등은 커뮤니티가든과 같은 맥락에 있다.

국내 커뮤니티가든 관련 개념을 종합하면, 대부분의 경우 정부 및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사업으로 그 개념이 정립되고 정원이 조성되고 있으므로 각 주관부서에 따라 조금씩 다른 전개양상을 보이며, 그 밖에도 각 대상지 유형과 참여주체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띈다. 하지만 그 본질에는 정원활동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가 가장 주요한 목적이며, 장기적으로는 정원공동체를 통한 지역사회 내 교육, 놀이, 여가 등 정원문화의 확산과 주민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사회적 관점에서의 커뮤니티가든

▌커뮤니티가든의 다원적 가치

지역사회 내 옥외공간은 주민들로 하여금 개인의 활동 뿐 아니라 사회적 활동 및 관계를 이루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근린공원과 같이 주민 다수를 위해 조성된 녹색공간은 지역 공동체의 성격을 드러내고 주민의 커뮤니티 의식 형성에 긍정적 역할을 미칠 수 있다(박은지, 이연숙, 2011). 한편 이전의 정원이 관상과 예술의 장소로 주로 인식되었다면, 현대 도시에서의 정원은 '가꾸기 행위'를 통한 '참여'가 중시되는 장소이며 직접 작물을 키워먹는 '생산적 기능의 장소', 푸드 마일리지를 줄이는 '대안적 녹지' 및 '공동체적 삶을 회복하는 장소'로서 가치가 부각되고 있다(심주영, 조경진, 2015). 일반 정원이나 근린공원보다도 지역단위의 주민들을 중심으로 조성된 커뮤니티가든은 위와 같이 조명받고 있는 정원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녹색공간으로서, 일부 측면에서는 도시 내 오픈스페이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고 있다.

[표 2-2] 국내 적용 커뮤니티가든의 범위 (출처: 박은지 외 1, 2013. 인용)

구분	일반 정원	커뮤니티가든	근린공원
소유 및 관리대상	개인, 특정 단체/기관	지역 주민, 정부/공공기관	정부/공공기관
이용 행태	• 원예/작물재배 • 관상	• 원예/작물재배 • 주민모임/활동 • 미화 및 교육	• 레크리에시션/스포츠 • 여가/휴식

2018년도 농촌진흥청에서 전국의 성인 58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아파트 텃밭 관련 설문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커뮤니티가든이 단순히 부식을 생산하는 개인의 즐거움을 위한 공간을 넘어[3] 주민 삶의 질 향상, 마을공동체 활성화, 건강 증진, 교육 및 학습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음을

3) 농촌진흥청, 아파트 텃밭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 2019 (출처: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알 수 있다[표 2-3]. 또한 이양주(2021)는 생명을 돌보는 작은 커뮤니티가든이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선언하며, 현재 당면한 3가지 과제; 코로나19, 탄소중립, 높은 자살률에 대한 효과적 대응방안으로 공동체정원 조성 및 운영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표 2-3] 아파트 텃밭의 목적 (출처: 농촌진흥청, 아파트 텃밭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 2019)

번호	항목	응답자수	평균점수
1	즐거움과 만족감 증가	529	3.41
2	이웃과의 교류 및 친목도모	525	3.30
3	불안이나 우울 감소	518	3.27
4	자녀 교육 및 학습	512	3.22
5	가족관계 증진	519	3.15
6	신체적 운동 효과	524	3.12
7	식물 재배법 습득	521	3.12
8	안전한 농산물 획득	526	3.08
9	아파트 미적경관 향상	518	2.96
10	채소 구입비 감소	516	2.76

최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참여의 마을만들기, 마을기업, 생활협동조합 등 다양한 마을 공동체사업이 일상생활에 가장 가깝게 위치하여 동네 사람들 누구나 흔히 접할 수 있는 공공공간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정나라 외3, 2017). 더불어 정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마을만들기 사업의 하나로서 커뮤니티가든이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그 효과에 대한 지역의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관련 선행연구

커뮤니티가든의 사회적 기능을 언급한 선행연구로, Claire Nettle(2014)은 사회적 활동의 장으로서 커뮤니티가든은 식량 안보에 대한 기여, 약화된 공공공간에 대한 재고, 도시 환경 보존 및 발전, 지속가능한 식량 생산 및 도시 주거의 기술 개발, 공동체 교류 및 상호 유대감 형성, 지역문화 유지 및 생산과의

연계, 그리고 이웃 공동체공간(neighbourhood commons) 조성을 실현시킨다고 이야기하였다. Jeffrey Hou 외 2(2009)는 도시 내에서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건강의 측면에서의 복합적인 유익을 제공하는 커뮤니티 오픈스페이스(Community Open Space)의 모형으로 간주하였으며, 또한 지역문제 해결의 장소이자 실천적 운동의 장소로 마을공동체 및 도시정책과 연계해 주민의 참여, 지역의 문제를 함께 공유하는 장소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신명진, 최정민(2018)은 커뮤니티가든 발상지인 북미의 다양한 사례를 조사하여 각 도시의 특성 및 공간구조와 커뮤니티가든 간 관계 고찰을 통해 도시별 커뮤니티가든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탐구하였다. 박은지, 이연숙, 안창헌(2011)은 커뮤니티가든을 지역, 공동체를 비롯한 사회적인 측면과 정원의 생산적, 환경적 측면의 복합체로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이득을 창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해하였으며, 미국의 커뮤니티가든의 특성을 사회적 자본의 측면에서 연구하였다.

이렇듯 커뮤니티가든이 지역사회 공동체 육성의 장으로 활용되는 만큼 이를 위한 공간의 구성과 운영 방법이 동시에 모색되어야 하며(조인숙 외, 2019), 이 맥락에서 정원이 일부 활동가만의 공간이 아닌 지역사회 모두에게 열린 공동체 공간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지역사회 환원형의 공공적 가치 실현 등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2절. 지속가능한 커뮤니티가든 운영

최근 국내 커뮤니티가든은 지속적 주민참여의 어려움, 운영비용의 문제 등 유지관리 관련 문제가 제기되면서 지속가능한 운영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에 있다. 정원문화가 크게 확산되기 이전부터 조성된 도시농업 형태의 커뮤니티가든 현황은 곧 국내 커뮤니티가든 전반의 한계점을 보여준다. 서울시 도시농업 분야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도시텃밭 실태조사 결과 시민들에게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공급된 6만 여개의 상자형 텃밭의 약 59%만 재활용되고 있었으며, 주민의 무관심 등이 서울시 텃밭의 지속가능성 저해 요인임을 밝혔다(오주석 외 3, 2018 재인용). 또한 2019년 서울시 도시농업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분석한 도시농업 및 텃밭에 대한 인식 정도([표 2-4])는 그에 대한 한계점을 시사한다.

[표 2-4] 도시농업 및 텃밭에 대한 서울시 시민들의 인식
(출처: 2019년 서울시 도시농업 실태조사 보고서, p.273)

도시농업 및 텃밭에 대한 관리소장 등의 일반적인 인식 정도[4]
• 첫째, 텃밭 조성할 공간이 없음 • 둘째, 다른 아파트에서 근무했을 때 텃밭을 조성해봤으나 입주자 참여도가 낮아 결국에는 관리사무소 직원의 관리 업무로 변질됨 • 셋째, (텃밭 조성 가능 공간 부족 문제와 결부되어) 참여 희망자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움 무작위 추첨 방식을 택해도 텃밭을 분양받지 못한 입주자의 불만이 입주자 간의 갈등을 초래해 결국에는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결과를 낳음 • 넷째, 도시농업에 관심이 없는 입주자들의 민원(냄새, 소음, 공용 공간의 일부 입주자 및 단체 독점 사용)이 제기되어 결국 텃밭을 운영할 수 없음

상기 내용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든 운영의 한계점은 첫째, 조성 공간 부족, 둘째, 운영·관리 주체인 주민의 참여도 저조, 셋째, 운영과정상

4) 2019 서울시 도시농업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인식조사 사항은 일반 시민들이 도시농업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로 받아들여도 무방하다.

의 갈등 발생으로 인한 공동체 와해, 넷째, 무관심한 주민들의 민원 증대로 정리할 수 있다. 서울시는 또한 텃밭이라는 용어 자체가 부정적 이미지를 낳을 수 있으므로 공동체 텃밭이라고 하기보다는 마을정원, 커뮤니티가든 등 농작물 차원을 넘어서서 화초를 재배하는 원예 공간으로서의 이미지를 떠오르게 하는 용어를 전략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음[5]을 언급하였다.

텃밭 뿐만 아니라 정원활동의 다양한 행태가 이루어지는 국내 지방중소도시 포함 13개 도시의 35곳의 사례지를 조사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헌상 존재하는 대상지가 조사시기(2017년)에는 관리 미비와 여러 가지 사유로 없어진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었음을 언급하였다(김혜주, 최정민, 2018). 이는 특히 최근 다양한 주관부처로부터 사업적 지원을 받아 단편적으로 조성되어 온 커뮤니티가든 대상지들이 이후 유지관리에 있어서는 적절한 계획과 운영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음을 말한다.

현재 국내 커뮤니티가든의 문제와 한계를 커뮤니티가든 운영요소인 장소, 사람, 재원 시스템 측면에서 도출한(농촌진흥청, 2020)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2-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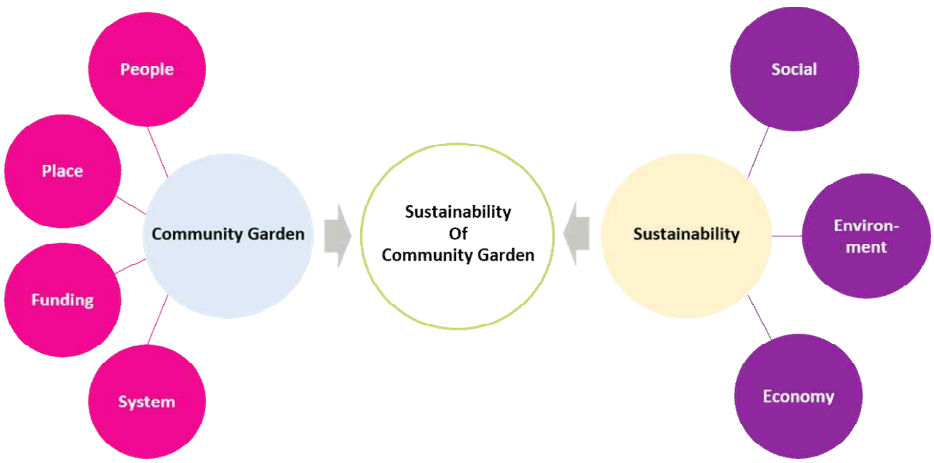
[표 2-5] 국내 커뮤니티가든의 현황적 문제 및 한계점
(참고: 농촌진흥청, 2020:44; 서울시, 2019 인용 및 재구성)

구분	현황	문제점
장소	양적 확대 중심의 공동체정원	• 다양성이 부족한 공동체정원 • 조성 공간의 부족
재원	먹거리 중심의 공동체정원	• 신규 참여자 및 지속적 참여자 부족
사람	공동체가 없는 공동체정원	• 운영관리재원 확보 부족 • 갈등 발생으로 인한 공동체 와해 • 무관심한 주민들의 민원 증대
시스템	운영관리 부족	• 지속적 사용을 위한 행정의 지원 부족

5) 서울특별시 도시농업포털, 서울시 도시농업 실태조사 보고서, 2019, p.273.

1. 커뮤니티가든과 지속가능성

도시 커뮤니티가든에 관련한 농촌진흥청의 보고서에 따르면 커뮤니티가든의 장기적인 운영과 현대사회 도시문제 해결의 장으로서 활용을 위해서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다. 지속가능성의 범위는 크게 사회적(Social), 환경적(Environment), 경제적(Economy) 측면으로 보는데, 커뮤니티가든에서는 참여주체의 지속적 참여방안 마련(People), 지속적 장소의 확보(Place), 지속적인 재원마련 모색(Funding), 지속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시스템 구축(System)(농촌진흥청, 2020)과 같은 운영적 중요요소가 지속가능성의 3가지 범위와 결을 같이 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림 2-1] 지속가능한 커뮤니티가든 운영을 위한 개념적 틀
(출처: 농촌진흥청, 사회통합유도형 도시커뮤니티가든의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2020 인용)

▌관련 선행연구

커뮤니티가든 운영의 지속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추가적으로 살펴보면, 김민선, 정윤남, 김세용(2015)는 공동주택단지 내에서의 도시농업의 조성 및 운영주체별 도시농업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여 텃밭운영의 지속성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오주석, 민병학, 최정민, 김세용(2018)은 일반분양 및 공공임대 아파트 거주민 중 텃밭활동 참여자들의 커뮤니티가든에 관한 인식, 운영현황, 만족도 등을 종합 조사하여 지속적인 텃밭활동 참여방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관련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조인숙, 최정민(2019)은 공동체정원의 조성뿐 아니라 유지관리 방안까지 함께 마련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하며, 국내와 일본의 공동체정원 사례를 대상으로 운영과정을 조사하고 국외 공동체정원 운영 가이드라인을 분석하여 지속가능한 공동체정원의 운영요소를 도출하였다.

커뮤니티가든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운영관리단계 가이드라인에 대한 선행연구로, 이나래, 이애란(2018)은 국내 커뮤니티가든의 디자인과 관련된 기존 가이드라인이 도시농업 중심의 텃밭 조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지역공동체의 사회통합 유도라는 목적 달성에 한계가 있음을 언급하며, 기존의 정원설계와 관련된 국내 가이드라인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국내 커뮤니티가든 가이드라인을 위한 시사점을 이야기 하였다. 이애란, 박재민(2018)은 커뮤니티정원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국외 가이드라인을 비교분석하여 국내 주민참여형 커뮤니티정원 조성 가이드라인의 기본 지향점과 콘텐츠의 방향을 도출하였다.

많은 국내 커뮤니티가든 사례는 정부 및 지자체의 실행사업으로 시작이 되며, 그 내용은 주로 정원의 조성에 관한 계획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커뮤니티가든의 지속성에 있어서 운영단계의 사전 및 사후계획과 구체적인 방안이 중요하다. 따라서 김민선 외 2(2015), 오주석 외 3(2018), 조인숙 외 1(2019)은 커뮤니티가든의 운영 및 관리단계에서의 몇 가지 중요 요인을 도출하여 이에 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을 제언하였다. 주로 운영조직에 관한 중요성을 언급하였는데, 도시텃밭의 형태로 조성된 커뮤니티가든 사례들의 경우 해당 주거단지 내 주민 운영조직 또는 시민단체, 비영리기관 등과의 연계를 통해 커뮤니티가든 운영의 자생력을 증진시켜야 함을 시사하였다. 최근 공동체정원 또는 마을정원의 이름으로 조성된 정원형 커뮤니티가든의 경우에는 계획 및 조성단계에서 기존 주민공동체나 정원 조성을 위한 새로운 주민자치위원회 등을

조직하여 조성에도 참여하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다만 이들의 자립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주민조직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구성하여 그들만의 규약 제정, 재정계획 수립, 공동체 역량강화 계획, 지역사회 연계방안 모색, 지속적인 신규참여자 발굴 및 교육 등의 활동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2. 커뮤니티가든 운영주체로서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 가치를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며 이를 강조하는 조직은 대부분 사회적경제[6] 영역에 속하며, 사회적기업을 대표로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을 예로 들 수 있다(유두호, 엄영호, 2020). 최근에는 지역사회 내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지역기반 사회적경제조직의 도시활력 증진 효과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임상연 외 5(2016)에 따르면, 지역성을 갖춘 사회적경제조직은 지역사회와 상호관계를 통해 지역의 역량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조직이 지역사회의 수요를 인식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기여함으로써, 결국 지역사회의 수요에 대응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일련의 과정이 도시활력 증진 효과를 증대시킨다는 것이다. 이는 지역의 녹지자원을 활용하여 정원활동을 하고, 함께 조성한 커뮤니티가든을 기반으로 공동체활동을 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문제 해결 및 수요에 대응하는 커뮤니티가든 운영과 유사한 맥락을 보인다.

(1) 사회적협동조합의 특성

사회적협동조합은 일반협동조합보다 공익성과 비영리성이 강화된 형태로,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

6) 사회적경제는 구성원이나 공공을 위한 목표 경영의 자율성,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수익배분에 있어서 자본보다 사람과 노동이 중시되는 윤리적 또는 사회적 원칙을 지키는 조직 자체 또는 조직 활동으로 정의된다(임상연 외 5, 2016)

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이다.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가장 큰 차이는 사회적협동조합이 비영리법인에 속한다는 것이다. 2020년 3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일부 개정되었으며, 그 내용 중에는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한 사항이 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4조). 사회적협동조합은 경제활동을 하는 사업조직이자 경제조직이기도 한 것이다. 이 밖에도 조직의 설립과 운영절차에 있어 일반협동조합과 몇가지 차이점이 있다.

설립절차 상의 차이점은 일반협동조합의 경우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설립신고를 하는 반면, 사회적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 사회적협동조합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6조). 설립인가 기준에는 설립동의자가 5인 이상일 것,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 가운데 둘 이상의 이해관계인을 포함하여 구성할 것 등의 사항이 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9조).

[그림 2-2]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절차

운영 사업에 제한이 없는 일반협동조합과 달리 사회적협동조합은 공익사업을 40% 이상 수행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며, 그에 해당되는 사업은 ①지역사회의 재생, 지역 경제의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 · 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 사회가 당면한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복지 · 의료 · 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③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④국가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⑤그 밖에 공익증진에 이바지하는 사업으로, 이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사회적협동조합은 경영공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그 항목은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사업결산보고서, 총회와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활동상황, 사업결과보고서이다.

이 밖에도 사회적협동조합은 잉여금의 배당을 금지하는 등의 직접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한하여 투입자원의 확충과 유효한 활용여건을 부여하고 있으며[7], 비조합원과의 거래 허용과 공동기관의 우선 구매[8] 등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홍효석, 2022).

[표 2-6]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비교 (참고: 유두호 외 1, 2020; 홍효석, 2022, 인용)

구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격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설립	시·도지사 신고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인가
사업	•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 금융, 보험업 제외	• 공익 사업 40% 이상 수행 • 지역사회공헌, 지역 주민권인 증진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 •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 공공기관 위탁사업 • 기타 공익을 위한 사업
경영공시	의무사항 아님	모든 사회적협동조합 의무사항
법정 적립금	잉여금의 10/100 이상	잉여금의 30/100 이상
소액대출	불가능	• 조합원 대상 • 납입 출자금 2/3한도
상호부조	불가능	• 조합원 대상 • 상호부조회비 적립금 내
배당	배당 가능	배당 금지
청산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유사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국고 등 귀속

7) 협동조합 기본법 제98조(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에 따르면, ①사회적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의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②사회적협동조합이 제1항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하고 제97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 발생하는 잉여금은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이를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없다.

8) 협동조합 기본법 제95조(사업의 이용)와 제95조의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참고

(2) 사회적협동조합의 현황

2022년 3월 기준 설립・인가된 전체 협동조합은 22,610개이며, 이 중 일반협동조합은 18,834개, 사회적협동조합은 3,660개이다[9]. 사회적협동조합은 전체 협동조합과 비교해 약 16% 수준이지만, 그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표 2-7] 2022년 3월 기준 협동조합 설립현황 (출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전체	일반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이종협동조합 연합회
22,610	18,834	91	3,660	20	5

사회적협동조합은 사업의 목적에 따라 해당 부처의 인가를 받는 구조이기에 정부 부처별 설립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공익사업의 특성상 고용노동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에 편중된 경향이 있으나, 다양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여러 분야에 분포되는 것은 더욱 긍정적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또한 홍효석(2022)의 분석에 따르면 2021년 11월 기준 사회적협동조합은 특히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과 교육서비스업, 그리고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 지원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는 현황이다.

(3) 소결

앞서 커뮤니티가든과 지속가능성에 관한 이론적 고찰에 언급하였듯이, 커뮤니티가든의 지속가능성은 곧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의 세 가지 요소; 생태적 지속가능성, 사회적 지속가능성, 경제적 지속가능성의 증진을 통해 확보될 수 있다. 한편 지속가능성 개념의 핵심은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이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지속가능성까지 세 가지 요소가 함께 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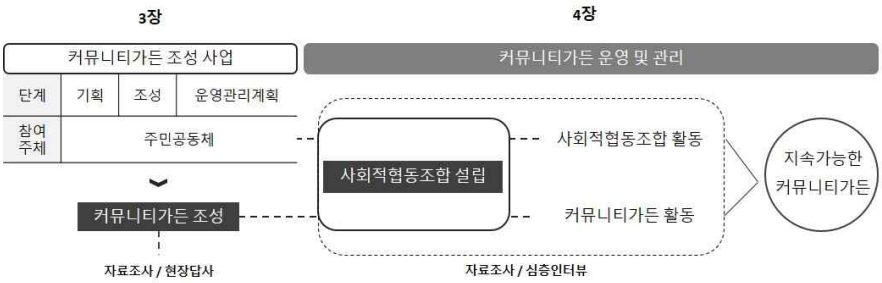
9)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https://www.coop.go.kr/home/contentsInfo.do?menu_no=2035 참고

형있게 추구되어야 한다는 점이며(김채린, 장준호, 2017), 이것은 곧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속가능성 논의에 접목되기도 한다. 커뮤니티가든의 지속성 또는 운영방안에 관련한 국내외 선행연구 중에서 커뮤니티가든의 사회적 가치 및 사회적 자본 관점에서 바라본 연구는 있으나, 아직까지 커뮤니티가든과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관계성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고민하는 연구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사례는, 커뮤니티가든 조성사업을 계기로 결성된 주민공동체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 개편을 하여 정원 기반의 사회적경제조직 활동을 시도하는 새로운 사례로, 국내 도시 커뮤니티가든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새로운 대안으로서 연구의 가치가 있다.

3절. 분석의 틀

3장에서는 국내 주민참여형 커뮤니티가든 조성사업의 실체를 조사하여 현재까지 조성된 커뮤니티가든의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민조직이 지속적 운영을 유지하고 있는 우수사례를 선정하고자 한다. 4장에서는 선정된 사례의 정원조성사업 진행과정과 주민조직 설립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및 커뮤니티가든 활동 내용을 자료조사와 관계자 심층인터뷰를 통해 시간축으로 정리한다. 또한 주민 사회적협동조합을 운영주체로 하는 커뮤니티가든의 특성과 시사점을 다각도에서 분석해본다.

본 연구는 결론적으로 현재 정부 행정사업 주도의 커뮤니티가든 조성 및 운영 현황을 밝히고, 그 안에서 주민들의 사회적협동조합 활동을 통해 운영되는 사례의 구체적인 전개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지속가능한 커뮤니티가든 운영·관리 방안에 대한 참고할만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림 2-3] 연구 분석의 틀

(1) 커뮤니티가든 분석의 틀

커뮤니티가든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은 물리적 현황과 내용적 현황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물리적 분석은 정원에 대한 일반적 조성 현황과 설치된 시설물을 조사하여 진행한다. 내용적 분석은 정원의 조성 배경과 과정, 그리고 사후 운영관리의 내용을 포함한다.

[표 2-8] 커뮤니티가든 분석의 내용
(출처: 박은지 외 2, 2011; 신명진 외1, 2018 참고 및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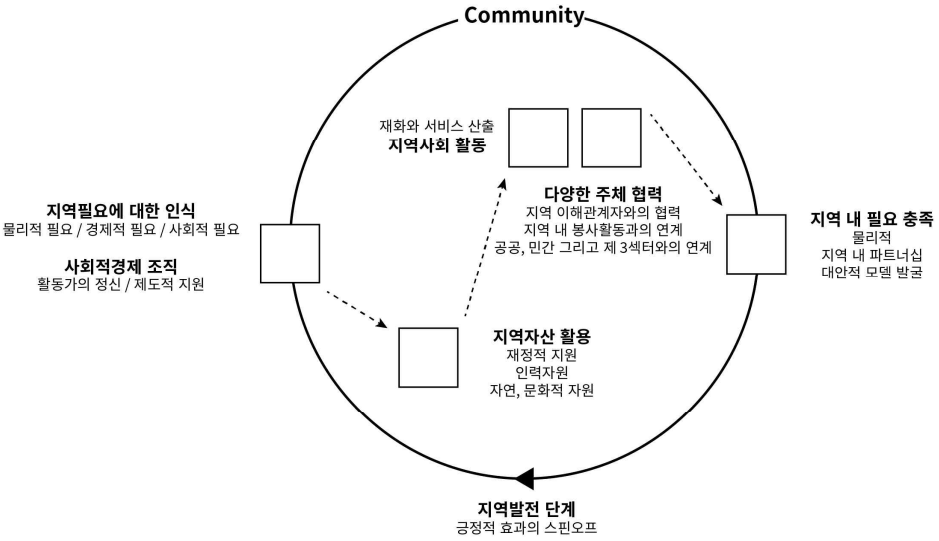
구분		세부항목
물리적 현황	일반	위치, 입지유형, 면적, 조성연도, 주체(조성/관리), 공공접근성
	도입시설	기반시설, 원예시설, 커뮤니티시설
내용적 현황	일반	조성 배경, 조성 및 운영관리 주체, 조성 과정, 주요 이용 대상자
	프로그램	이용 목적 및 형태, 운영 프로그램

(2) 사회적협동조합 분석의 틀

본 연구의 또 다른 연구대상은 커뮤니티가든을 기반으로 한 주민조직으로, 이들은 정원교육 프로그램을 계기로 공동체를 형성해 두레정원의 실질적인 운영주체로 활동하다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을 재구성하였다. 공동체의 측면에서 커뮤니티가든 조성 및 운영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지역기반 사회적경제 조직 활동 분석의 틀을 참고하여 주민조직의 활동내용을 전개하도록 한다. 이것은 행정주도의 커뮤니티가든의 조성 및 운영과정 속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 출현하게 된 의미와 그들의 활동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기에, 단순한 시계열적 분석이 아닌 유사한 연구대상의 분석의 틀을 활용하여 보다 명확하게 활동 내용을 분석하고자 함이다.

다음 [그림 2-4]의 분석의 틀은 본 연구에 적용하여, 커뮤니티가든 기반의 주민공동체가 1) 사회적협동조합 조직의 필요를 인식하여 설립하고 2) 지역자

산(커뮤니티가든 및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3) 지역사회 활동을 통해 다양한 주체와 협력하고, 4) 정원 기반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사회적 기능을 확대하여, 5)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10]하는 구조로 재구성 될 수 있다.



[그림 2-4] 사회적경제조직 활동 분석의 틀
(출처: 임업, 김동현, 2013; 임상연 외 5, 2015 재인용)

10) 임상연 외 5(2015). 도시활력 증진을 위한 사회적 경제 조직 활용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제3장 국내 커뮤니티가든 실태 분석 및 연구대상 선정

1절. 커뮤니티가든 조성 사업

국내에서 도시 커뮤니티가든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이 되거나, 도시농업 차원에서 유휴지를 활용하거나 근린공원을 연계하여 주민텃밭으로 제공되어왔다. 한편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이후 정원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민들이 함께 가꾸는 마을정원, 공동체정원 조성을 위한 실행사업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공식 및 비공식적으로 조성·운영되는 모든 커뮤니티가든 사례를 수집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나, 국내의 경우 많은 도시 커뮤니티가든이 행정주도의 지원사업을 통해 조성되고 있으므로 3장에서는 공공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정부기관 및 지자체의 공동체정원 조성사업 대상지를 바탕으로 국내 커뮤니티가든의 동향을 분석하도록 한다. 정원 조성사업 중에서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정원 조성 및 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단순 보조금 및 재료비 지원 차원이 아닌 커뮤니티가든 조성 전반의 단계적 지원을 행한 주관부처별 사업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1. 경기도 마을정원 조성사업

▌마을정원 만들기 사업

경기도는 2005년 도민주도의 도시녹화를 위해 경기녹지재단을 설립하여 경기도 옥상녹화, 경기정원문화박람회, 도시농업을 선도하였다(경기연구원, 2021). 재단이 2021년에 경기도농수산진흥원으로 변경되면서 녹화 및 정원 관

련 업무가 상실되었지만, 국내에서 마을정원 조성사업을 선도한 기관으로 볼 수 있다. 경기농림진흥재단은 주민주도, 지역 가치변화, 마을 단위의 녹색공동체 문화 확산을 목표로 2013년에 '마을정원 만들기' 시범사업을 기획하였다. 첫 번째 대상지는 부천환경교육센터와 협약을 맺어 부천시 원미동 156번길 일대에 조성되었다. 낡은 담벼락, 전봇대, 계단 등에 아트페인팅을 적용하고, 텃밭상자, 벽돌정원, 포켓정원 등 녹지공간 확대, 가파른 계단길 핸드레일 설치 등 정원 조성뿐만 아니라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였다. 해당 지역은 당시 뉴타운지구로 지정되었으나 사업성이 약하다는 판단으로 사업추진이 취소된 바 있으며, 그 과정에서 마을공동체가 붕괴되고 열악한 주거환경 문제가 지속되어 환경개선 및 공동체 회복에 대한 열망으로 사업에 선정되었다. 마을정원 조성 참여단체는 지역 내 다양한 기관 및 주민조직으로 이루어진 원미동 마을만들기 지원 네트워크의 인원들로 구성되었다.[11]

2014년에는 경기도가 시흥시와 협약을 맺어 오이도 해양주택단지 내에 두 번째 마을정원을 조성하였다. 대상지인 옥터로 45번길은 매립지 계획도시로, 공원 등 녹지공간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었다. 참여단체는 '오이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오사랑)' 주민공동체로, 3년 째 꽃나무 가꾸기, 집앞 화분만들기, 골목청소와 같은 지역봉사활동을 자발적으로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12] 세부 사업내용은 원미동의 경우와 유사하다.

2015년에는 군포시와 협약을 맺어 산본1동 산본천로 227번길 일원에 세 번째 마을정원이 조성되었다. 지역 내 자치조직인 '군포시 노루목푸르미회'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주민센터와 함께 매주 정기적 모임을 운영하고, 직접 정원을 위한 재료를 구매하여 설치하였다. 생활쓰레기 상습 불법투기 문제, 미관문제 등 환경개선이 필요했던 장소는 마을정원 만들기 사업을 통해 주민

---

11) 원미1동 156번길 '정이 넘치는 마을길로 재탄생', 부천타임즈, http://www.bucheon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186 (검색일: 2022년 4월 8일)

12) 시흥 옥터로길, '마을 정원'으로 재탄생, 일간경기, https://www.1g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031 (검색일: 2022년 4월 8일)

들을 위한 커뮤니티공간으로 변모하여 마을축제의 장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주민참여 마을정원사 프로그램 운영 시도

다음 경기도의 마을정원 조성사업은 2017년 안산시에서 진행된 '제5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사업의 계획은 지역주민의 참여로 마을정원을 조성하여 박람회동안 전시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후에는 마을축제 및 주민 교류의 장으로 승화시키는 것이다. 대상지는 박람회가 개최되는 화랑유원지 인근 고잔 1동 지역 빌라 단지와 단지 입구에서 단원고까지 이어지는 소생길이 선정되었다. 박람회와 마을정원만들기 행사에 대한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경기도는 꼬마정원사, 청소년정원사, 마을정원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양한 정원 관련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주민들은 주거단지 내 화단정원과 커뮤니티공간인 마을정원 및 가로정원을 조성하는데 참여하였다.[13] 제5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의 정원문화 확산과 주민들이 함께한 마을정원 활동 및 정원사 교육 프로그램의 성과는 이후 '주민참여형 마을정원 조성사업'의 기반이 되어 현재까지 해마다 수십 개의 마을정원 및 공동체 활성화 사례를 만들어내고 있다.

[표 3-1] 경기도 '마을정원만들기 사업' 대상지(2013~2017년)

선정년도	선정지역	정원명	기타
2013	부천시 원미동 156번길	정(情)과 활력이 넘치는 원미동 사람들의 마을 길	-
2014	시흥시 정왕동 2019번지 옥터로 45번길	오이도 마을정원	-
2015	군포시 산본1동 산본천로 227번길 일원	산본1동 마을정원	-
2017	안산시 단원구 고잔1동 660번지 일원	고잔동 마을정원	경기정원문화박람회

13) 경기정원문화박람회, 마을정원 조성해 지역재생, 한국조경신문, http://www.la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26178 (검색일: 2022년 4월 8일)

▌‘시민참여형’ 마을정원만들기 사업

이전의 경기도 정원 조성사업이 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경향을 보였다면, 2018년부터는 마을정원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원문화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공동체 프로그램 등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갖춰지기 시작했다. 경기도 공원녹지과 주관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된 ‘마을정원만들기 프로젝트’는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 제10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14]를 근거로 하며, 지원하는 정원 조성의 형태는 크게 커뮤니티정원(공동체 활동 거점공간)과 블록정원(주거지역)으로 구분된다. 커뮤니티정원은 일정 규모(100㎡ 이상)의 마을주민이 모여서 정원활동, 축제 등 공동체 활동이 가능한 정원이며, 블록정원은 커뮤니티정원과 연계하여 작은 자투리땅, 도로변, 주택가 등에 조성하는 점・선・면 단위의 정원이다.

[표 3-2] 경기도 ‘시민참여형 마을정원만들기 사업’ 추진체계
(출처: ‘시민참여형 마을정원만들기 프로젝트’ 공모 매뉴얼, 경기도, 2017, pp.1-4)

경기도	마을공동체	시군
✓ 기본방침 수립 ✓ 사업공모 및 선정 ✓ 사업비 교부(도→시군) ✓ 정원 전문가 컨설팅 운영 ✓ 사업 효과 분석, 사업계획 보완 ✓ 히스토리 북 제작, 홍보	✓ 마을공동체 조직, 운영 ✓ 사업공모서 작성, 제출 ✓ 사업계획 수립 운영(정원조성, 프로그램 운영) ✓ 지속가능한 마을정원만들기 수립 운영(마을정원 사후 유지관리, 정원문화 확산, 정원활용 마을축제 개최 등)	✓ 마을공동체 사업공모서를 기준으로 사업계획서 협의 작성 ✓ 예산 확보, 집행, 정산 ✓ 각종 행·재정 지원

사업의 진행방식은 마을공동체가 정원을 스스로 기획해 세부적인 조성계획을 세우고 사후 관리방안까지 수립하여 시행하는 등 사업 전반을 주관하도록 하며, 경기도와 시・군은 행정과 재정을 지원하는 형태이다. 이밖에도 가드닝

14) 경기도 정원문화산업 진흥 조례제10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는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으로 공동체 정원 조성 및 민간정원 개방, 정원문화에 대한 교육, 다양한 정원문화 사업을 통한 도민참여 활성화 등을 언급한다.

기초지식을 배우는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속적인 정원가꾸기 활동을 장려하는 등, 정원의 물리적 조성 및 가꾸기 활동 뿐만 아니라 정원 교육과 지역사회 기반의 문화활동을 함께 기획하도록 지원한다.

(2018~2020년 경기도 마을정원 조성사업 대상지 목록은 부록 참조)

▌'공공형' + '시민주도형' 마을정원만들기 사업

한편 2021년에는 마을정원 사업 3년차를 맞이하며 경기도는 마을정원의 공공성 확대 및 정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로 지속가능성을 도모하는 계획안을 발표하였다[15]. 조성하는 정원의 유형은 크게 공공형과 시민주도형으로 구분되며, 공공형 마을정원은 조성주체가 시·군으로, 지자체와 전문가가 조성하고 시·군 및 자원봉사 그룹이 사후관리를 하는 방식이다. 시민주도형 마을정원은 추진주체가 마을공동체, 지자체, 전문가이며 이들이 공동으로 기획하고 공동체 역량강화 및 가드닝 프로그램을 병행하도록 한다. 공공형 마을정원 조성은 지자체 마을정원을 조성하고 사후관리단계에 주민들을 참여시켜, 보다 다양한 계층의 정원 활용을 도모하고 지역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시도이다.

15) 사업계획안 관련 내용은 '2021년 경기도 마을정원 사업 대상지 공모계획'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표 3-3] 경기도 ‘마을정원만들기 사업’ 대상지(2021년)
(참고 : 마을정원만들기 프로젝트 스토리북, 경기도, 2021)

조성년도	유형	정원명	면적	주민공동체
2021	공공형	오목호수공원 마을정원	3,000㎡	-
		성남시 모두의 정원	3,000㎡	
		안산시 모두의 정원	1,400㎡	
		수줍은 분홍정원	950㎡	
		꿈꾸는 정원	3,500㎡	
		오산시 모두의 정원	3,100㎡	
	시민주도형	은이마을, 사는 게 꽃 같다	1,571㎡	은문고 마을정원만들기 추진협의체
		정감톡톡 동네돌봄 정원	3,620㎡	우리동네연구소 퍼즐
		긴등골 안이&중이 마을정원	1,500㎡	서평택발전협의회
		금빛수로 마을정원	3,000㎡	금빛누리시민연합회
		행복이 꽃피는 마을정원	3,380㎡	미루나무길마을 공동체
		너나들이 마을정원	2,000㎡	너나들이 마을 공동체
		계수나무골 마을정원	21,570㎡	계정2리 새마을회
		별바라기 정원	5,540㎡	상판리마을협의회

2. 행정안전부 마을공동체정원 조성사업

2016년부터 약 2년간 추진된 행정안전부 ‘마을공동체 정원사업’의 목적은 지역사회 내 방치되어 있는 광역·기초지자체 소유의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도시·지역의 경관 향상, 공동체정원 문화 확산을 통한 행복한 생활환경 조성, 그리고 지역의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16]. 사업은 1년 단위의 지원 형태를 띄며 조성할 정원의 규모를 1만㎡(3,025평)미만 또는 이상의 규모로 유형을 분류하여 각 3~7.5억원의 사업비를 책정하였다. 주요 시설은 크게 정원시설, 공동활용시설, 지원시설로 분류되며, 공동체 활동 강화를 위해 개인 가족텃밭과 꽃밭은 최소화하고 단체꽃밭 위주로 조성할 것을 안내하였다. 사업의 대상지는 시·도 및 시·군·구 소유의 미사용 공유지로, 거주지역 인근에 사용되지 않고 있는 유휴지 및 나대지 또는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부지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16) 사업의 추진내용은 행정안전부의 ‘2015년 공동체정원사업 공모지침’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그림 3-1] 행정안전부 '마을공동체 정원사업' 추진체계
(출처: 행정안전부 '마을공동체 정원사업' 공모 지침, 2015)

사업의 추진체계는 첫째, 전국 공모를 통해 주민조직(주민자치회, 마을만들기 주체, 새마을협의회 등)이 구성된 지역 중심으로 사업지역을 선정한다. 둘째, 주민·공동체 모임이 주도하여 사업을 발굴하여 제시하고, 지자체는 정부3.0 국민디자인단[17]을 구성·운영하며, 부지 등을 확보한다. 셋째, 행정안전부는 자문단 구성·운영 및 사업비를 지원하고 마을공동체 정원 성공모델을 보급하며, 농식품부는 작물 프로그램 및 종자(씨앗)를 지원, 산림청은 원예 재배 프로그램 및 묘목(원예)을 지원하여 공동 협력한다. 사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해서는 지자체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운영 공동체에 위탁 및 지도·감독하도록 하며, 공동체에 대한 운영·관리는 신청단체(마을기업, 단체, 협회 등)에서 시행한다. 운영 및 관리비용은 회원회비와 텃밭 또는 꽃밭의 분양금액으로 충당

17) "정부3.0 국민디자인단"이라 함은 의제설정, 정책결정, 집행, 평가 및 환류 등 정책과정 전반에 공무원, 국민, 그리고 서비스디자이너가 함께 참여하여 서비스디자인 방법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개발, 개선시켜 나가는 정책추진단을 말한다. 정부3.0 국민디자인단은 서비스디자이너, 공무원, 일반 국민,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8~15명 내외로 구성한다.(행정안전부, 2016, '정부 3.0 국민디자인단 운영지침', 행정자치부예규 제46호)

하도록 하였다.

국립수목원의 '2020 정원산업 요소 및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까지 행정안전부 마을공동체 정원사업으로 조성된 사례는 40개소이며, 그 중 2019년도 기준 유지관리 예산이 확인되는 대상지는 총 8개소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해당 사업기간 이후로는 다른 유지관리 사업의 예산에 일부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 자료수집에 한계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한편,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AURUM)의 정책사업 자료[18]에서 조사된 행정안전부의 마을공동체 정원사업 선정지역은 총 26개로 나타났다. 하지만 언론 자료를 종합해본 결과 약 3년간 조성된 마을공동체정원은 총 35개 지역으로, 확보한 자료들 간에 차이점이 존재한다. 현재 행정안전부 사업을 통해 조성된 공동체정원의 운영 및 관리 현황과 마을공동체 활동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또한 국립수목원(2020)의 유지관리 예산 조사 데이터를 참고해보면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동체정원은 사업이 진행된 대상지의 20% 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안전부 '마을공동체 정원사업' 대상지 목록은 부록 참조)

3. 산림청 공동체정원 조성사업

산림청은 2015년「수목원·정원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정원산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공동체정원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 마을·공동주택 또는 일정지역 주민들이 결성한 단체 등이 공동으로 조성·운영하는 정원'으로 정의하였다[19]. 관련 사업으로는 2018년도에 '녹색

18)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AURUM) 홈페이지 http://www.aurum.re.kr/Policy/PolicyOffice.aspx?pcode=B05
19) 산림청 홈페이지 참고
https://www.forest.go.kr/kfsweb/kfi/kfs/cms/cmsView.do?mn=NKFS_03_03_07&cmsId=FC_000875

자금 지원사업(공동체정원 조성)’을 추진하였으며, 그 목적은 녹색자금[20]을 활용한 공동체정원 조성을 통하여 공동체의식 회복과 생활환경 취약지역의 환경개선 추진 및 가든서포터즈[21] 구성을 통한 시민정원사와 정원교육이수자에 대한 신규 일자리 창출이다[22]. 사업신청 응모자격은 시·도 또는 시·군·구이며, 사업대상지는 사회복지시설, 생활환경 취약지로서 환경개선이 시급한 곳이나 도시재생을 위하여 필요한 국·공유지이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녹색자금 지원액은 총사업비의 70% 이하이며, 자부담이 총사업비의 30% 이상이어야 하는 지원조건이 주어진다. 대상지는 마을 등 지역공동체가 직접 발굴하거나, 국·공유지 중 정원조성이 필요한 지역을 지자체가 발굴, 또는 도시숲·공원 등 녹지공간과 산림을 녹색축으로 연결하는 장소 등을 대상지로 신청하도록 안내하였다. 이 밖에 참여 주민공동체와 조성 이후 운영관리 계획에 관한 구체적인 안내는 부재하였다.

[표 3-4] 산림청 ‘녹색자금 공모사업’ 선정 공동체정원 조성 대상지 (참고: 정원산업 요소 및 현황, 국립수목원, 2020; 녹색자금사업 평가대상, 한국산림복지진흥원, 2018)

선정년도	선정지역	정원명
2018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1853	봉명동 공동체정원
	강원 춘천시 동산면 국립춘천병원	국립춘천병원 공동체정원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부평리 공동체정원
	전남 고흥군 호형리	솔솔숲 공동체정원
2019	전남 나주시 나주초등학교	나주초등학교 공동체정원
	전남 나주시 금성원(아동복지시설)	금성원 공동체정원
	전남 곡성군 연반마을	연반 공동체정원
	전남 무안군 무안읍 물맞이공원	청춘 공동체정원

20) 산림청장은 산림환경을 보호하고 산림의 기능을 증진하며 해외산림자원을 조성하는 데에 드는 경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이하 “녹색자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산림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21) 가든서포터즈 : ‘시공사업자 1명 +시민정원사·정원교육이수자 등 5명 내외’로 참여·구성한 협의체로서 공동체정원을 직접 지도하며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체를 칭함.(‘「찾아가는 정원만들기」추진계획’, 산림청, 2018)

22) 사업의 추진내용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2018년 녹색자금 지원사업(공동체정원 조성) 공모 안내문’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2절. 커뮤니티가든 조성 및 운영 실태

국내의 행정주도 커뮤니티가든 사업의 배경 및 목적, 그리고 대상지 선정 기준은 대체적으로 유사하나, 대상지 범위와 정원의 형태, 정원 조성 규모에 따른 예산과 기간, 주요 참여주체, 그리고 사후 운영계획 등이 상이하다. 또한 구체적인 조성 및 운영단계에 들어서면서 지역의 정체성과 주민공동체의 특성, 참여주체의 다양화 및 지역네트워크 확장을 통해 커뮤니티가든 운영 양상은 점차 다르게 전개된다. 본 연구는 커뮤니티가든 조성 및 운영의 기본체계를 제공하는 주관부처별 사업추진 내용을 우선 파악함으로써 현재 조성이 완료되었거나 혹은 조성 중에 있는 커뮤니티가든의 지속가능성을 예측하고, 향후 보완점을 도출해 내는 데에 참고할 수 있다.

[표 3-5] 주관부처별 커뮤니티가든 조성사업 개요

<table>
<tr><th>주관부처</th><th colspan="2">경기도</th><th colspan="2">행정안전부</th><th>산림청(산림녹지진흥원)</th></tr>
<tr><td>사업명</td><td colspan="2">마을정원 만들기 사업
(2018~매년 지속 추진)</td><td colspan="2">마을공동체 정원사업
(2016~2019)</td><td>녹색자금 지원사업 – 공동체정원 조성사업
(2018~2019)</td></tr>
<tr><td>사업목적</td><td colspan="2">• 공동체 활성화, 공동체의 능동적인 생활환경 개선
• 정원의 사회적 기능 및 역할 증대
• 일자리 창출</td><td colspan="2">• 공동체의식 함양
• 도시경관 향상
• 정원문화를 통한 공동체 생활환경 개선</td><td>• 공동체의식 회복
• 생활환경취약지역 환경개선
• 신규 일자리 창출</td></tr>
<tr><td>사업기간</td><td colspan="2">10~15개월</td><td colspan="2">18~20개월</td><td>6개월</td></tr>
<tr><td rowspan="2">대상지 범위</td><td colspan="2">경기도</td><td colspan="2">전국구</td><td>전국구</td></tr>
<tr><td colspan="2">마을내 유휴지, 자투리땅, 리뉴얼이 필요한 노후공원 등</td><td colspan="2">10년 이상 안정적으로 활용 가능한 미사용 공유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부지 및 편입부지, 해당 관리기관과 협의되어 장기간 사용가능한 국유지</td><td>사회복지시설, 생활환경 취약지로서 환경개선이 시급한 곳이나 도시재생을 위하여 필요한 곳</td></tr>
<tr><td rowspan="4">정원 조성내용</td><td rowspan="3">시민주도형</td><td rowspan="2">커뮤니티정원
(면적 1,000㎡ 이상+블록정원 연계)</td><td>규모</td><td>3,000㎡(도심 1,000㎡)~2만㎡</td><td rowspan="4">한 지역당 4개소 이상(면적 제한 없음)</td></tr>
<tr><td>정원시설</td><td>단체텃밭.꽃밭/가족텃밭.꽃밭</td></tr>
<tr><td>한뼘정원</td><td>공동활용시설</td><td>관리실, 교육장, 작업장, 조리장, 어린이놀이시설 등</td></tr>
<tr><td colspan="2">공공형(3,000㎡ 이상)</td><td>지원시설</td><td>농기구보관창고, 온실, 원두막, 퇴비장, 주차장 등</td></tr>
<tr><td>정원 운영계획</td><td colspan="2">• 2차년도(활용 및 일자리): 정원가꾸기 교육 및 이용자 프로그램 운영
• 3차년도~지속적: 정원 가꾸기→공동체+자원봉사/프로그램 운영→시군
• 조성 후 지속적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사회적 정원효과 확대 및 일자리 창출(예: 실버프로그램, 어린이, 가드닝, 도시농업 등)</td><td colspan="2">• 도시재생뉴딜사업 연계
• 마을공간디자인단,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전문가 지원 확대
• 주민이 운영·관리 주체로 참여하여 지자체와 협약 등을 통해 지속적·안정적 정원관리방안 확보</td><td>• 지역공동체에 사후관리 매뉴얼 제공·교육
• 반려식물 갖기 캠페인 실시
• 정원 기업후원제도 마련
• 정원코디네이터 배치</td></tr>
<tr><td>정원 조성 지역 현황(개)</td><td colspan="2">2018년: 21개 / 2019년: 13개 / 2020년: 21개 / 2021년: 14개</td><td colspan="2">2015년: 8개 / 2016년: 10개 / 2017년: 13개</td><td>2018년: 4개 / 2019년: 4개</td></tr>
</table>

1. 커뮤니티가든의 조성내용 분석

국내 주요 커뮤니티가든 조성사업의 핵심 목적은 지역 주거환경 개선, 공동체의식 증진, 정원문화 확산을 통한 주민 삶의 질 제고, 그리고 지역일자리 창출에 있다. 이는 최근 증대된 커뮤니티가든의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가치에 대한 관심과 기대에 의한 것으로 보여지며, 상기 사업조사내용을 이 세 가지 관점에 맞춰 살펴보도록 한다.

▌환경적 측면

조성하는 정원의 면적은 대체적으로 1,000~3,000㎡ 규모로, 선정된 대상지별로 구체적인 규모와 사업기간, 지원 예산 등에 차이가 있다. 경기도는 마을 내 유휴지나 자투리땅, 또는 노후공원의 일부공간을 대상지로 선정하여 거점정원을 조성하고 주거환경 곳곳에 플랜트박스나 가로정원을 연계하여 주거환경 및 경관을 개선한다. 이는 주거단지 곳곳의 녹화 면적을 확대하여 환경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행정안전부는 도심 주거지에서 접근성이 우수하고 장기간 사용가능한 미사용 국공유지를 대상지로 하여, 거점이 되는 하나의 정원을 중심으로 정원시설을 조성하고, 그 외 활용 및 운영에 필요한 공동활용시설과 지원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방식이다. 이는 환경적 측면에서 도시의 부족한 공원녹지 확보와 방치된 유휴지를 생태적으로 개선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산림청(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정원의 면적 또는 규모보다 조성대상지에 중요성을 둔다. 대상지 선정기준은 사회복지시설, 생활환경 취약지로서 환경개선 또는 도시재생이 필요한 곳이며, 따라서 사업이 시행된 대상지도 주거환경 뿐만 아니라 복지시설, 학교시설, 병원시설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도시 취약계층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사회적 측면

공동체와 관련한 사회적 가치의 측면에서, 경기도 마을정원 조성사업은 본래 시민주도형 정원 조성사업으로 진행되어 참여주체인 마을공동체를 대상으로 가드닝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하였다. 최근에는 3년차 이후로 정원의 공공성 확대 및 주민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자체 주도의 공공형 정원 조성을 함께 시행하고 있다. 큰 맥락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가든을 조성하는 것을 동일하나, 그 과정에 있어 지자체와 전문가 집단의 개입이 확대 되었으며, 특히 사후 단계에서 시·군 주도의 공공형 마을정원과 주민공동체 주도의 마을정원 간에 다르게 나타날 운영양상은 커뮤니티가든은 기반으로 한 공동체활동 범위와 활성화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행정안전부 사업의 경우 지자체의 홍보에 따라 주민들이 정원가꾸기에 관심을 갖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하며, 제공되는 정원교육을 수료한 뒤 지자체의 안내에 따라 관련 전문가 집단과 협업하며 정원을 조성하도록 한다. 사업 시행에 따라 지자체에서 정원 조성을 위한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는 지원하나, 공동체의 운영 및 관리비용은 각 회원회비, 텃밭·꽃밭 분양금액으로 충당해야하고, 정원공동체 활성화 및 자립을 위한 재원은 부재한다.

마지막 산림청 주관 사업의 경우는 일반 주민공동체 뿐만 아니라 특수성을 갖고 결성된 학생공동체, 복지공동체, 기관공동체 등이 정원 조성에 참여하고 이후 운영관리의 주체로 활동하는 것이 특징이다.

▌경제적 측면

경기도의 마을정원 사업은 정원 조성에 앞서 참여주민을 대상으로 정원교육을 시행하며, 이를 통해 주민들이 정원가꾸기 및 교육 전문가로서 거듭나 마을정원을 직접 조성 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도 한다. 또한 최근 공공형 마을정원 조성은 공공일자리 확대를 위한 목적성으로 기획되었기에 향후 이에

대한 성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의 경우 커뮤니티가든을 통한 경제적 가치 창출을 도모하는 사업계획이 가장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업 추진을 통해 기대하는 커뮤니티가든의 기능은 주로 정원교육을 통한 주민역량 강화, 지역사회 내 양질의 오픈스페이스 및 도시텃밭 제공, 자원봉사활동의 장 확대 등에 그친다.

마지막으로 산림청의 공동체정원 사업은 조성 단계에서 시민정원사 또는 정원교육이수자 등으로 구성된 가든서포터즈(관련분야 사업체 집단)를 지원하여 주민들로 하여금 전문성을 보완하고, 해당 집단은 이를 통해 일자리를 제공받는 구조로 운영되도록 기획하였다. 다만, 가든서포터즈는 지역기반의 전문가 지원조직이 아닌 지자체에서 정원분야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육성된 조직으로, 대상지기반의 지역일자리 창출 또는 커뮤니티가든 운영주체 확보 및 자생력 증진과는 무관하다는 아쉬움이 있다.

2. 커뮤니티가든의 운영계획 분석

지속가능한 커뮤니티가든 운영에 있어 주민들이 정원을 계획하는 단계와 조성 이후 운영·관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참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초기 계획단계에서는 공동체정원의 필요성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함께 공감하고, 공통의 가치와 목표를 설정하여 협의된 방향성을 가지고 공동체정원 운영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운영·관리단계에서는 정원 조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주민공동체의 조직적 재구성을 통해 앞으로의 정원 운영방안을 구체화하고, 보다 체계적인 민관협치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공동체정원의 지속가능성에 중요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반면, 현재 국내의 도시 커뮤니티가든 지원사업들은 이러한 운영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없이 물리적 조성에 대한 절차와 행정적 협력체계에 관한 내용이 지배적이고, 사후 운영·관리 계획이 구체화 되어 있지 않은 것에 한계점이 있다.

경기도는 지자체의 주도로 마을정원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정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조성에 참여했던 주민공동체와 자원봉사자, 일반주민들의 이용경험을 확대하고, 주민일자리 창출을 통한 정원 유지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행정안전부의 경우 공동체정원 조성사업 이전에 주민참여 및 역량강화를 위한 사전단계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 및 정원활동에 관한 홍보를 진행하며, 이후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는 사업 숙성방안으로서 주민협의체, 활동가, 지자체간 반복적인 논의 활동을 거치는 과정을 마련한다. 그러나 조성 이후 운영·관리단계에 해당하는 내용은 도시재생뉴딜사업 연계를 통해 해당 사업에 참여한 주민협의체를 활용하여 그들의 지역문제 해결역량을 강화하고 정원 운영과정에도 접목하는 방안과 도시재생 지원센터와 같은 전문가 지원방안에 그친다.

산림청은 사후관리방안으로 운영주체인 지역공동체에게 정원관리를 위한 실

무적인 매뉴얼을 제공·교육하는 행정주도의 계획과, 정원 내 식물을 공동체 구성원의 반려식물로 지정하여 주인의식을 갖고 함께 정원을 관리하는 방안, 그리고 인근 지역에 소재한 기업이나 단체가 정원을 후원하여 관리하는 방안과 같은 다소 추상적인 계획을 언급하였다.

종합하면, 세 가지 사업 모두 커뮤니티가든의 사후 운영관리계획에 방안을 제안하고 있으나, 주민참여방식의 정원 조성사업이 종료된 이후로도 공동체를 중심으로 정원의 운영을 도모하기보다, 지자체가 주도권을 갖고 각종 사업과 연계하거나 프로그램 및 행사 운영 등 성과 위주의 계획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커뮤니티가든의 핵심가치인 공동체의식 증진과 주민 역량강화를 통한 자생력 확보 등을 저해하는 방향의 운영방안으로 판단된다. 경기도를 제외한 행안부와 산림청 주관의 공동체정원 사업은 현재 공모를 중단하였으며, 그간 성과가 나타난 커뮤니티가든에 대한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정원사업을 공모하여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끊임없이 양산되고 있는 전국의 다양한 커뮤니티가든들이 과연 사후 지속성을 갖고 주민주도의 핵심적 가치를 통해 지역사회에 역할을 하는지에 관해서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이다.

▌소결

국내 주민참여형 커뮤니티가든 사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전체 사업추진 단계 중에서 기획 및 조성단계의 계획내용이 가장 풍부하다. 이는 국내 공동체정원 관련 연구 동향이 주로 정원의 조성에 관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조인숙, 최정민, 2019), 커뮤니티가든 관련 가이드라인 또한 정원 조성 및 관리의 물리적 측면의 안내가 대부분(농촌진흥청, 2019)인 것과 관계가 있다. 구체정인 운영계획의 부재는 그간 커뮤니티가든의 수명이 조성사업의 실행에 따라 결정되고, 이후로는 멸실되는 결과로 나타났다. 특히 주민참여형 사업의 명분으로 지역공동체 참여를 도모하고 있으나, 정원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로서의 특성화된 지원방안과 사후 활동 가이드라인은 매우 부족하다. 이는 그간 진행

되었던 ‘담장 허물기’, ‘한평 공원 만들기’ 등 소규모 동네 재생사업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행정절차를 위해 주민이 동원되는 형식적 참여에 그치게 되면서 주민참여가 사업기간에만 이어진다는 지속성에 대한 문제(여혜진 외 2, 2015)를 반복할 우려가 있다. 종합하면, 커뮤니티가든 지원사업은 기획 및 조성단계에서 사후 운영·관리 방안을 함께 고려하여 커뮤니티가든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무엇보다도 정원의 핵심주체인 주민공동체의 자생력을 어떻게 강화시킬지에 관한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국내 커뮤니티가든 조성사업을 계기로 일부 주민공동체가 사회적협동조합을 결성하여 정원 운영의 지속성을 모색하는 사례가 등장하였다. 정원공동체의 조직화 양상에 대한 핵심은 커뮤니티가든을 지역사회의 공공자산으로 오래 유지하고, 그 안에서 주민들이 삶의 질 향상, 정주의식 증진, 역량 강화 등 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개편을 시도하였는데, 이에 관한 구체적 계기와 성과에 대해서도 주목해볼 가치가 있을 것이다.

3절. 국내 커뮤니티가든 연구대상 선정

1. 대상지 선정기준

본 연구의 대상지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커뮤니티가든 조성사업을 통해 공적공간을 활용하거나 사적공간 일부를 지역사회에 개방하여 공동체활동을 위한 정원을 조성한 곳, 둘째, 해당 정원을 기반으로 한 시민단체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주민조직이 활동하고 있는 곳, 셋째, 커뮤니티가든의 유지기간이 최소 3년 이상 유지되어 현재까지 주민주도적 정원활동이 이루

어지고 있는 곳을 살펴보았다.

(1) 행정안전부 ‘마을공동체 정원조성사업’의 대상지 - 두레정원

연구대상지는 2015년 행정안전부의 마을공동체 정원조성사업으로 조성된 사례지 중에서 유일하게 주민운영 공동체정원으로 유지되어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5동의 ‘두레정원’으로 선정하였다. 두레정원은 행정안전부와 인천시, 미추홀구가 지원하여 아파트 주거단지 사이의 약 5,600평 규모의 완충녹지를 활용한 공동체정원이다. 정원이 조성되고 약 2년간 마을정원사로 이루어진 주민공동체가 지자체와 함께 두레정원을 주도적으로 운영해왔으며, 2019년에 정원 및 생태 교육서비스업을 중점으로 한 ‘두레정원 사회적협동조합’을 조직해 현재까지 실질적인 공동체정원 운영 주체로 활동하고 있다.

(2) 대상지의 주민 운영주체 - ‘두레정원 사회적협동조합’

두레정원의 운영주체는 2018년 ‘대한민국 자치박람회’에서 행정안전부 지정 공동체 우수사례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2021년에는 인천시 ‘민관협치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이는 두레정원의 주민공동체가 ‘두레정원 사회적협동조합’을 조직하고, 또한 두레정원이 인천 지역 최초 도시농업공원으로 지정되는 등 민-관 협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이다[23].

23) 인천시 민관협치 우수사례대회 ’최우수・장려상’ 겹경사, 경인일보, https://www.wikitree.co.kr/articles/380067 참고 (검색일자: 2022.05.01.)

제4장 두레정원과 ‘두레정원 사회적협동조합’의 형성 및 전개과정

1절. 사회적협동조합의 기반으로서 두레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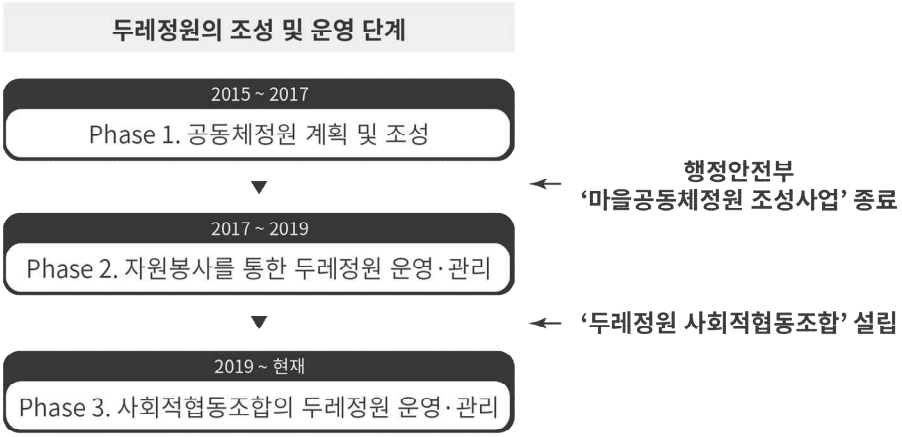
인천시 용현동 두레정원은 2015년 행정안전부의 ‘마을공동체 정원조성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체정원으로, 아파트단지 사이에 방치된 완충녹지 약 5,600평을 주민들을 위한 정원으로 조성한 것이다. 지자체가 주최한 정원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주민들은 마을정원사 공동체로 결성되었으며, 사업기간 이후로도 중간지원조직과 협업하여 정원의 자주적 관리를 유지하던 와중에 2019년 ‘두레정원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였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했던 첫 번째 공동체정원 조성사업 9개 대상지 중 유일하게 커뮤니티가든의 형태로 유지·관리가 되고 있는 두레정원은,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여가공간이자 커뮤니티공간, 그리고 공동체 활동의 장으로서 역할하고 있다. 한편, 2020년에 시정 지시에 따라 도시농업공원으로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어 현재 주민주도적 정원 운영에 있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표 4-1] 용현동 두레정원 일반 현황

구분	내용	
위치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 155	
대상지 면적	18,540㎡	
토지용도	자연녹지지역 , 공원	
인근 아파트단지 특성	신창아파트	2004년 건설 / 821세대
	윤성아파트	1993년 건설 / 368세대
특이사항	2020.07 완충녹지→용현도시농업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	

▌두레정원 전개과정의 개요

두레정원의 조성 및 운영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2015년에서 2017년까지의 마을공동체정원 조성사업 사업추진단계와, 두 번째는 정원 조성사업의 종료와 동시에 두레정원이 공식적으로 개원한 2017년 초부터 약 2년간 지자체와 마을정원사 공동체가 협력한 정원 운영·관리단계이다. 세 번째는 2019년 마을정원사 공동체가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한 이후로 지자체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주체들과 협력하여 주민주도적으로 정원을 운영해 온 현재까지의 단계이다. 각 시기의 단계별 시기의 구분 기준은 두레정원에 대한 주요 협력체계의 변화가 큰 시점으로 하였으며, 그 원인으로는 크게 공동체정원 조성사업의 종료와 두레정원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이 있다.



[그림 4-1] 용현동 두레정원의 조성 및 운영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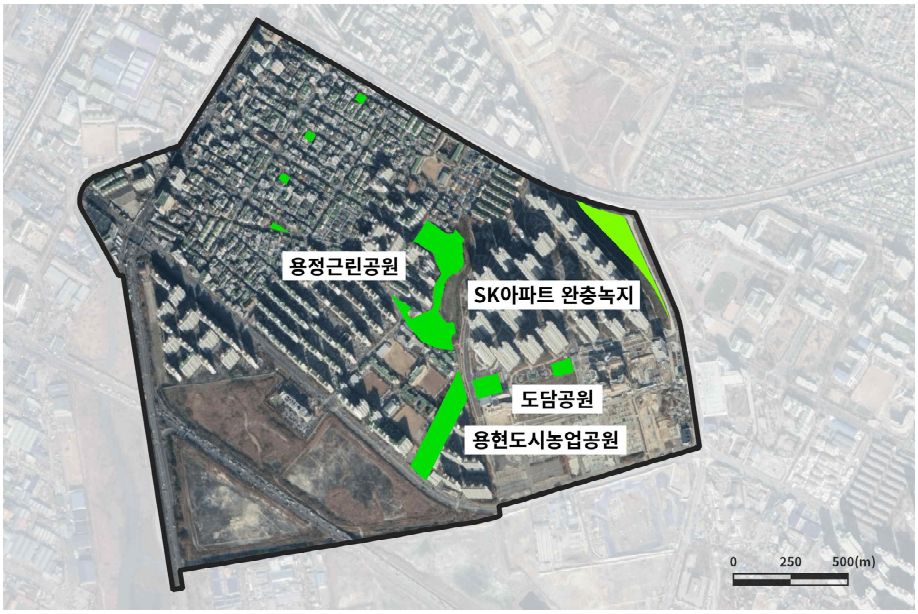
1. 두레정원 일반 현황

▌공간적 현황

두레정원이 위치한 인천광역시 용현5동은 서해안 인접 매립지역으로, 주택시범지역단지로 조성된 주거지역이다. 두레정원의 반경 1km 이내에는 대단지 아파트 및 오피스텔이 밀집해 있으며, 동쪽과 서쪽 방향으로 윤성아파트와 신창아파트가 매우 인접해 있다. 특히 2016년에 준공된 SK스카이뷰 아파트는 약 4000세대 규모의 대규모 아파트단지로, 이에 따라 이주민이 대거 유입되는 변화가 있었다. 한편, 향후 3년 이내로 약 1,500세대의 신규 대단지 아파트가 추가로 준공될 예정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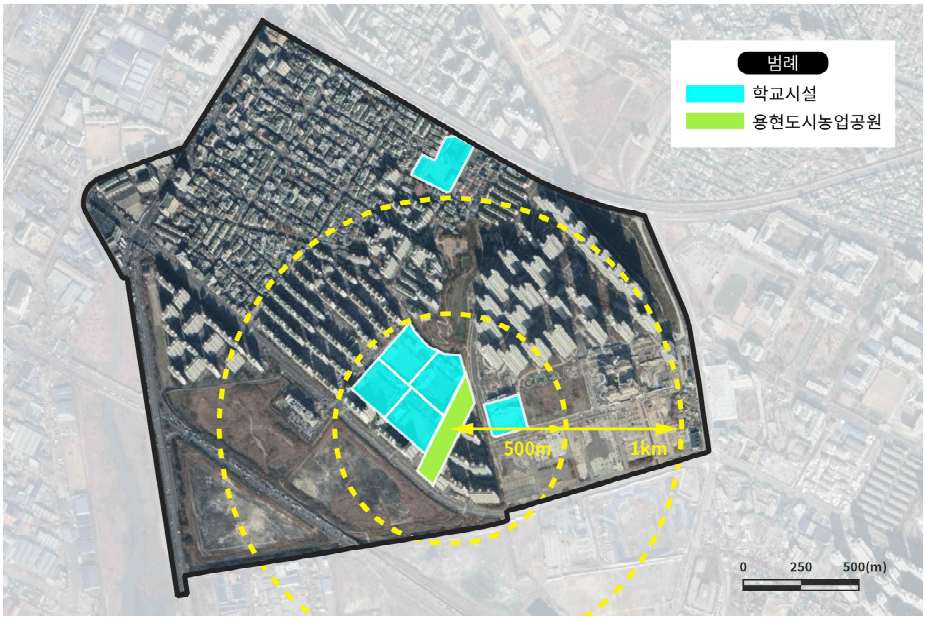
[그림 4-2] 두레정원 반경 1km 이내 아파트 및 오피스텔(300세대 이상) 현황

용현5동에는 현재 2개의 근린공원과, 5개의 어린이공원, 그리고 한 개의 도시농업공원이 조성되어있으며, 3,000평 이상의 완충녹지가 한 곳이 있으며, 현재 용현동 제2의 공동체정원인 '자연숲 놀이정원'이 조성되어있다. 근린공원은 용정근린공원과 도담공원이며, 어린이공원은 새싹, 보람, 낙섬, 해님, 다솜 어린이공원이 있다. 용현도시농업공원은 본래 완충녹지로, 2016년에 공동체정원인 '두레정원'이 조성되고, 2020년에는 도시관리계획상 농업공원로 변경되었다.



[그림 4-3] 용현5동 완충녹지 및 공원시설 현황

용현5동에는 총 6개의 초·중·고등학교가 있으며, 그 중 5개가 두레정원의 반경 500m 이내에 위치하고 있다. 정원과 바로 인접하여 인항고등학교와 용현남초등학교가 나란히 위치해 있으며, 그 옆으로 용현중학교와 용현여자중학교가 바로 접해있다. 또한 두레정원과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인천용학초등학교가 가까이 자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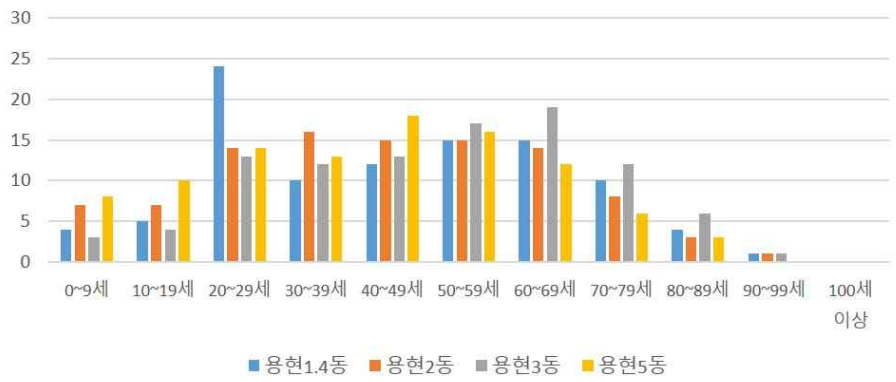
[그림 4-4] 용현5동 학교시설 현황

▌인문 사회적 현황

용현5동에는 현재 총 47,131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미추홀구의 21개 행정동 중에서는 가장 많은 인구수 및 세대수를 보이고 인구밀도 또한 네 번째로 높다. 또한 인천시 전체 및 미추홀구와 비교했을 때 세대당 인구수가 많다. 또한 2021년 기준 인구 평균연령은 39.88세로 나타났으며, 특히 0~9세와 10~19세, 그리고 40~49세의 인구비율이 가장 높다.

[표 4-2] 2022년 3월 인구 현황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2022.3 기준)

구분	총 거주자수	세대수	세대당 인구	남자인구	여자인구	남녀비율
인천시	2,932,394	1,291,045	2.27	1,466,999	1,465,395	1.00
미추홀구	403,087	191,103	2.11	202,745	200,342	1.01
용현5동	47,131	19,939	2.36	23,344	23,787	0.98



[그림 4-5] 용현동 2021년 연령별 인구비율 현황
(단위: 명 /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2. 두레정원 조성 배경 및 과정

(1) 두레정원의 조성 배경

▌공장 이전 등 주변 여건 변화에 따른 완충녹지의 공원화 계획

용현녹지는 1975년 완충녹지 지정 이후 공장 이전 등 주변 여건 변화에 따라 오랜기간 미조성되었다. 이에 지자체는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건설되고 이주민이 대거 유입됨에 따라 이러한 용현녹지를 개인 소유주들로부터 매입하여 공원을 조성하고자 계획을 구상해왔다. 또한 이를 용정공원과 용현·학익 2-1블록을 연계하여 녹지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도 있었으나, 인천광역시 및 지자체의 예산 부족과 토지 소유권 이전 문제 등으로 주민편의공간 조성이 지연되어 왔다[24].

▌방치된 완충녹지로 인한 지역문제 해결

인근 주민들은 각 토지주들에게 땅을 분양받아 방치된 녹지공간인 용현녹지에 약 200개소의 개인텃밭을 조성하여 활용하였는데, 인접한 아파트의 거주민들은 이에 대해 큰 불편함을 겪었다. 무질서한 경작에 따른 해충과 퇴비 발생, 가림그물막과 비닐쓰레기 등의 무단투기 문제까지 심화되면서 악취가 발생하고 토양이 오염되었다. 용현녹지는 결국 우범지역으로 변모하여 주민들의 많은 민원을 야기했다.

이에 따라 구청은 2014년부터 연부매입계약을 맺고 해당 부지에 대한 건전한 활용방안을 모색하였으며, 2015년에는 미추홀구 마을협력센터가 주도하여 지역 리더들과 주민, 용현5동 행정복지센터의 의견을 수렴해 주민 녹지쉼터 조성을 추진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의 마을공동체정원 지원사업

24) 공동체정원 조성사업 추진배경의 내용은 '인천광역시 공동체정원 사업계획서(인천광역시, 2015)'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출처: 미추홀구 마을협력센터)

에 지원・선정된 것이다[25].

[그림 4-6] 과거 용현녹지의 무질서한 개인텃밭(2016) (출처: 미추홀구 마을협력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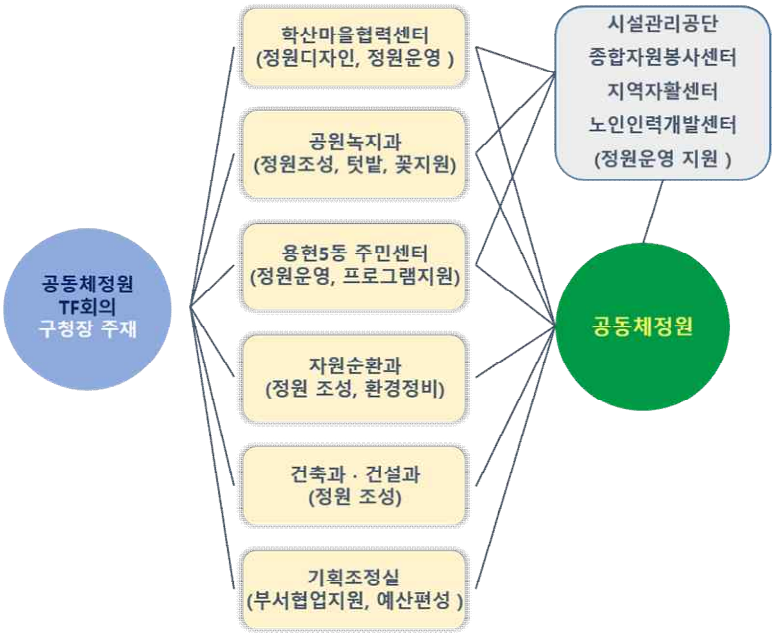
[그림 4-7] 과거 용현녹지의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2016)
(출처: 용현녹지 공동체정원 온라인 카페 https://cafe.daum.net/co-garden/cP1R/2)

25) 인천 남구, 2015년 공동체정원 공모사업 최종 선정, 일간경기, http://www.1g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991 참고 (검색일자: 2022.04.13.)

(2) 두레정원의 조성 과정

▌공동체정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지자체의 행정 협력

용현녹지가 2015년 공동체정원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구청장 주재의 공동체정원 TF회의(행정협력회의)가 진행되었다. 회의는 총 10회에 걸쳐 개최되었으며, 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적 사안과 예산 검토를 진행하고 각 부서별 지원 방안이 논의되었다.



[그림 4-8] 공동체정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협력체계
(출처: 미추홀구 마을협력센터)

구청 내 시민공동체과 소속의 마을협력센터는 지역의 마을공동체를 지원하는 부서로, 공동체정원 조성사업의 전반적인 추진체계를 총괄하고, 주민참여형 정원디자인 및 운영에 필요한 워크숍과 정원교육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였다. 공원녹지과는 용현녹지의 분산된 토지 소유주와 텃밭을 운영하던 주민들을 각

각 설득하여 부지를 매입하였으며, 시공 단계에서는 꽃과 수목 등 정원 조성에 필요한 물질적 지원을 하였다. 용현5동 행정복지센터는 정원 조성작업에 참여할 주민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한 정원교육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건축과와 건설과, 그리고 기획조정실은 정원 조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지원하였다. 공동체정원의 본격적인 시공에 따라 시설관리공단과 종합자원봉사센터 등은 자원봉사자들을 연계하였다.

▌주민참여형 정원디자인을 위한 국민디자인단 구성 및 워크숍 진행

사업과정을 주도한 마을협력센터는 행정안전부 사업추진체계에 따라 주민참여형 정원디자인을 위한 국민디자인단[26]을 구성하였다. '용현녹지 공동체정원 국민디자인단'은 인접한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자, 지역주민, 용현5동 주민자치위원회, 용현5동 통장, 그리고 지역 유관단체 및 전문가 등 총 30명으로 이루어져 사업 추진을 위한 하나의 의견그룹으로서 참여하였다.

[표 4-3] 용현녹지 공동체정원 국민디자인단 구성 현황 (출처: 미추홀구 마을협력센터)

분야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	지역 주민	주민자치위원회	통장	지역 유관단체 및 전문가
	인근아파트	상인, 직장인, 학부모 등	용현5동	용현5동	환경, 생협, 조경, 공동체 등
인원(명)	9	8	4	4	5

마을협력센터는 국민디자인단을 중심으로 주민워크숍을 진행함으로써 행정의 일방적 민원해결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목적으로 기획된 주민참여 디자인워크숍 프로그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6) 국민디자인단은 행정안전부가 도입한 거버넌스형 주민회의 운영 사업 방식으로, 정책과정 전반에 정책 공급자인 공무원, 정책수요자인 국민, 그리고 서비스디자이너가 함께 참여하여 서비스디자인 기법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개발, 개선시켜 나가는 정책 워킹그룹을 의미한다. (참고: 정부 3.0 국민디자인단 매뉴얼, 행정안전부, 2016)

[표 4-4] 공동체정원 주민참여 디자인워크숍 과정(2016) (출처: 미추홀구 마을협력센터)

오리엔테이션	관계형성	동네한바퀴	정원 디자인 1	정원 디자인 2	정원 디자인 3 - 5
1월 14일(목) 19:00-21:00	1월 26일(화) 19:00-21:00	2월 23일(화) 14:00-16:00	3월 3일(목) 19:00-21:00	3월 17일(목) 19:00-21:00	4월 19일 5월 2일, 13일
• 공동체정원 의미 • 공동체정원 방향	• 자기소개 • 생각나누기	• 대상지, 주변시설, 관계 파악 • 정원지도 만들기	• 전체 부지 디자인 • 용도별 디자인 • 명칭, 미래상찾기	• 1차, 2차 디자인(안) 검토 • 용도별 디자인	• 3, 4차 디자인(안) 검토 • 디자인 최종안 확정

[그림 4-9] 주민참여 디자인워크숍(2016) (출처: 미추홀구 마을협력센터)

약 6개월간 8회에 걸친 디자인워크숍을 통해 주민들은 용현녹지의 현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였다. 특히 녹지연계 산책로, 복합생태 녹지공간, 꽃길과 쉼터와 같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녹지공간에 대한 요구가 가장 컸다. 한편 체육시설이나 문화센터 건축을 희망하는 의견도 존재하였으나, 대상지는 용도지역상 완충녹지로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건물을 신축할 수 없어 가능한 조건 내에서 정원을 계획해야만 했다.

최종적으로 도출된 용현녹지 공동체정원의 디자인 방향은 첫째, 가족 또는 이웃간의 만남과 여가활동을 위한 디자인, 둘째, 산책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운동, 배움, 체험)이 가능한 공간, 마지막으로, 경작공간을 최소화하고 화단(꽃, 나무, 유실수)을 중점적으로 가꾸어나가는 것이다[27].

약 6개월에 걸친 용현녹지 마을공동체정원 주민워크숍을 통해 구상한 공동

27) 용현녹지 활용방안에 대한 주민의견 기초조사와 공동체정원 디자인 방향성 결정 내용은 용현녹지 공동체정원 주민디자인단의 1, 2차 회의내용을 참고하였다. (출처: 미추홀구 마을협력센터)

체정원의 기본계획안은 [그림 4-10]과 같다. 여건상 건물은 화장실과 관리동으로 최소화 하였으며, 크게 단체정원, 가족정원, 다목적광장, 생태연못, 솔향기원, 체력단련장, 야외쉼터 등의 정원시설이 계획되었다.

[그림 4-10] 용현녹지 공동체정원 조성사업 기본계획안 (출처: 미추홀구 마을협력센터)

▌공동체정원 조성작업 참여자 모집을 위한 정원교육 프로그램 운영

공동체정원 국민디자인단이 정원에 대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공사 준비에 들어갈 무렵, 마을협력센터는 '마을 숲 정원교실'이라는 주민 대상 정원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정원 조성작업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주민들을 모집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마을정원사를 양성하여 공동체정원에 대한 주민 참여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주민주도적 관리·운영을 위한 인적자원을 마련하고자 계획하였다. 정원교육을 전담한 중간지원조직은 지역 내 생태·환경 분야 비영리단체(가톨릭환경연대)로, 지자체에서 전반적인 교육과정을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식이었다. '마을 숲 정원교실'은 가드너의 개별 공간을 위한 실내 가드닝 과정과 공동체정원에 조성될 실외 가드닝 복합과정[28]으로, 총 10회에 걸쳐 무료로 진행되었다. 1기 교육과정에서는 인근 아파트 주민

들을 우선으로 모집하였으며, 이후에는 거주 범위를 넓혀 모집하였다. 약 40명의 주민들이 1기 과정을 수강하여 후반 실습단계에서는 공동체정원을 직접 조성하는데에 참여하였다.

[표 4-5] ‘마을 숲 정원교실’ 교육과정 (출처: 두레정원 사회적협동조합)

	이론	실기
1주차	오리엔테이션, 마을정원사의 역할	-
2주차	정원의 이해, 세계의 정원	실내식물 분갈이
3주차	식물학 기초 <분류와 번식>	종자번식, 영양번식
4주차	실내정원, 공기정화 식물	디시가든 만들기
5주차	정원의 빛, 물, 온도, 흙	테라리움 만들기
6주차	친환경 퇴비지야기 <지렁이>	-
7주차	화단 조성과 관리 (병충해)	토피어리 정원
8주차	우수 정원여행	사례지 견학
9주차	정원계획 <설계도, 스케치>	조별 설계
10주차	정원시공 및 수료	정원 시공

[그림 4-11] ‘마을 숲 정원교실’ 강의 및 탐방 (출처: 미추홀구 마을협력센터)

28) 남구, 용현녹지공동체 정원 ‘마을 숲 가드너’ 모집, 인천in뉴스, http://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3406 참고 (검색일자: 2022.04.13.)

▌마을정원사 주민공동체 형성

‘마을 숲 정원교실’의 큰 특징은 각 기수별 교육과정이 종료되면 함께한 수료생들이 동아리를 형성해 정원활동을 이어나가도록 운영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이 공동체정원에서 봉사활동을 30시간 이상 이행할 시에는 ‘두레정원 마을정원사’로 위촉되었다. 마을협력센터는 정원 조성사업이 종료된 2016년 이후로도 약 2년간 ‘마을 숲 정원교실’을 운영하여 공동체정원에 대한 주민 참여를 확산시키고, 새로운 마을정원사를 추가 양성하였다. ‘마을 숲 동아리’의 경우 최초에 형성된 1기 동아리 멤버들을 기반으로 하여 2~4기 동아리의 주민들이 새롭게 합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며, 결과적으로는 두레정원을 중심으로 하나의 마을정원사 공동체가 조직되었다. 약 2년간 총 67명의 지역주민이 정원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하였으며, 그 중 34명이 마을정원사로 위촉되었다.

[그림 4-12] ‘마을 숲 정원교실’ 및 동아리 운영체계 (출처: 미추홀구 마을협력센터)

[그림 4-13] ‘마을 숲 정원교실’ 수료식 및 마을정원사 위촉식(2017)
(출처: 두레정원 사회적협동조합)

▌용현녹지 공동체정원 조성작업

공동체정원 조성작업은 약 6개월이 소요되었다. 마을협력센터는 과정 전반에 걸쳐 주민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지자체 부서와 조례를 제정하는 등 공동체정원 운영방안을 협의하였다. 공원녹지과는 최종계획안에 따라 공동체정원의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마을 숲 정원교실' 1기 수강생들이 현장에서 함께 기반 공사, 수목 및 화초 식재에 참여하는 과정을 지원하였다.

[그림 4-14] 마을정원사와 지역 청소년들의 정원 조성작업 (출처 : 미추홀구 마을협력센터)

용현녹지 공동체정원은 조성과정에서 난항을 겪기도 하였는데, 바로 훼손된 토양 상태 때문이었다. 대상지의 경우 이전부터 무분별한 경작과 산업 및 생활쓰레기 무단 투기행위로 토양이 크게 오염되어 있었기에 정원을 조성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았다.

> **여기에 있는 땅을 파면 콘크리트 같은 생활 쓰레기부터 폐자재까지 엄청 나왔어요.** 땅이 너무 안 좋은 상태여서 삽도 안 들어가고 호미도 안 들어가고. 그래서 이 땅에다가는 도저히 뭘 할 수가 없겠다…. [두레정원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A]

일반적으로 공동체정원에 계획된 텃밭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쓰레기를 제거하는 것 뿐만 아니라 토양 오염에도 주의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선 토양검사가 권장되기도 한다[29]. 용현녹지에는 무단 투기된 쓰레기가 토양 깊이 매몰되

29) 농촌진흥청, '공동체정원 디자인 가이드라인', pp.28-29. 참고

어 있었기에 텃밭을 조성할 부지에 틀을 만들어 새로 흙을 붓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마침 인근 지역의 재개발사업이 진행중에 있어 그곳의 흙을 운반하여 토질을 개선하는데 활용하였다.

[그림 4-15] 용현녹지 공동체정원 토질 개선 작업 (출처: 미추홀구 마을협력센터)

▌용현녹지 공동체정원 개원 및 마을축제

용현녹지 공동체정원 조성사업에는 최종적으로 총 5억2천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숲, 꽃밭, 광장, 단체정원(원형정원), 텃밭정원 등 생태환경 위주로 정원시설 및 공동활용시설이 설치되었다.

[그림 4-16] 두레정원의 원형정원과 도시텃밭 전경 (출처: 두레정원 사회적협동조합)

[표 4-6] 용현녹지 공동체정원 조성 현황(2020) (출처: 미추홀구 마을협력센터)

	정원시설	조성규모
1	함께하는 숲	6,000㎡
2	꽃밭	1,000㎡
3	광장	1,000㎡
4	텃밭정원	500㎡
5	단체정원	500㎡
6	주차장	165㎡
7	관개용수시설(빗물저장고 및 수동펌프)	2개소(8ton 규모)
8	파고라 등 주민쉼터	10개소
전체		18,540㎡(건물 120㎡ 포함)

2016년 10월, 용현녹지 공동체정원에서는 개원식과 이를 기념하는 마을축제가 열려 700여명이 참가하였다. 지역 주민들은 정원을 둘러보며 함께 행사를 기념하고 다양한 체험 및 놀이부스와 먹거리 장터, 음악공연 등을 즐겼다. 또한 용현녹지 공동체정원의 새로운 이름을 현장 투표로 공모하기도 하였는데, 이 때 '두레정원'이 가장 많이 득표하여 최종 이름으로 선정되었다.

[그림 4-17] 용현녹지 공동체정원 개원식 및 마을축제 프로그램
(출처: 미추홀구 마을협력센터)

3. 두레정원의 운영 양상

(1) 두레정원의 운영 및 협력체계

▌지자체 관련 부서의 행정적 지원

두레정원은 크게 마을정원사 주민공동체와 지자체의 마을협력센터(시민공동체과), 공원녹지과의 협력관계를 통해 운영되었다. 마을협력센터는 중간지원조직(가톨릭환경연대)를 연계한 정원교육 프로그램인 '마을 숲 정원교실'과 공동체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마을정원사 공동체를 지원하였으며, 정원을 기반으로 한 시범사업과 다양한 주민프로그램을 주관하였다. 공원녹지과는 용현녹지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 담당 주체로서 두레정원의 시설 관리와 필요한 자재나 수목 및 화초 등 물질적 자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정원가꾸기 작업에 필요한 용역과 자원봉사자를 연계하였다.

▌마을정원사 공동체의 자발적인 참여와 봉사

2016년에 정원이 준공되고 행정안전부 지원사업이 마무리되면서 두레정원의 운영 및 관리는 관할 지자체와 마을정원사 공동체의 몫이 되었다. 하지만 사후에도 정원교육 프로그램이 약 2년간 운영되면서 새로운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두레정원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었다. 각 기수별 수료생들이 동아리를 결성하고 마을정원사로 임명받기를 반복하면서, 두레정원을 중심으로 주민공동체의 규모가 성장하였다.

두레정원 마을정원사들은 자발적으로 정원을 관리하고 정원의 관리동 공간을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정원프로그램을 주관해나갔다.

마을정원사 공동체의 정원활동은 모두 순수 자원봉사로 진행되었다. 특히 가장 높은 참여도를 보인 '마을 숲 정원교실'의 1기 수강생들은 약 4개월의 기간동안 정원디자인 및 시공과정에서 협동함으로써 공동체의식과 깊은 유대

감을 형성했던 것이 원동력이 되었다. 또한 정원 가꾸기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과 열정, 그리고 자신이 지역과 이웃을 위한 공공적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인식과 그 안에서 경험하는 자부심이 마을정원사들로 하여금 꾸준히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되었다.

> 처음부터 정원이 이렇게 예쁘지 않았죠. 계속 관리를 해서 **꽃이 예쁘게 커나가는 걸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다.' 라는 자부심이 생겼어요.** 또 일단 꽃을 좋아해서 모인 사람들이었고, 어차피 내가 집에서 가꾸는 거 **여기 나가서 조금 봉사하고 예쁘게 가꿔 놓으면 산책하는 주민들이 다 좋아하시니까. 그 보람으로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A)

(2) 공동체 자립성 강화 워크숍과 주민운영 시범사업

마을협력센터는 마을정원사 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공동체정원이 활성화되는 것을 보며 '2018 두레정원 활성화 계획(안)'을 구상하였다. 이전까지의 두레정원 운영 및 공동체 활동 성과를 기반으로 두레정원 단계별 로드맵을 작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표 4-7]와 같다.

[표 4-7] 두레정원 단계별 로드맵(2018) (출처: 미추홀구 마을협력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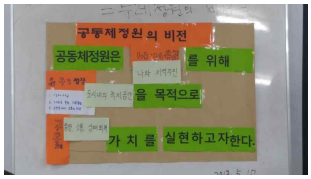
2015.11.~2017.12	2018.1.~2019.12	2020.~
1단계	**2단계**	**3단계**
주민참여와 조성	**참여활성화와 확산**	**자립과 지속**
• 마을정원사 양성과정 운영 - (정원+공동체) 교육, 실습 • 정원디자인 및 조성	• 두레정원 활성화 - 정원공동체 구성 - 주민운영 시범사업 운영 • 주변 녹지와 연계해 대상지역 및 주민참여 범위 확대 - SK완충녹지, 용정근린공원	• 주민 운영 및 자립 - 민간위탁 방안 마련 - 자체운영 수입모델구축 • 두레정원 지속방안 마련 - 2020 공원전환 대비 - 공원, 디자인, 공동체가 결합된 녹지 로드맵 구축

로드맵의 2단계인 ‘두레정원 참여활성화와 정원공동체 확산’을 위한 계획안은 두레정원 운영주체로서 마을정원사 공동체를 더욱 확장시키고, 주민자립성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를 위해 공동체워크숍을 기획하였으며, 특히 정원사들이 노력하여 손수 가꾼 두레정원을 기반으로 한 어린이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자체적인 역량으로 운영해나갈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지원하였다.

▌공동체 역량강화 및 비전세우기 워크숍

두레정원 운영이 3년차에 접어들자 마을정원사 공동체는 정원교육 1기 수료생부터 4기 수료생까지 결합하여 이전보다 인원이 증가하였고, 정원사들의 활동 내용이 다양해졌으며, 외부 협력주체들과의 연계도 잦아졌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공동체 내부에서는 조직체계 마련 및 소통문제 해결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마을협력센터는 2018년 5월부터 한 달간 중간지원조직(일하는여성아카데미 인천지부)을 연계한 공동체 역량강화 워크숍을 기획하여 정원공동체의 운영원칙과 방법 등을 점검하였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공동체 비전 설정 및 연차별 실천목표 수립, 주민단체 설립 교육 및 지원, 그리고 보조금 사업 실무 및 회계교육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그림 4-18] 두레정원 마을정원사 비전소통워크숍 (출처: 미추홀구 마을협력센터 블로그)

[표 4-8] 공동체정원 소통향상 및 비전세우기 워크숍 교육내용
(출처 : 미추홀구 마을협력센터)

회차	주제	내용
1	소통과 나눔	1) 두레정원 활동 계기 2) 공동체 '두레정원' 활동 보람
2	공동체정원의 비전	1) 비영리조직의 성장 싸이클 1~5단계(강의) - 두레정원 공동체는 어느 단계에 있나? 2) 개인의 비전과 공동체의 비전 논의와 나눔 3) 공동체정원의 비전 세우기 - 목적과 가치 합의
3	공동체 운영의 실제	1) 공동체정원 비전세우기-2 - 그동안 활동의 어려웠던 점, 힘들었던 점 나누기 - 공동체에 필요한 가치관 확인 2) 공동체 운영을 위한 실제 - 공동체 운영에 대한 구상 - 총회의 필요성 확인
4	워크숍 계획 - 총회 준비	1) 공동체 운영을 위한 실제-2 2) 총회 준비(총준위 구성) - 무엇이 필요한가? 구체적 논의 - 준비위원 선출

우선 마을정원사들은 공동체정원 운영에 대한 공통적인 방향성과 가치를 설정하기 위해 비전선언문을 작성하였다. 두레정원의 비전은 '정원사 개인과 지역주민을 위한 도시 내 녹지공간을 목적으로 공동체의 가치; 소통, 생태회복, 힐링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며, 실천 활동으로는 '생태수업, 재능기부 활동, 주민들간의 소통을 위한 관심과 실천'을 이야기하였다.

또한 마을정원사들은 공동체 활동 중에 경험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나누고, 보다 구체화된 조직체계 마련의 필요성에 함께 공감하였다. 해당 워크숍은 마을정원사 공동체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후 조직을 설립하는 데에 기반이 되었다.

▌주민운영 시범사업 '파릇파릇 새싹정원' 운영

주민운영 시범사업은 '마을 숲 정원교실'에서 교육을 담당한 중간지원조직(가톨릭환경연대)과 마을정원사 공동체가 협동하여 어린이들과 주민들을 대

상으로 생태교육 및 도시농업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이었다. 사업의 운영주체들은 함께 친환경 정원관리 원칙과 정원 시설(관리동, 물품보관소, 퇴비장, 수도시설) 이용 원칙을 수립하였으며, 관련분야 의무교육 이수 기준을 마련하였다[30]. 주민운영시범사업을 계기로 마을정원사들은 관련 교육을 추가로 이수하여 도시농업관리사를 비롯한 다양한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크게 확대하였다.

마을정원사들은 시범사업을 통해 텃밭 분양, 생태체험프로그램, 그리고 도시농업교육 및 컨설팅을 주체적으로 운영해봄으로써 공동체정원이라는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가능성을 목격하였고, 이 기회로 교육공동체로서의 주체성과 자치 역량을 점진적으로 강화하였다.

[표 4-9] 주민운영시범사업 '파릇파릇 새싹정원' 세부내역 (출처: 미추홀구 마을협력센터)

	제목	내용	참여대상	운영주체
1	'파릇파릇 새싹정원' 어린이집 분양	두레정원 내 텃밭 분양 [한평틀정원(3.6㎡) / 두평틀정원(7.2㎡)]	용현동 및 학익동 어린이집	공동체지원팀, 마을정원사, 비영리단체
2	두레정원 생태체험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운영 준비: 마을정원사 교육, 프로그램 홍보 및 사전수요조사	참여신청 어린이집 및 유치원 누구나	마을정원사, 비영리단체
		프로그램 운영: 절기·생태놀이 체험교실 운영, 친환경 도시농업 교육		
3	도시농업활성화	절기별 농사: 1주일 전 교육 인원 및 시간 사전신청, 이론 및 현장교육	참여신청 어린이집 및 유치원, 기타 주민 누구나	도시농업 기간제근로자[31], 마을정원사
		친환경 도시농업 컨설팅: 친환경도시농업 확산을 위해 마을정원사 및 참여자에 현장컨설팅 지원		
4	정원 활성화를 위한 시설 워크숍	정원활성화를 위한 시설 확충 논의 - 용정근린공원-두레정원-SK녹지를 잇는 도심녹지 간 연계 및 차별성 부여를 위한 주민의견 수렴	마을정원사, 일반주민 등 30여명	공동체지원팀, 유관부서 및 전문가

30) 두레정원의 단계적 활성화 계획 및 주민운영시범사업에 관한 내용은 '2018 두레정원 활성화 계획(안)'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출처: 미추홀구 마을협력센터)

31) 도시농업 기간제 근로자는 도시농업 교육전문가로, '2018년 도시농업 활성화의 해'를 맞이해 도시농업 가치 확산 및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공원녹지과 도시농업팀과 마을협력센터가 협업사업으로서 마련한 주민일자리이다.(참고: 두레정원 활성화 계획, 2018)

(3) 공동체정원 기반의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

▌계절별 꽃 심기 행사

매년 봄(4월)과 가을(9월)에는 두레정원에 꽃심기 행사가 큰 호응을 얻는다. 마을정원사들은 공원녹지과의 예산 지원을 받아 다년생 화초를 구매하여 직접 조성한 상자텃밭 40여개를 가족단위의 신청자들에게 분양한다. 꽃심기 행사 당일이 되면 주민들은 마을정원사의 안내를 받아 각자만의 꽃밭을 가꾸고 봄꽃정원, 가을화단 조성 콘테스트에 참여한다. 이밖에도 정원사들이 가꾼 테마정원 전시, 체험프로그램 등 두레정원만의 다양한 볼거리를 중심으로 주민들은 이웃과 함께 교류하며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그림 4-19] 가족단위 봄꽃, 가을꽃 심기 행사(2019) (출처: 미추홀구 마을협력센터)

▌지역 봉사활동의 장

두레정원은 지역 종합자원봉사센터에 봉사활동 장소로 등록되어 지역 내 공공 및 민관부문의 다양한 자원봉사 수요처로부터 연계된다. 인근 지역의 중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은 봉사활동 점수나 시간을 충족시키기 위해 정원을 방문하여 마을정원사들과 함께 제초 및 식재작업을 돕는다.

2018년에는 법무부 주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인천보호관찰소가 미추홀구와 협약하여 사회봉사 관찰대상자들을 정원 조성작업에 지원하였다. 이들은 대부분 남성들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여성들로 구성된 마을정원사들이 체력적인 한계가 있어 미루어두었던 작업들을 도맡아 해주었다. 특히 용현녹

지의 경우 토양에 돌과 콘크리트 파편이 가득하고 우천시에는 폐자재가 지면 위로 올라오는 문제가 발생해 지속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해야 했는데, 이러한 작업에 보호관찰소 연계활동이 큰 도움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정원 내 텃밭의 푯말 페인트 작업, 모종 이식 및 잡초 제거 작업 등 사회봉사자들이 몇 차례에 걸쳐 정원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하였다[32].

[그림 4-20] 두레정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출처: 언론자료 / 연구자 촬영, 2022.4.7.)

(4) 환경 복원 및 생태 체험 활동

▌맹꽁이 보호 습지 조성

두레정원과 인접한 곳에는 수로가 있어, 과거에는 비가 오면 맹꽁이 소리로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였다고 주민들은 이야기한다. 하지만 쓰레기 무단 투기로 인한 토양 오염이 심화되면서 더 이상 맹꽁이를 찾아볼 수 없었다. 마을 정원사와 주민들은 두레정원이 지역의 생태환경 복원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인접한 고등학교의 학생들과 함께 땅을 파고 황토를 채워 넣어 맹꽁이 습지를 조성하였다.

32) '인천준법지원센터, 두레정원 꽃길 조성 지원', 환경포커스 http://www.ecofocus.co.kr/news/article.html?no=12378 참고 (검색일자: 2022.5.20.)

[그림 4-21] 두레정원 맹꽁이 습지 조성(2018) (출처: 두레정원 사회적협동조합)

▌어린이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두레정원의 주민운영시범사업 중에는 어린이 생태체험 프로그램도 있다. 크게 '새싹정원(텃밭)' 분양 프로그램과 '두레생태교육' 강의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새싹정원' 분양은 텃밭의 일부를 용현동 관내 21개소 어린이집에 분양하여 텃밭 가꾸기 활동을 통해 생태감수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매주 일정시간 야외활동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하는 어린이집의 교육과정 특성상 높은 관심과 만족도를 보여 좋은 성과를 나타냈다. 둘째로 '두레생태교육'은 마을정원사들이 직접 진행한 생태 및 절기교육 프로그램으로, 약 3년간 1,812명이 참가하고 1,800만원 정도의 수익이 창출되기도 하였다[33].

[그림 4-22] '파릇파릇 새싹정원' 두레생태교육 교육프로그램
(제공 : 두레정원 사회적협동조합)

33) '인천시 민관협치 우수사례 신청서(2021)'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출처: 미추홀구 마을협력센터)

(5) 지역 내 그린인프라 확대

▌주변 녹지와 연계하여 그린네트워크 형성

약 60평 규모의 두레정원에는 정원을 순환하는 야생화 꽃길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다. 주민들은 생활반경 내에 맘껏 걸을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의 자연녹지가 생겼다는 것에 큰 만족감을 드러낸다.

또한 두레정원의 외곽 산책로는 인근에 위치한 SK아파트 옆의 용정공원과도 보행동선이 연결되어 걷기운동을 하는 주민들에게 좋은 산책 및 조깅코스로 활용되고 있다.

[그림 4-23] 두레정원의 산책로 (출처: 연구자 촬영, 2022.4.7. / 두레정원 마을협력센터)

인근 주민들이 **그 동안 갈 곳이 없어 아파트 안에만 있었는데 휠체어 타고 나올 수 있는 곳이 생겨서 좋다고** 뵐 때마다 이야기 해주세요.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A/ 언론기사 참고[34])

하루동안 여기 산책 오시는 분들이 천 명 이상이에요. 새벽에는 밀려 다녀요. 아파트 주민들이 공원도 없고 산도 없고, 운동할 데가 없으니까. 어디 멀리 갈 수도 없고. 어르신들은 두레정원만 한 바퀴 도시는데 보통 30분 걸리시거든요. 그런데 **SK아파트 옆에 또 숲이 있고, 거기서 용정공원도 연결되거든요.** 빠른 걸음으로 갔다 오시면 1시간 20분 걸려요. **조깅 코스로 딱 좋은 거지.**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A)

34) 마을공동체의 삶을 변화시킨 6천평 '두레정원', 인천in, https://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7181 참고 (검색일자: 2022.05.27.)

▎주민 텃밭 제공

두레정원에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원예정원 뿐만 아니라 59개의 주민텃밭이 함께 조성되었다. 그 중 19개소는 마을정원사가 어린이 생태체험 프로그램이나 도시농업교육을 위해 사용하고, 40개소는 주민들에게 무료 분양하도록 하였다. 2019년 기준 주민텃밭 분양에 신청한 인원은 약 320명이었으며, 추첨을 통해 40명으로 축소하여 최종 선정하였다. 대략 8대1의 경쟁률이었다. 도시텃밭에 대한 높은 수요는 아파트 주거형태가 많아 일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외부공간의 확보가 어려운 용현5동의 공간적 현황과도 연관이 있다.

> 신창아파트랑 윤성아파트, 뒤에는 SK아파트가 있어요. 거기는 3천 세대가 넘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도심지에다가, 다 아파트랑 빌라촌이에요. **이런 유휴부지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도시텃밭이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A)

(6) 마을공동체 활동에 대한 대외적인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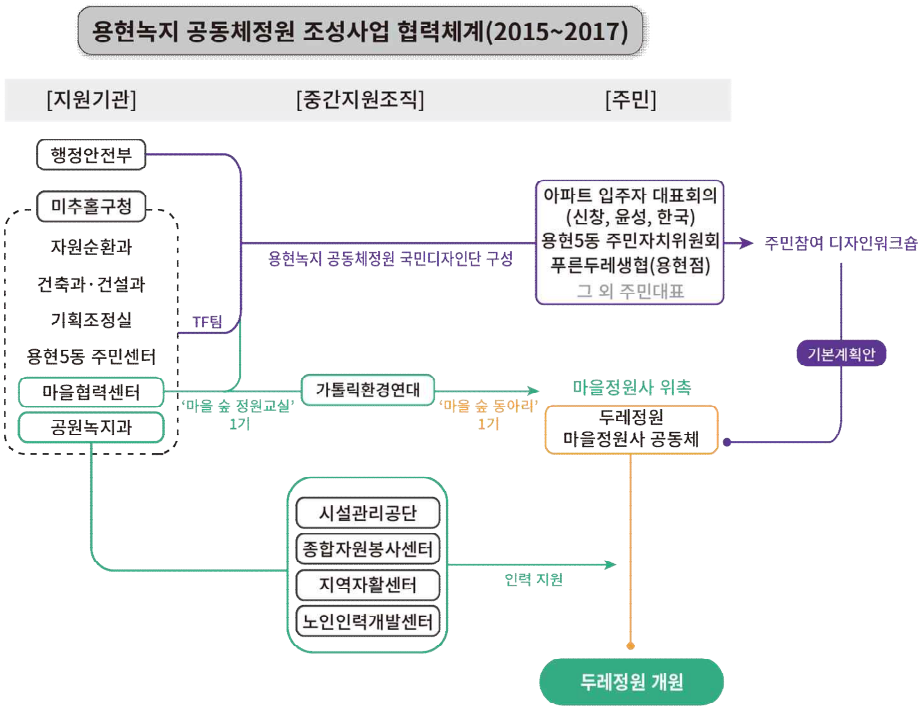
▎ 2018년 행정안전부 지정 최우수 마을공동체 상

두레정원 마을정원사 공동체와 미추홀구 마을협력센터는 제6회 지방자치박람회 우수사례 발표회에서 ‘공동체 우수사례’ 부문으로 최우수상을 수상[35] 하였다.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됐던 유휴지를 활용하여 정원 개발단계부터 주민, 지역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된 통합 워크숍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조성된 것뿐만 아니라, 사후 운영·관리까지 주민참여형으로 진행되었다는 성과가 주목받은 것이다.

35) ‘미추홀구, 지방자치박람회서 3개 분야 수상자로 선정’, 위키트리, https://www.wikitree.co.kr/articles/380067 (검색일자: 2022.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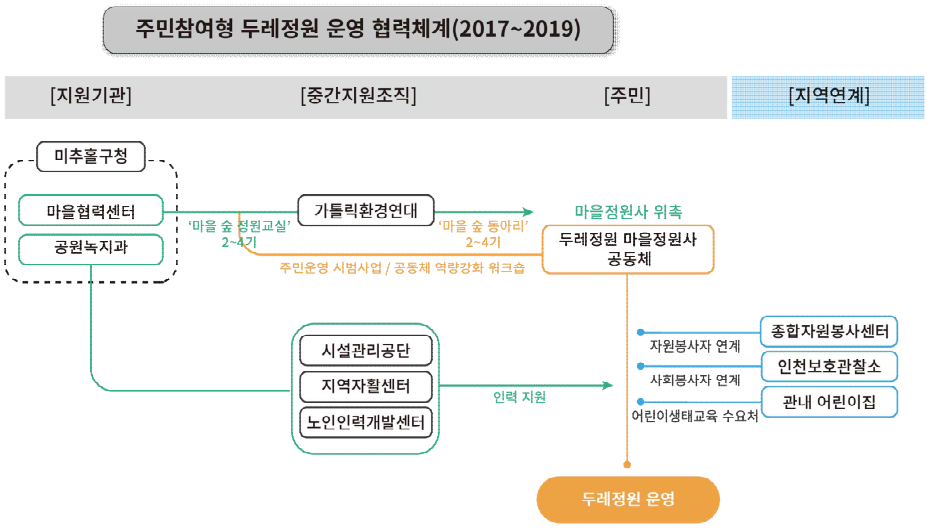
(8) 소결

‘용현녹지 공동체정원 조성사업’으로 시작되었던 2015~2017년의 두레정원 협력체계는 [그림 4-24]과 같다. 행정안전부의 사업추진 안내에 따라 주관부서인 시민공동체과는 지자체의 각종 부서와 TF팀을 구성하여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국민디자인단을 구성해 주민참여 정원디자인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이와 동시에 마을협력센터는 공동체정원의 장기적인 운영주체로서 주민공동체를 형성하고자 마을정원사 교육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추진하였다. 디자인워크숍을 통해 도출한 기본계획안을 토대로 ‘마을 숲 정원교실’을 수강하던 정원공동체와 지자체 TF팀,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협력해 두레정원을 조성하였다.



[그림 4-24] 용현녹지 공동체정원 조성사업 협력체계(2015~2017)

두레정원의 두 번째 단계인 2017~2019년 사이의 협력체계는 [그림 4-25]와 같다. 행정안전부의 사업이 종료된 이후로는 사업 전반을 주도한 지자체 마을협력센터와 공원녹지과, 그리고 마을정원사 공동체까지 세 참여주체가 협력하여 두레정원을 운영해나갔다. 마을협력센터는 공동체지원 예산을 활용하여 정원공동체의 교육과 활동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에는 '두레정원 활성화 계획'을 추진하였다. 그 내용에는 사업 초기부터 진행했던 마을정원사 양성을 위한 '마을 숲 정원교실' 뿐만 아니라, 정원을 활용한 주민운영 시범사업과 공동체의 역량강화 워크숍이 추가 구성되었다. 이 과정에서 두레정원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과 이용도가 크게 상승하였으며, 새로운 지역연계 사례가 생성되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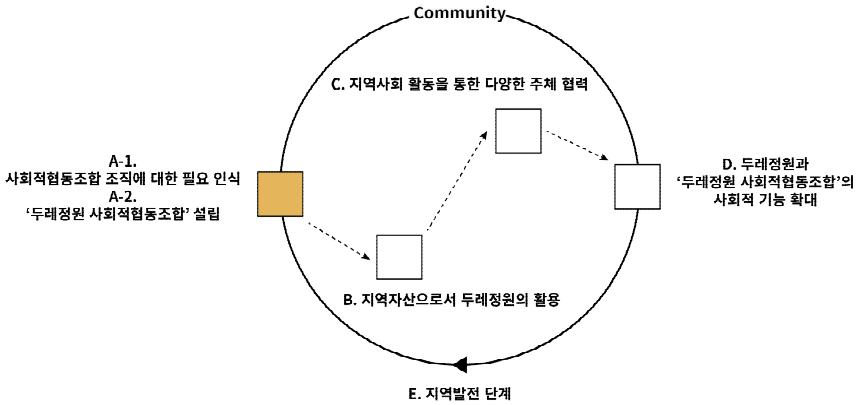


[그림 4-25] 주민참여형 두레정원 운영 협력체계(2017~2019)

2절. ‘두레정원 사회적협동조합’의 형성

지자체 마을협력센터는 공동체정원 조성사업의 초기부터 정원활동을 통한 주민공동체의 형성 및 활성화계획을 구상하였으며, 그 방안으로 운영한 마을정원사 양성과정(‘마을 숲 정원교실’)은 두레정원에 대한 주민참여도를 유지하는데 효과를 보였다. 하지만 마을정원사 공동체가 언제까지나 자원봉사를 통해 두레정원 운영·관리를 지속하기에는 몇가지 한계점이 있었다.

이에 마을협력센터는 주민들의 자립적인 두레정원 운영체계 마련을 위해 마을정원사들에게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권유하였다. 공동체정원을 중심으로 한 민관협치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직접 ‘주도’하도록 하여 지속가능한 공동체정원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시도였다.



[그림 4-26] ‘두레정원 사회적협동조합’ 활동 흐름도 - (A)

1. 주민주도적 정원 운영체계에 대한 필요 인식

(1) 마을정원사의 순수자원봉사에 대한 한계

약 2년간 지자체와 마을정원사 공동체의 민관협치는 두레정원을 성공적으로 활성화하였으나, 약 5,600평 규모의 정원을 2~30명의 마을정원사들이 순수 자원봉사로 유지·관리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행정안전부의 사업이 공동체정원 개원에 맞추어 공식적으로 종료되었기에 2017년 이후로는 참여 주민들에게 제공되던 활동비(식비, 간식비 등) 지원이 중단되었고, 주민들은 보상 없이 매 계절마다 조달된 꽃을 직접 식재하고 정원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로감을 느낀 '마을 숲 동아리' 3, 4기 공동체는 대부분 와해되었으며, 초기 정원 조성 단계에서 직접 실습하고 함께 봉사하며 유대감을 형성했던 1기와 2기 공동체의 일원이 활동을 이어왔다.

>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공원녹지과에서 꽃이 오면 심어야죠. 그리고 비 한 번 오고 나면 풀 뽑아야죠. 물도 줘야죠. 이거를 **순수 자원봉사로.** (중략) **1기 샘들은 처음부터 우리가 이걸 고생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의리가 있어서 똘똘 뭉치는 거예요.** '내가 빠지면 다른 사람들이 고생한다' 라는 생각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와서 봉사를 했어요. (중략) **근데 이게 1, 2년 지나가면서 이제 지치기 시작을 하죠.** 순수 자원봉사라는 게 한계에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A)

(2) 마을정원사의 전문가 자격 및 역량 강화

마을협력센터는 2018년에 시도했던 정원 및 생태교육 주민운영시범사업에서 두레정원과 공동체 활성화의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이에 마을정원사들에게 구 단위의 교육 공모사업을 제안하였고, 이를 위한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체계전환을 함께 권유하였다. 구청과 중간지원조직(가톨릭환경연대)의 지원으로 두레정원 마을정원사 공동체는 유아교육, 절기교육 등 어린이 생태교육을 위한 전문교육을 추가 이수했으며, 공동체정원의 관리자이자 도시농업분야 전문 강사

로서도 자격을 갖추기 위해 도시농업관리사[36]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하였다.

▌중간지원조직과의 의견 대립

두레정원 마을정원사들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분야 비영리단체(가톨릭환경연대)와 오랜기간 협력하였다. 시민공동체과는 행안부의 정원조성사업 초기부터 이 단체와 연계하여 '마을 숲 정원교실'을 위탁운영해 왔으며, 그 기간만 2년이었다. 뿐만 아니라 두레정원에서의 생태교육 및 도시농업교육 주민운영시범사업에도 전문가 지원조직으로서 협력하였다.

해당 비영리단체는 마을정원사 공동체가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체계전환을 앞두고 생태 및 도시농업교육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에도 함께 하였다. 또한 마을정원사들이 강사로서의 자격이 갖춰진 이후로는 보조 강사로 채택하여 외부 강의를 함께 다녔다. 하지만 마을정원사들이 교육공모사업을 스스로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역량이 강화되면서 강사활동에 대한 기회 및 경제적 이익과 관련하여 비영리단체와의 의견이 대립하였다. 이 계기로 두 집단간의 협력관계는 중단되었고, 두레정원 마을정원사 공동체는 교육공동체로서 더욱 확실하게 자립하게 되었다.

> (비영리단체와) 함께 강의를 시작 했는데, 본인들이 주 강사고 우리는 보조강사만 시켜주니까 **우리 선생님들(조합원들)의 반발이 생기기 시작 한 거죠.** (중략) **우리 선생님들이 경력 단절 주부들이 많지만, 이 중에 보육교사 자격증 갖고 계신 분, 학교 선생님 하셨던 분도 계셨고. 저도 외부 강의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었고.** 수업을 나가면 가서 세 시간을 투자하는데 보조강사는 만 오천원 밖에 안 줬어요. **돈의 문제 뿐만 아니라, 자생할 수 있게끔 우리한테도 기회를 달라고 항의를 한거죠.** 그랬더니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겠다고 그쪽에서 강경하게 나왔어요.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A)

---

36) 도시농업관리사란, 도시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가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도시농업 전문과정을 이수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여하는 자격을 말한다.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선 앞서 명시되었듯이 도시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 또한 갖추어야 하는데, 이는 농화학, 시설원예, 원예, 유기농업, 종자, 화훼장식, 식물보호, 조경 또는 자연생태복원 분야의 기능사 이상에 해당하는 자격이다. (참고: 네이버 지식백과)

2. ‘두레정원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주민조직 형성에 대한 필요 인식과 마을협력센터의 적극적인 권유에 따라 마을정원사 공동체의 대표는 사회적협동조합 상담 및 교육을 받아 직접 설립에 나섰다. 지역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연계되어있는 관련분야 사단법인을 소개하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를 안내하였다.

(1) ‘두레정원 사회적협동조합’ 조직 개요

두레정원 사회적협동조합은 3명의 생산자조합원과 2명의 자원봉사자조합원, 합계 5명의 다중이해관계자가 설립동의자가 되어 총 30만원의 출자금으로 설립되었다. 설립 목적은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조합 활동을 통한 조합원과 지역주민을 위한 두레정원의 활성화와 생태교육’이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주요 목적 중에는 취약계층[37]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있다. 이에 따라 두레정원 사회적협동조합의 서비스 고용대상은 경력단절여성이다.

두레정원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공익사업 유형은 ‘지역사업형[38]’이며, 업종은 교육서비스업이다. 정관에 명시된 주 사업의 세부내용은 [표 4-10]과 같다. 두레정원 사회적협동조합의 ①주 사업은 생태복원 및 교육사업, 도시농업 교육사업,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정원활성화 사업, 도시재생 공모사업이며, ② 기타 사업은 필수로 포함되어야 하는 2~4번 항목을 제외하고 텃밭재배 교육사업이 추가되었다.

---

37)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2022년도 사회적기업 업종 업무지침’에 따른 취약계층의 판단기준은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청년·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 피해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결혼이민자, 갱생보호 대상자, 범죄구조피해자, 그리고 기타사항에 해당되는 자이다.

38)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주 사업의 목적 및 판단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공익사업 유형 중 한 개 이상을 선택해 수행해야만 한다. 주 사업 유형에는 지역사업형,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취약계층 고용형, 위탁사업형, 그리고 기타 공익증진형이 있다.

[표 4-10] 두레정원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 종류 (출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두레정원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 제6장 사업과 집행
제58조(사업의 종류) ①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하고, 주 사업은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 이상이어야 한다. 1. 생태복원 및 교육사업 2. 도시농업 교육 사업 3.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정원활성화 사업 4. 도시재생 공모사업 ②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기타 사업으로 할 수 있다. 1. 텃밭재배 교육 사업 2.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3. 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4.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2) 산림청 인가 정원교육서비스업 사회적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은 발기인이 필수 제출 서류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설립 신고를 하면 되는 반면, 사회적협동조합은 동일한 단계에서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중앙부처의 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설립인가 신청에는 정관을 포함하여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과 수입·지출 예산서 등 10가지의 첨부서류가 필요하다. 두레정원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는 2018년부터 지자체 마을협력센터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온 생태 및 도시농업교육 주민운영시범사업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서를 작성하였다.

두레정원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주 사업이 교육서비스업인 것을 고려하여 설립인가를 위한 소관 중앙부처를 교육부로 위탁하였으나, 교육부 측에서는 사업내용이 정원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환경부로 인계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환경부는 교육사업을 이유로 반려하였으며, 궁극적으로는 산림청 소관으로 인계되어 설립인가가 결재되었다. 이는 커뮤니티가든을 기반으로 한 교육서비스업 사회적협동조합의 전례가 없어 발생한 상황이기도 하다. 현재 인천광역시 내 산림청의 인가를 받은 협동조합은 단 두 곳 뿐이며,

업종은 생태분야 교육서비스업으로 유사하나 특정 공원녹지에 대한 운영·관리 활동을 동반한 장소기반 사회적협동조합은 두레정원의 경우가 유일하다.

[표 4-11] 두레정원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과정 및 기본정보
(출처: 미추홀구 마을협력센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두레정원 사회적협동조합 설립과정	
2019.01.14	두레정원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
2019.03.11	두레정원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발금(산림청 소관)
2019.09.09	두레정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창립총회(2019)	협동조합 기본정보	
	협동조합명	두레정원 사회적협동조합
	수리(인가일)	2019.03.11
	업종구분	교육 서비스업
	조합유형	다중이해관계자
	품목	생태복원서비스, 정원관련 서비스 등
	주요사업	생태복원사업, 정원활성화사업, 도시재생사업, 도시농업 등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넘이길19번길 43

(3) 두레정원 사회적협동조합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두레정원 사회적협동조합은 마을협력센터가 주관한 정원교육(‘마을 숲 정원교실’)을 수료하고 마을정원사로 활동해오던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총 20명의 조합원 중 19명은 여성이며, 남성은 1명이다. 연령대는 40~60대로 분포되어 있으나, 50대가 가장 많다. 직업이 있는 조합원은 6명이며, 나머지 조합원들의 다수는 경력단절 여성이다. 이러한 특징은 전문가 자격증 취득 및 경제활동에 대한 열의가 높은 조합원들의 활동특성과도 관련이 있다.

두레정원 사회적협동조합은 교육담당과 정원담당 조합원들로 분류되는데, 이 중 교육담당 인원들은 전원이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이외에도 많은 조합원들이 원예관리사, 유기농업기능사, 화훼장식기능사, 조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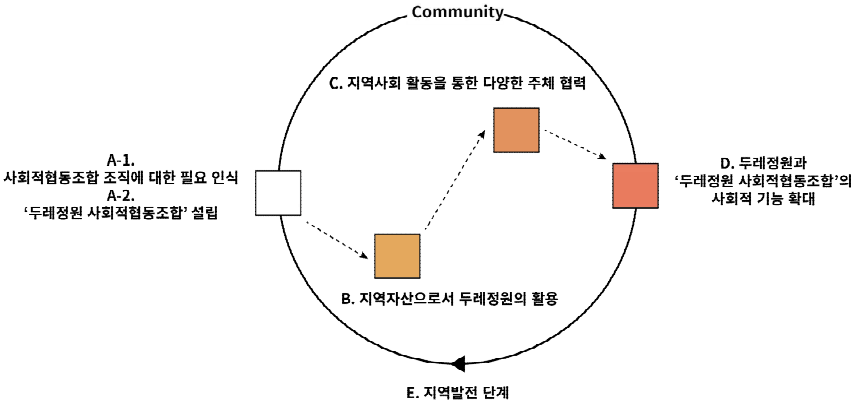
능사 등의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교육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조직의 전문성과 공신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된다.

[표 4-12] 두레정원 사회적협동조합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내용	항목	응답자
개인속성	성별	남	1
		여	19
	연령	40대	3
		50대	12
		60대	5
	직업유무	유	6
		무	14
	학력	고등학교 졸	11
		대학교 졸	6
		대학원 이상	3
	거주지역	용현5동	18
		기타	2
	주택형태	일반단독주택	2
		아파트	18
	자격증	원예관리사	16
		유기농업기능사	5
		화훼장식기능사	4
		조경기능사	2
		도시농업관리사	11

3절. ‘두레정원 사회적협동조합’의 전개과정

두레정원 사회적협동조합은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이후로 정원을 기반으로 한 교육서비스업 활동을 본격화 하였다. 이전보다 규모가 큰 교육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다양한 관내 교육시설 및 관련기관과 협력하였다. 교육서비스 뿐만 아니라 마을정원사 및 전문 도시농업관리사의 자격으로 도시재생 사업 또는 행사에 참여하는 등 활동범위를 확장해 나갔다.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을 통해 두레정원의 기능은 꾸준히 확대되어 현재 인천시의 주민주도적 공동체정원의 시범모델로 인식되고 있다.



[그림 4-27] ‘두레정원 사회적협동조합’ 활동 흐름도 - (B), (C), (D), (E)

1. 지역자산으로서 두레정원의 활용

(1) 어린이 및 청소년 대상 생태교육사업

마을정원사 공동체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조직함으로써 더욱 큰 지역 교육공모사업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또한 높은 확률로 선정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그 첫 사업으로 '미추홀구 온마을학교' 사업이 있다. 이는 관내 초등학교·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을교육 콘텐츠사업 수행이 가능한 지역의 기관, 단체, 동아리 등이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자체 주관 사업이다. 내용은 문화·예술,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체험, 인성교육, 고전 및 인문학, 생태·환경, 예절, 인권, 사회적경제, 역사 및 기타 청소년(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39]이며, 교육주체의 유형은 크게 주민주체형, 기관·단체 및 거점형으로 공모되였다. 두레정원 사회적협동조합은 이 중 기관·단체형 마을학교로 선정되어, 두레정원에서의 텃밭 생태체험 및 원예교실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특히 주민주체형과 기관·단체형은 사업 지원예산 범위가 상이하며, 강사료와 재료비 및 홍보비를 포함한 보조비의 지원범위가 최대 2,000만원 이상 차이를 보인다.

> 그냥 마을공동체로도 사업에 지원 할 수 있으나 **사회적협동조합 타이틀이 있으면 더 높은 상위의 공모사업에 지원할 수 있고 우선권이 있어요.** (중략) 사업에 지원하더라도 예를 들어 마을공동체면 500만 원짜리 사업이고, 사회적협동조합은 800만 원짜리 사업이에요. 똑같은 프로그램이어도 지원비를 더 받아서 아이들을 위해 좋은 재료를 활용할 수 있고, 강사료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요.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A)

39) '미추홀구 온마을학교' 사업내용은 '2020년 미추홀구온마을학교 교육콘텐츠 모집 공고문(출처: 미추홀구청 평생학습과)'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그림 4-28] ‘미추홀구 온마을학교’ 방과후 수업 (출처: 두레정원 사회적협동조합)

방과후학교가 처음 진행되던 2020년 기준, 두레정원의 부지는 여전히 도시관리계획상 완충녹지였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이 정원을 가꾸고 생태교육사업 거점으로 활용함에 따라 그 가치가 새롭게 정의되었다. 특히 조합원들에게 두레정원은 생태교실 그 자체이다. 정원 관리동에서는 실내수업을, 야외 텃밭과 꽃밭에서는 체험수업을 번갈아가며 진행한다. 두레정원에는 파고라가 11개 설치되어 있는데, 정원사들은 이곳을 활용하여 아이들과 조별 활동을 진행한다.

(2) 공동체정원을 활용한 지역사회 공익활동

▌봉사활동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협동조합

두레정원 사회적협동조합은 봉사정신을 협동조합의 기본 가치로 삼는다. 비록 교육서비스업을 주 업종으로 하여 활동하고 있으나, 조합원들은 두레정원 가꾸기 활동을 기초로 한다. 종종 강사활동을 목적으로 협동조합 가입을 원하는 청년 지원자들도 있었지만, 공동체정원을 거점으로 모든 활동이 이루어지는 두레정원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정원가꾸기 봉사활동에 대한 꾸준한 참여의지를 기본 조건으로 공지하여 신중하게 조직을 구성해 나가고 있다.

협동조합 가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일단 꽃을 좋아하는지, 흙 만지는 거 좋아하시는지 물어보고. 또 봉사도 좋아하냐고 물어봐서 **봉사를 좋아한다고 그러면 그때부터 대화가 되죠.** 아니라고 그러면 "저희하고 안 맞으세요." 그러죠. 그럼 저희는 절대로 안 받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A)

이는 본래 자원봉사로 정원활동을 유지해왔던 두레정원 마을정원사 공동체의 정체성과도 연관이 있다. 각자 꽃과 흙이 좋아 정원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지만, 이후 함께 '공동체정원' 을 조성함으로써 혼자가 아닌 이웃과 정원을 가꾸어나가는 방법과 공동체의 가치를 학습한 것이다. 이들은 또한 정원에서의 봉사활동으로 자연스럽게 이웃과 관계를 형성하고 두레정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모습에서 보람을 느끼는 등의 사회적 경험들이 이 모든 활동의 원동력이라고 말한다. 지역의 공공적 가치 실현을 위한 이타적 태도와 봉사정신을 갖춘 참여자들이 곧 마을정원사 공동체가 되어 현재의 사회적협동조합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차상위계층 노인 대상 원예프로그램 진행

두레정원 사회적협동조합은 용현5동 주민자치회의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제안사업으로 60세 이상 차상위계층 노인 대상 '찾아가는 소확행' 반려식물 만들기 프로그램을 주관하기도 하였다. 마을정원사들은 노인들과 함께 다육정원, 석부작, 벽걸이 정원, 수생 접시화분 등을 만들었다. 마을정원사들은 참여한 이웃들의 가정에도 직접 방문하여 안부를 묻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에 대해 자발적으로 고민하고 실천함으로써 호혜적 관계를 쌓아갔다.

▌조합원들의 지역사회 기부활동

마을정원사들은 정원 내에서 활용되지 않은 땅에 마사토를 부어 고구마밭을

조성하기도 하였다. 이는 지역사회 기여를 위해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재배한 고구마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역 차상위계층 노인들에게 기부되었다.

겨울에는 두레정원에 심은 무와 배추를 이용해 김장체험행사를 진행하였다. 김장에 필요한 고춧가루 등 식자재 일부는 조합원들이 교육공모사업으로 받은 강사료를 모금하여 마련한 사회적협동조합의 공용자금으로 구매하였으며, 완성된 김치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역주민들과 나누었다.

마을정원사들은 두레정원에 꽃이 피면 일부를 채취하고 회비의 일부로 필요한 물품(오아시스 링)을 구매하여 리스를 제작하기도 하였다. 직접 만든 리스는 구청 담당부서와 행정복지센터, 구청장실 등 두레정원을 함께 운영하고 지원하는 협력주체에게 선물로 전달되었다.

[그림 4-29] 두레정원 고구마 재배 및 나눔(2019)

[그림 4-30] 김장 체험 및 나눔 행사(2019)　　[그림 4-31] 두레정원 리스 제작 및 나눔

2. 다양한 지역주체와의 협력

▌공모사업을 통한 지역 공공도서관과의 협력

2021년에는 인천시교육청 소속 주안도서관이 추진한 ‘마을자원 연계 제안 프로그램’에 두레정원의 생태체험프로그램이 선정되었다. 공모내용은 관내 유아, 초등학생, 지역아동센터 아동, 작은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마을자원을 활용하여 주 1회씩, 총 4~10회에 걸쳐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다.

[그림 4-32] 공공도서관 연계 두레정원 생태체험 및 원예교실
(출처: 두레정원 사회적협동조합)

▌인근지역 환경개선사업 연계활동

두레정원 사회적협동조합은 용현동뿐만 아니라 학익동, 도화동 등 다른 행정동의 환경개선사업에 강사 및 봉사자로 협력하였다. 이는 수익사업이 아닌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봉사활동으로, 마을정원사들은 사업대상지를 방문하여 골목정원 조성작업에 참여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을 한다.

[그림 4-33] 지역 환경개선사업 골목상자정원 조성활동 참여
(출처: 두레정원 사회적협동조합)

3. 공원녹지 확충 대안으로서 공동체정원

▌지역 내 주민참여형 공동체정원 조성사업의 확산

지자체는 두레정원을 시범모델로 하여 2018년에 용현동의 2호 공동체정원 사업을 실행하였다. 대상지는 인근 SK스카이뷰 아파트 앞의 완충녹지로, 이전과 마찬가지로 행정안전부 마을공동체정원 조성사업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이곳은 수인선 유휴부지와 나란히 접해있어 도시 숲길 조성사업과도 연계[40]되었으며, 2020년 6월에 준공해 현재 '자연숲 놀이정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자체의 시민공동체과와 공원녹지과는 1차 계획으로 이곳을 공동체정원으로 조성하고, 2차로는 용정근린공원과 수인선 유휴부지를 연결[41]하여 공원녹지 활성화를 추진중에 있다. 두레정원 조성 당시의 협력체계와 마찬가지로 시민공동체과의 마을협력센터는 공동체 활동과 정원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숲길과 연결된 골목의 상업시설을 연계·지원하고 있다. 이밖에 실질적인 정원 관리 업무는 대체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 담당할 예정이다.

[그림 4-34] '자연숲 놀이정원' 위치도 및 전경 (출처: 경인일보, 인천소비자저널)

---

40) '미추홀구, 가족과 함께 여름꽃 심기 체험행사 개최', 인천 소비자저널, http://iccj.kr/news/18708 참고 (검색일자: 2022.06.03.)

41) '인천 용현동 SK아파트 완충녹지… 내년 4월까지 '마을 정원' 조성', 경인일보,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81209010002701 참고 (검색일자: 2022.06.03.)

4. 도시농업공원으로의 변경

(1) 완충녹지에서 도시농업공원으로의 전환

인천시는 두레정원이 조성된 2016년도에 해당 부지의 완충녹지 용도가 더 이상 주변 여건 변화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하였다. 이에 미추홀구청은 이곳을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구상을 점진적으로 진행하였다. 다만, 두레정원 조성을 주도한 시민공동체과는 주민들이 공원의 이용 대상이 아닌 참여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공원으로 형태를 구상하였으나, 공원녹지과는 마을공동체보다는 공원 유지·관리의 용이성과 이용쾌적성 등에 더욱 중점을 두어 담당부서별로 다른 방향성을 보였다.

지자체는 2019년 10월 녹지에서 도시농업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 신청을 하였으며, 2020년 7월에 최종 변경되었다[42]. 도시농업공원이란, 도시민의 정서순화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하여 도시농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43]으로, 도시공원의 운용적 측면과 도시농업 활성화를 기대한 공원의 한 패러다임(이종일 외 1, 2017)으로 여겨진다. 이는 공동체정원이 가진 마을공동체 및 도시농업에 대한 가치가 도시 근린공원과 결합한 형태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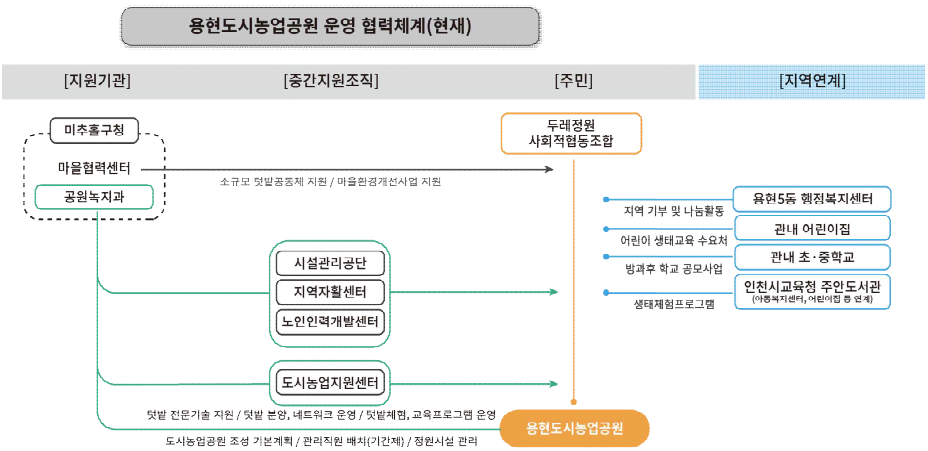
두레정원이 인천지역 최초의 도시농업공원으로 정식 지정됨에 따라 지자체는 2021년부터 공원조성기본계획과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였다. 공원녹지과는 용현도시농업공원 계획과정에서 별도로 두레정원 사회적협동조합과 논의한 바는 없으며, 도시관리계획상의 주민의견 공람 절차를 위해 협동조합의 이사장이 주민대표로 참석하여 공원 조성 계획안과 기타 진행사항에 대해 공람하도록 하였다. 지자체는 현재 도시농업공원 조성을 위해 인천시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고, 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44] 2022년 중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현도시농업공원 조성계획은 기반시설 3,610㎡(도로, 광장), 도시

42) 도시관리계획(시설: 공원, 녹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0-300호 참고
4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참고
44) 미추홀구청 홈페이지 보도자료, ‘미추홀구, 인천시 최초의 도시농업공원 조성준비’ 참고

농업시설 2,158㎡(텃밭, 관수시설), 조경시설(초화원) 1,033㎡, 편의시설 318㎡(주차장, 화장실), 관리시설(관리사무소) 74㎡, 녹지 1만1,347㎡으로 수립되었다. 2022년 3월 기준으로 용현도시농업공원은 이전 공동체정원의 형태로 유지되어 있으나, 해당연도 공사 일정으로 인해 두레정원 사회적협동조합의 현장기반 교육공모사업은 당분간 중단된 상태이다.

(2) 소결

2019년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두레정원 전개과정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을 가진다. 첫째는 두레정원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교육활동으로 공동체정원을 통한 지역연계가 크게 확산된 것이며, 둘째는 두레정원이 용현도시농업공원으로 변경된 것이다. 현재의 두레정원 협력체계는 다음 [그림 4-35]와 같이 파악된다. 무엇보다도 지자체의 두레정원 담당부서가 시민공동체과(마을협력센터)에서 공원녹지과로 이관되어 도시농업팀의 운영 권한이 크게 증가한 것이 큰 특징이다.



[그림 4-35] 용현도시농업공원 협력체계(2022)

4절. 두레정원의 성과 및 한계

1. 두레정원의 성과 및 활성화요인

(1) 두레정원의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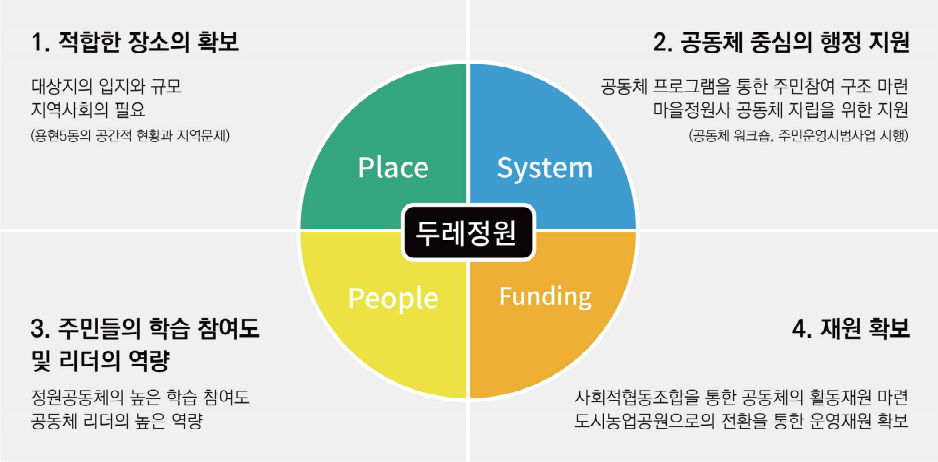
[표 4-13] 두레정원의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성과

구분		두레정원
환경		원예활동을 통한 주거환경 경관 개선 생태환경 회복(폐기물 제거, 토질 개선, 친환경 재배)
사회	개인	경관 심미성 증진으로 거주민 인식 변화 주민참여 활동을 통한 주체성 증진
	공동체	커뮤니티공간으로서 이웃간의 관계 개선 마을정원사 공동체 활동을 통한 지역 공동체성 증진
	지역사회	공원녹지 확충을 통한 건강 복지 형평성 제고 지역 봉사활동의 장으로서 연계 확산 정원문화 확산을 통한 주민 삶의 질 증진 생태 및 도시농업 교육 기회 및 다양성 확대
경제		주민일자리 창출(경력단절 여성 및 노인 등) 건강 먹거리 생산

현재까지 약 6년간 운영되어온 두레정원은 과거 방치되었던 용현녹지(미조성 완충녹지)의 상태와 비교하였을 때,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성과를 보인다. 우선 정원 조성과정에서 폐기물을 제거하고 토질 개선, 친환경 텃밭 재배가 이루어져 생태환경이 회복되었으며, 원예활동을 통한 주거환경 경관이 개선되는 환경적 성과가 있다. 또한 마을공동체가 합심하여 가꾼 공동체 정원은 지역 내 주민들에게 긍정적 변화를 일으켰다. 주민 개인적 차원에서는 녹지의 경관 개선 및 심미성 증진으로 거주민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으며, 정원 내 주민참여 활동을 통한 지역에 대한 주체성이 증가하였다. 공동체적 측면에서는 용현5동의 커뮤니티공간으로서 이웃간의 미시적 관계가 개선되는 양상을 보였으며, 마을정원사 공동체 활동으로 지역공동체성이 증진되었다. 지역사회의 범위에서는 공원녹지 확충을 통한 건강 복지 형평성 제고, 지

역 봉사활동의 장으로서 연계 확산, 정원문화 확산을 통한 주민 삶의 질 제고, 생태 및 도시농업분야 교육의 기회 및 다양성 확대 효과가 관찰되었다. 두레정원 운영에 따른 경제적 성과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마을정원사 공동체가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함에 따라 경력단절 여성 및 노인과 같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민일자리가 창출되었으며, 공공이 함께 관리하는 도시텃밭을 통한 건강먹거리 생산 또한 공동체정원이 가지는 경제적 성과가 될 수 있다.

(2) 두레정원의 활성화 요인



[그림 4-36] 두레정원의 활성화 요인

① 적합한 장소의 확보

▎대상지의 입지와 규모

미조성 완충녹지였던 용현녹지가 공동체정원 대상지로서 활성화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입지와 규모의 특징에 있다. 첫 번째 입지 특성으로, 용현녹지의 반경 1km이내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밀집되어 있어 인구밀도가 높다는 것이다. 둘째로, 학교 및 교육시설 5개가 반경 500m이내에 위치해 있을 정도로 가까이 밀집되어 있어 어린이와 청소년 유동인구가 많고, 생태교육에 대한 수요

처가 많은 것 또한 두레정원 활성화에 영향을 주었다. 마지막으로, 단거리에 용정근린공원과 또 다른 큰 규모의 완충녹지(자연숲 놀이공원)가 위치해 있어 보행동선의 연결성이 좋아 주민들이 공원녹지를 확장·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용현녹지는 약 5,600평 규모의 완충녹지로, 2015년 당시 행정안전부 마을공동체정원 조성사업에 선정된 어떤 대상지보다도 큰 규모를 자랑하였다. 이는 정원디자인에 있어서 주민들의 요구를 다양하게 반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 이용 측면에서도 쾌적한 환경의 생활권 근린공원[45]이나 도시농업공원[46]을 조성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여 주민 건강 및 여가생활에 대한 복지 증진 효과를 만들어 낸다.

▎지역사회의 필요 - 용현5동의 공간적 현황과 용현녹지에 대한 지역문제

두레정원은 반경 1km이내에 1천 세대 이상 대규모 및 중형 아파트단지와 오피스텔 13개가 위치해 있다. 특히 공동체정원 조성사업 당시인 2016년에는 4,000세대 규모의 아파트 대단지가 건립되어 이주민이 대거 유입되는 과정에 있었으며, 최근 2021에는 600세대 아파트단지가 추가로 들어섰다. 이 뿐만 아니라 2023년에도 약 2000세대 규모의 아파트단지가 새로 준공될 예정에 있다. 이러한 공간적 현황은 아파트에 입주하는 이주민과 원주민간의 갈등 및 이질화 현상에 대한 지자체의 우려를 초래하였으며, 지역 내 커뮤니티공간 조성의 필요성을 증대시켰다.

또한 용현5동은 아파트 중심 주거형태의 특성상 거주민들의 외부공간에 대한 수요와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 하지만 세대수와 인구밀도가 높은

45) 근린생활권 근린공원은 주로 인근(반경 500m 이내)에 거주하는 자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이다. 설치기준에는 제한이 없으나 유치거리는 500m 이하, 설치 규모는 1만㎡ 이상으로 한다. (참고: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4-1-3.)

46) 도시농업공원은 도시농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원으로, 설치기준·유치거리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면적은 1만㎡ 이상이어야 한다. (참고: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4-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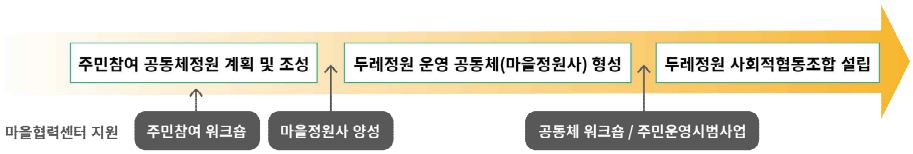
것에 비해 공원 기반시설은 현저히 부족했다. 따라서 지자체는 대규모 이주민 유입에 의해 와해된 지역 공동체성 회복과 부족한 공원녹지 확충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던 것이다.

오랜기간 미조성 완충녹지로 방치되어 있던 용현녹지는 무분별한 개인텃밭 운영과 각종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로 많은 민원을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아파트단지와 학교시설이 밀접하게 위치한 용현녹지가 점차 우범지역으로 변모하고 민원이 나날이 심화되자 지자체는 이러한 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대안으로 공동체정원을 조성한 것이다.

② 공동체 중심의 행정 지원

▌공동체 프로그램을 통한 주민참여 구조 마련

두레정원의 경우 지역 내 마을공동체를 지원하는 마을협력센터(시민공동체과)가 사업을 주도하여 조성되었다. 해당 부서는 공동체정원 조성사업을 하나의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으로 인식하여 주민들이 함께 만들고 가꾸는 공동체정원을 목표로 하고, 주민참여워크숍과 정원 운영 공동체 형성에 중점을 두었다.



[그림 4-37] 두레정원에 대한 마을협력센터의 공동체 중심적 지원

정원 계획 단계에서 진행된 주민참여워크숍은 행정안전부의 사업추진체계에서 안내한 것과 같이 주민대표 및 관련 주체들로 구성된 국민디자인단이 함께 정원조성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마을협력센터는 주민들에게 커뮤니티가든의 개념과 조성의 필요성을 안내하고, 주민워크숍 전반에 공원녹지과와 같은 행정협력주체를 참여시켜 사업 추진에 있어 공동체의 가치에 함께 공

감하고 사업의 방향성을 잡아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 (행정안전부가 안내한 국민디자인단 구성 내용과) **마을공동체 사업의 프로세스가 거의 비슷하게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걸 공동체정원 조성사업에 적용을 한거죠.** 주민참여워크숍의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앞으로의 계획을 안내하고, 서로 인사도 하고. 그 다음에 공동체정원에 대한 문제를 같이 나누고. 현장에 같이 가서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중략) **공원녹지과 담당 부서에게 참여하시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식으로 주민공동체가 (정원 조성 및 운영을) 진행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다고 전달하고.** 그러면서 이제 공원녹지과도 마음이 좀 변해서 '이걸 어쨌든 잘 좀 지원해줘야 되겠다' 했던 거죠. (관련 공무원 C)

동시에 마을협력센터는 사후의 주민주도적인 정원 운영·관리체계를 위해 마을정원사 공동체를 형성하였다. 그 방법으로 정원교육프로그램('마을 숲 정원교실')을 운영하여 매 기수 수강생들이 동아리를 형성하도록 하고, 그들이 정원활동을 통해 두레정원 운영공동체로 결합되도록 한 것이다.

> 이제 앞으로 그럼 정원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또 그것을 지속가능하게 하려면 주민공동체가 튼튼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원 교실을 해서 마을 정원사 양성과정들을 진행했어요. (관련 공무원 C)

▌정원공동체 자립을 위한 지원 - 공동체 워크숍, 주민운영시범사업 시행

마을협력센터는 사업종료 이후에도 정원공동체의 확장과, 단계적인 자립을 위한 공동체 프로그램을 구상하였다. 특히 공동체 역량강화 워크숍을 주관하여 마을정원사 공동체가 두레정원의 비전을 함께 설정해 연차별 실천목표를 수립하도록 하고, 향후 주민단체 설립을 위한 교육(보조금 사업 실무 및 회계교육, 지원내용 안내 등)을 진행하였다.

더불어 마을협력센터는 마을정원사들이 정원활동을 통해 형성한 유대감과 정원에 대한 애착을 가치 있게 평가하여, 이들이 두레정원을 기반으로 교육공동체로서 자립할 수 있는 사업적 발판을 마련하였다. 두레정원을 체험 및 실습장소로 활용하여 주민대상 생태 및 도시농업 교육사업을 시범운영했던 경험

은 현재 두레정원 사회적협동조합 활동의 발판이 되었다.

③ 주민들의 학습 참여도 및 리더의 역량

▎공동체의 높은 학습 참여도

두레정원 활성화의 결정적 요인은 주민들의 참여도와 역량이었다. 특히 정원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마을정원사로 위촉된 주민들의 높은 학습의지 및 참여도는 교육서비스업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발전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 **처음에는 가드닝에 관심을 갖고 와서 교육 듣게 되었는데, 참여하면서 '이런 것도 있구나' 하면서 조금 더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교육해주신 교수님이 이쪽에 재능이 있는 것 같으니 더 해보라고 권유도 해주셔서 경희대에 가서 화예실내조경 교육자과정 1년 수련하고. 3명 정도 같이 했어요. **재미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원예도 재미있는데 화예가 조금 더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배우고 있거든요.**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 B)

> 지금까지 공모사업에 지원해서 떨어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타이틀로만 선정되는게 아니라, 관련 자격증이 다 첨부가 되어야 해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자격증을 여러개씩 다 갖고 있으니까.** 떨어질 수가 없는 거지.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A)

▎**공동체 리더의 높은 역량**

두레정원 사회적협동조합의 이사장은 현재 화훼분야 자영업자로, 가드닝에 대한 관심을 갖고 '마을 숲 정원교실' 1기를 수료하여 공동체정원 조성 작업 전반에 참여하였다. 이후 마을정원사 공동체의 대표로서 두레정원을 중심으로 한 민관협치를 이끈 중심인물이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에 앞서서는 원예관리사, 유기농업기능사,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관련분야에 대해 적극적인 학습의지를 갖고 있다. 특히 교육사업을 통해 경험하는 자부심 및 자긍심을 원동력으로 삼아 활동하고 있다.

도시농업도 계속 최신 트렌드의 농법을 공부해야 되고. 원예 쪽도 그렇고. 또 생태・환경 수업도 해야 되니까…. **계속 공부 안 하면 도태 돼요.** (중략) **근데 이게 좋아서 하는 일이지**, 누가 돈 때문에 억지로 시켜서 하는 거면 못 할 거예요. 내가 수업 가르치면서 동네에 지나갈 때 아이들이 "선생님~" 그러면 **남편하고 아이들한테 뿌듯하잖아. 선생님 소리 듣는 게. 그러면 자부심,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지.** 그래서 이 일들을 시작을 하게 된 거고, 지금까지도 또 뒤쳐지지 않으려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A)

또한 과거 법인회사에서 경리 부장직을 맡았던 경험으로 기본적인 행정 및 회계업무 능력이 있어 사회적협동조합 운영을 위한 실질적인 경영업무를 모두 감당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천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의 마을컨설턴트, 인천시 시민감사관, 그리고 미추홀구 마을활동가로 활동하였으며, 현재는 지방자치 강사로도 행보를 보인다. 이러한 다양한 지역사회 활동 경험은 리더로서 조직의 방향성과 운영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구체적인 가치관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효과적인 역량으로 판단된다.

마을공동체일 때는 봉사만 하면 되니까 아무 부담이 없었는데,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든 이후에는 사회적인 가치를 위해서도 일을 해야 되고….** 그 의미에는 우리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있지만, **'우리 선생님들한테도 어느 정도의 가치 창출을 해줘야 된다' 라는 의무감**이 생기는 거죠.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A)

마을공동체들이 없어지는 이유들을 가만히 보면 다 내부적인 갈등 때문이거든요. (중략) 그리고 서로 소통도 잘 돼야지만, 그걸 끌고 가는 **리더가 올바른 주관과 신념을 갖고 마을공동체의 방향성을 세우지 않으면….** 그런 마을공동체들은 거의 다 1~2년 안에 문 닫더라고.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A)

두레정원 사회적협동조합은 총 두 차례 와해될 위기에 당면하였었다. 첫 째는 2019년 초,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앞두고 주민운영시범사업 운영을 지도하던 중간지원조직이 정원사들과의 의견 갈등으로 협력을 중단한 시점이다. 정원 및 생태교육을 주관할 전문가 단체가 떠나게 되면서 지자체가 해당 시범사업과 마을정원사들의 교육활동 지원을 종료하고자 한 것이다. 이 때 마을정

원사들이 다시금 용기내어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중간지원조직의 도움 없이 교육공모사업을 운영하며 자립할 수 있었던 데에는 리더의 결단력과 추진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두 번째는 2020년에 두레정원이 용현도시농업공원으로 도시관리계획상 변경되어, 두레정원 담당주체가 시민공동체과에서 공원녹지과로 이관된 시점이었다. 공원녹지과에게 두레정원은 더 이상 공동체정원이 아닌 도시농업공원 사업이 되었으므로, 그 안에서 활동하는 마을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크게 축소된 것이다. 두레정원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이에 대해 구청장을 직접 대면하여 정원공동체가 실질적인 정원운영주체로서 활동을 유지하고,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공동체정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④ 재원 확보

마을협력센터는 두레정원 운영·관리에 대한 활동 전반을 마을공동체 활동으로 인식하여 공동체 지원 예산을 통해 정원공동체의 활동 재원을 확보해왔다. 사실상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이전에는 주민들이 자원봉사 말고는 정원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 명분이 없어 자원봉사자 조례에 따라 소액의 간식비조차 지원받을 수 없는 실정이었다.

또한 대규모 완충녹지에 조성된 두레정원은 지자체의 정원 운영 담당부서와 토지 관리 담당부서 간에 역할이 분리되어 있어 장기적인 공동체정원 운영을 위한 원활한 공공지원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도시공원으로의 정식 변경을 통해 보다 명확한 운영 및 운영·관리 재원을 확보한 것은 공동체정원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기대해볼 만하다.

▌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한 공동체의 활동재원 마련

이러한 맥락에서 마을정원사들이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여 일종의 경제조직을 설립한 것은 그들이 도출한 하나의 대안이었다. 마을정원사들은 사회적협

동조합 설립을 통해 지자체 및 교육청의 교육공모사업, 그리고 어린이 생태체험프로그램 운영사업까지 활동범위를 확장할 수 있었다. 직접 애정을 갖고 가꾼 공동체정원을 활용하여 스스로 일자리를 마련해 낸 조합원들은 작은 규모라도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며 좋아하는 정원가꾸기 활동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에 만족감과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 사회적협동조합에 참여한 전후로 변화가 많죠. 저는 **직장 다니다가 그만두고 집에 있었는데, 여기 와서 정원사분들이랑 같이 어울리고 또 힐링도 하면서** 큰 돈은 아니어도 밥 사 먹을 수 있는 **용돈 정도는 조금씩이라도 받고 하니까 훨씬 좋죠.**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 B)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한게 조합원들에게 신의 한 수 였죠. **일자리하고 연계되고, 심지어 더 큰 공모사업에 도전할 수 있으니까.**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A)

▎도시농업공원으로의 전환을 통한 운영재원 확보

두레정원이 도시관리계획상 완충녹지에서 도시농업공원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국가적인 예산 지원을 통한 운영 및 유지·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시적인 사업으로 조성되어 그 이후로는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유동적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국내 공동체정원은 많은 경우 장기적인 존치여부가 불확실한 실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두레정원이 유사한 목적과 기능을 지향하는 도시농업공원으로 지정되어 지자체 전담팀이 마련되고 명확한 운영·관리 재원을 확보하게 된 것은 해당 사례만의 특별한 활성화 요인이다. 다만, 2020년 이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거리두기 정책으로 용현도시농업공원으로서의 재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변화 여부를 파악하는데에는 아직 무리가 있다. 향후 도시농업공원으로서 계획된 운영사항은 도시농업 전문기술 지원, 도시농업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과 같이 공공주도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도시농업 교육과 공원 관리담당 직원 고용 등 공공일자리 확보가 있다.

2. 주민주도적 두레정원 운영의 한계

(1) 두레정원에 대한 민-관 협력체계 확립의 어려움

주로 공공용지에 커뮤니티가든을 조성하는 국내의 경우, 대상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과 직접 참여하는 주민공동체의 협력관계는 불가피하다. 한편 이러한 커뮤니티가든 운영 협력체계를 면밀히 살펴보면, 행정지원하는 지자체 내에서도 부서별 담당업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 두레정원의 경우, 공동체정원 조성사업을 주도한 것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담당의 시민공동체과(마을협력센터)이며, 이에 완충녹지 관리를 담당한 공원녹지과가 필수적으로 협력하고, 또한 주민운영주체로서 두레정원 사회적협동조합이 협력한 구조이다. 세 주체는 각자의 역할을 갖고 두레정원을 운영·관리하였으나, 때때로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는 각 주체가 공동체정원에 대해 바라보는 가치와 역할에 조금씩 차이가 있고, 이에 따라 각자가 가진 운영권한의 크기도 변화하기 때문이다.

우선 행정기관 내 부서 간 협의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는 두레정원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당시 고유번호증 발급절차에서 드러나기도 하였다. 구청 소유의 공공용지를 거점공간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구청 측에서 작성해야 하는데, 담당 부서를 명확히 하지 못해 수개월간 보류된 것이다. 마을정원사 공동체를 담당·지원한 것은 시민공동체과이지만, 그들의 활동 거점이 두레정원이기에 토지를 관리하는 공원녹지과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할지 혼선이 발생한 것이다.

> 사업자등록증을 내려면 두레정원이 미추홀구청 부지니까 구청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써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서로 미루는 거죠. **땅은 공원녹지과가 관할하고 있었고 우리는 시민공동체과 소속이었고.** (중략) 그리고 당시에 또 완충녹지에 정원시설을 설치한 것 때문에 두레정원이 인천시 감사에 걸렸어요. 그래서 공원녹지로 변경을 준비하는 과정이었고. 그렇다보니 이제 공원녹지과가 저희를 케어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아마 공원녹지과는 싫었던 거죠. 암튼 그래서 2019년도 3월에 설립인가증은 받았으나 임대차계약서를 받지 못해서 '두레정원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당시엔 아무 사업도 할 수가 없었어요.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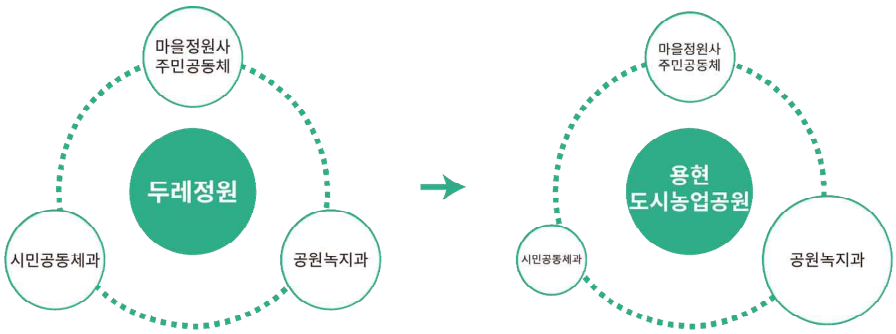
한편, 이때 또 다른 제약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이는 법적으로 완충녹지 또는 도시공원에 민간단체가 주소지를 두고 활동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며, 결국 시민공동체과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재개발 예정지의 주소를 공익적 목적으로 위탁받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거점공간 및 주소지에 관해서도 활동의 제약을 느낀 두레정원 사회적협동조합은 정원의 실질적인 운영·관리 주체로서 보다 명확하게 이용 권한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구청과 의논하기도 하였다. 특히 공동체정원을 사회적협동조합에게 운영 위탁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행정안전부, 국토관리청 등에 질의를 하며 가능성을 모색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이미 두레정원이 도시농업공원으로 전환된 시점에서 일반 비영리단체에게 위탁 운영을 하는 것은 국내 사례가 전무할뿐더러,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입찰 등의 복잡한 행정 절차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저희가 한 단체에게 공원이나 부지 사용에 대해 해 드릴 수 있는게 없어요. 만일 비영리단체나 누구에게든 위탁을 하고자 한다고 하면 입찰을 진행해야 할 것이고, 행정적인 절차가 있어서요. **한 단체를 딱 집어서 저희가 위탁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이나, 법적으로 허용되는 사항이 없어요.** (관련 공무원 D)

(2) 도시농업공원으로의 전환에 따른 공동체 가치 축소

지역 공동체의 가치와 민의를 중시하는 지자체 시민공동체과(마을협력센터)는 두레정원의 초기 조성단계부터 주요 담당부서로서 정원공동체와 공원녹지과의 중간지원조직으로 역할하였다. 이 시기에는 두레정원을 중심으로 세 주체가 유사한 크기의 주권을 갖고 협력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2020년에 공동체정원이 도시농업공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주요 담당부서가 공원녹지과로 이관되어, 시민공동체과의 역할이 크게 감소하였다. 이로써 공원녹지과의 주도

권은 더욱 확대되었으며, 두레정원 사회적협동조합의 입지는 자연스럽게 축소되었다. 따라서 민-관의 세 주체가 유지했던 협력체계는 점차 불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두레정원 사회적협동조합과 공원녹지과가 각각 가지고 있는 도시농업공원 운용 방향성 및 가치가 합의되지 않을시에는 지속가능한 공동체정원의 운영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



[그림 4-38] 두레정원과 용현도시농업공원 운영주체의 주도권 변화

아무래도 시민공동체과가 관리를 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소중하게 받아들이고 항상 물어보고 결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공원녹지과는…. (중략) 여기 이름이 용현도시농업공원이 됐다는 것도 6개월이 지나서 알았어요. 우리는 계속 두레정원인 줄 알고 있었는데. **공원녹지과가 생각하는 마을공동체는 차원이 달라요. 그냥 하나의 사업으로 봐요. 마을공동체 그런 거 필요 없어.**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A)

이전에 행안부 사업으로 **공동체정원을 조성한 것은 시민공동체과에서 주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무관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무래도 그전부터 계속 운영하셨던 분들이고, 거기에 대한 이해나 애정이 있으신 분들이라서. **도시농업공원이 완성이 되면 교육 부분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랑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협업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렇게 지금 배려 차원에서 생각하고 있어요.** (관련 공무원 D)

관 주도의 운영구조가 심화될수록 공동체정원을 거점공간으로 활동하는 주민조직의 정체성과 목적성은 약화될 수 있으며, 두레정원 사회적협동조합은 이미 지자체의 태도에 따라 조직의 존폐여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용현도시

농업공원으로서의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민-관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존재적 가치를 함께 확인하고 협력관계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 공원녹지과 도시농업팀에서 저희한테 텃밭을 사용할 때 **우선권을 주겠다고 말은 하시지만, 전혀 확실한 사항은 없어요.** 관리동에도 구청에서 고용한 직원이 책상 놓고 근무할텐데, 그 공간을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하는 데는 제약이 있겠죠? (중략) 그동안은 두레정원 사회적협동조합이 정원 관리를 도맡아 했기 때문에 구청 측에서 우리가 정원을 사용하도록 우선권을 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안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꽃도 다 심어주고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정원봉사를 하긴 하지만 **옛날만큼 관여하기엔 제한이 생겼죠.** 그래서 저도, 우리 선생님들도 **이 사회적협동조합이 2~3년 안에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A)

(3) 공동체정원 운영 주민조직으로서 사회적협동조합의 적절성

▌조직 내 역할 배분·조정의 어려움

현재 두레정원 사회적협동조합 조직 내에는 총무가 공석이다. 이사장과 각 정원담당 및 교육담당 부대표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조직 운영 및 행정 처리업무에 대해 어려움과 거부감이 있어 지원자가 부족하다. 두레정원 사회적협동조합의 이사장직 임기는 2년에 1회 연임이 가능했지만, 최근 정관을 개정하여 4년 임기, 1회 연임으로 변경하였다. 이사장 A씨는 2019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이후로 3년째 직위를 맡고 있으며, 조직 운영 외에도 공모사업 추진 업무와 비영리법인으로서의 행정업무 등이 과중되어 피로감을 호소한다.

> 이곳의 문제점은 제가 공모제안서를 혼자 다 쓴다는 것이에요. 며칠 날밤 새우면서. 그래서 공모사업은 제가 이제 가능하면 자제하죠. **매일 비슷한 제안서 쓰고 사업 정산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또 **사회적협동조합협의회, 구청, 행정복지센터, 교육청, 사회적경제진흥원 등등 여기저기서 서류 내라는 게 많아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은 서류 작성하고 엑셀 작업하는 것들을 다 겁내고 있고.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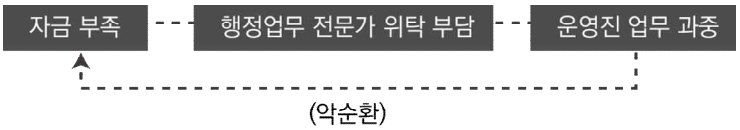
▌교육서비스 업종으로서 운영자금 마련 한계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비영리법인격을 부여받은 조직이며, 운영과정에 있어 이와 관련한 크고 작은 행정 처리 비용이 발생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매년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세무 조정을 통해 법인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이 과정에서 기장 수수료가 발생하고, 정관을 수정할 때에도 공증비와 등록세 등이 발생한다. 대부분의 사회적협동조합은 세세한 업무처리에 전문적 경험과 인력이 없기에 금액을 지불하여 세무사나 법무사 등을 연계하는 방법을 택한다.

두레정원 사회적협동조합은 조직운영 및 활동비를 확보하고자 공용자금을 마련하는 시도도 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하였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조직의 사업 이윤이 적기 때문이다. 두레정원 사회적협동조합의 2021년 사업결산보고서[47]에 따르면 당기순손익은 마이너스를 띄며, 회계연도의 영업손실[48]이 크게 나타난다. 이는 수익활동보다 지역사회 및 취약계층 기여활동을 주요 목적으로 한 사회적협동조합의 특성상 납득할 수 있는 손익계산으로 볼 수도 있으나, 잉여 이익금으로 공용자금을 운용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는 점은 조직 운영에 어려움을 가져온다.

> **2019년도에 각자 20%씩 떼어서 공용자금을 마련해보자고 합의해서 서약서를 받았었어요.** 그걸로 연말에 다같이 꽃꽂이 같은 배우고 싶은 것, 만들고 싶은 작품들을 재료를 사서 했죠. **그런데 열심히 강사활동 해서 20% 떼어냈던 선생님들의 불만이 폭주하는 거예요.** 왜 어떤 선생님들은 가만히 놀고 있다가 같이 이런 특혜를 받아야 하느냐, 20%는 너무 과한 것 같으니 앞으로는 10%만 떼자고요. **근데 만 오천 원 받는데서 천오백 원씩 떼어가지고 뭘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A)

47) 2021 협동조합 사업결산 보고서(두레정원 사회적협동조합) (출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48) 영업손실은 매출총이익에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총이익보다 판매비와 일반관리비가 클 경우에 나타난다.(참고: 매일경제용어사전)



[그림 4-39] 두레정원 사회적협동조합의 자금 부족에 따른 운영한계

사회적협동조합 운영 중 한계에 직면하게 되자 이사장 A씨는 대안으로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떠올리기도 하였다. 하지만 교육서비스 업종은 그 자체로 어느정도의 수익적 한계가 예상되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영리활동을 추진하기에는 정원에 대한 관심과 봉사를 최초 목적으로 결합한 조합원들이기에 큰 의지가 없다고 이야기한다.

교육사업을 위주로 하는 곳은 대부분 사회적협동조합 형태예요. 게중에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으로 승화시키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근데 그런 곳은 다 3~40대 젊은 친구들이 하죠. **우리는 이미 나이도 있고, 꽃이 좋아서 그냥 순수하게 봉사 목적으로 모인 5~60대 경력 단절 전업주부들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돈을 벌기 위해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뭔가를 해보겠다는 의지까지는 없죠.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A)

▌공동체정원 기반 수익활동의 한계

제품 생산 및 판매업종의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 사회적경제지원센터나 협동조합협의회로부터 판로 개척을 위한 장터운영 및 제품 홍보 및 판매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교육 및 문화서비스를 주 업종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위한 경제적 지원과 담보된 혜택은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교육을 위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아무래도 교육청이나 구에서 하는 공모사업 밖에 지원을 못하는데…. 저희 경우는 정원이나 텃밭 사업을 하니까, **관련 공모사업이 있을 때 우리에게 우선권을 조금 보장해주거나, 그런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보니까 다른 사회적기업들한테 밀리는 거죠.** 게다가 큰 공모사업들은 지원자격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직원이 있어야 된다는 규정이 붙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상근직 직원이 없고, 직원 월급 줄 돈도 없잖아요. 그러니 도전할 엄두를 못 내죠.**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A)

더불어 두레정원 사회적협동조합과 같이 합법적인 영리활동이 가능한 거점 공간이 없을시에는 업종을 다양화하는 것부터 한계가 있다. 실제로 두레정원 사회적협동조합은 커피찌꺼기를 활용한 친환경 퇴비 사업이나 하바리움 용액에 채집한 꽃을 넣어 공예품을 제작하는 사업과 같이 다른 수익활동을 시도해 본 경험이 있으나 곧 무산되었다. 이는 활동거점지인 완충녹지에서 영리활동의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원 외부공간에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공간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4) 소결

주민주도적 두레정원의 한계는 커뮤니티가든 운영에 대한 민-관 협력체계 확립의 어려움, 도시농업공원 전환에 따른 공동체 가치의 축소, 그리고 커뮤니티가든 주민운영주체로서 사회적협동조합의 적절성에 있다. 이 중 정원 운영 거버넌스의 불균형 문제와 공동체 가치의 축소는 국내 도시 커뮤니티가든 운영의 특수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한편, 커뮤니티가든 주민 운영주체로서 두레정원 사회적협동조합이 가지는 몇 가지 한계점은 조직 내 역할 배분·조정, 교육서비스 업종으로서 운영자금 마련, 공동체정원 기반 수익활동에 대한 어려움으로, 주로 조직의 경제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한계이다. 이는 기존 선행연구의 분석결과,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속가능한 지역기반 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에 신뢰감 있는 회원관계 유지의 어려움 및 이해관계 대립, 경영능력 및 전문인력 부족, 새로운 아이템 발굴의 어려움 등이 있고, 지역사회 기여활동 감소 원인으로는 수익성 부족에 따른 여유재원 확보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서(임상연 외5, 2016) 유사성을 보인다. 이는 국내 사회적협동조합이 경험하는 보편적인 한계를 두레정원 사회적협동조합도 공유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제5장 결론

1절.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커뮤니티가든은 근린생활권 내 녹지자원 확보, 주민 공동체의식 증진, 건강한 먹거리 생산 등의 효과로 현대 도시문제 해결의 장으로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는 정부 및 지자체가 주관하는 조성사업을 통해 양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사후 정원 운영 현황에서는 지속성의 한계가 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주민들의 높은 참여도를 유지하는 데에 실패하는 양상을 보인다. 최근 그 보완책으로서 조성된 커뮤니티가든을 중심으로 주민 공동체가 운영주체로 역할하고 활동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본 연구의 3장에서는 지역 공동체를 주요 대상으로 한 국내 커뮤니티가든 조성사업을 주관부처별로 조사하여 각각의 추진내용과 사후 운영계획을 지속가능성의 세 범위, 즉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사업 주체는 경기도와 행정안전부, 그리고 산림청(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다. 분석의 요지를 종합하면, 각 사업은 커뮤니티가든 조성계획에 있어 경제적 활용에 대한 방안을 가장 소극적으로 제시하였고, 사후 운영계획은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주로 지역사업 연계과 프로그램 및 행사 운영 등 행정주도적이고 성과 위주의 방안을 제시하는 현황을 보였다.

본고의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커뮤니티가든 사례는 2015년 행정안전부 공동체정원 조성사업 대상지 중 한 곳인 인천시 용현동 두레정원으로, 약 6년간 주민주도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특히 주민 운영주체가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

하여 정원을 거점으로 생태교육서비스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4장에서는 용현동 두레정원과 그 운영 공동체인 '두레정원 사회적협동조합'의 형성 및 전개과정을 관련 사업자료 및 주요 참여주체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아카이빙하였다. 크게 공동체정원의 조성 및 운영, 그리고 두레정원 사회적협동조합의 형성 및 활동으로 시기를 나누어 단계별 민-관 거버넌스 관계와 참여주체별 역할을 분석하였다.

시계열적으로 전개된 두레정원의 조성 및 운영 현황을 통해 살펴본 결과,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크고 작은 성과가 발견되었으며, 이에 대한 활성화요인은 적합한 장소의 확보, 공동체 중심의 행정 지원, 주민 참여도, 그리고 재원 확보로 볼 수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공동체 중심의 행정 지원, 즉 정원의 계획단계에서 정원공동체 형성에 대한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방안을 마련한 것은 커뮤니티가든의 지속성을 크게 증진시켰다.

두레정원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 설립을 통해 주민조직의 공신력을 확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마을정원사들이 함께 교육활동을 하며 역량을 강화하고 자긍심을 경험하는 등 정원공동체로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들이 정원활동에 대한 자율적인 원동력과 재원을 생산을 할 수 있었던 점은 공동체정원의 지속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반면 두레정원에 대한 두 가지 한계점이 관찰되기도 하였다. 특히 커뮤니티가든의 민-관 거버넌스에 대한 한계에는 국내 도시 커뮤니티가든 운영의 특수성이 투영되어 있으며, 두레정원 사회적협동조합의 조직 운영에 관한 한계점은 주로 경제적 지속가능성과 관련이 있어 국내 사회적협동조합의 보편적인 한계점과도 상통하는 모습을 띄었다.

본 연구는 질적연구 특성상 연구자에 의해 결론으로 도출된 각 요인들과 그 안의 상관관계에 대한 데이터가 정량화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하지만 관련 당사자들과 진행한 심층인터뷰를 바탕으로 국내 도시 커뮤니티가든의 전개 양상과 그것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형성 및 활동

양상을 면밀히 살펴보았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사례의 범위만 연구대상으로 다루었다는 점과 사례연구로서 특수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일반화의 한계가 있지만, 단일사례연구로서 가지는 미시적 관점에서의 연구 의의가 있다. 특히 이제껏 연구되지 않았던 국내 도시 커뮤니티가든 운영 거버넌스의 불가피한 문제상황들에 대한 논점을 제시하고, 주민운영주체로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대안이 가지는 가능성, 그리고 해당 조직의 보편적 또는 특수적 양상을 분석하였음에 의의가 있다.

두레정원은 인천시의 첫 번째 공동체정원으로서, 지자체와 주민조직이 협동하여 지역사회에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가치를 창출한 우수한 민관협치 사례로 대외적인 평가를 받았다. 현재 두레정원은 '용현도시농업공원'으로 공식 변경되었으며, 이에 따라 지자체 소관 부서가 이관되어 협력체계상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 무엇보다 마을정원사들이 사회적협동조합을 형성하도록 조력한 시민공동체과의 역할이 크게 축소되면서 정원공동체가 운영주체로부터 배제될 위기에 놓였다. 도시농업공원으로의 전환은 기존 공동체정원의 성질을 보존한 행보로 볼 수 있으나, 지자체 도시농업팀이 공원의 운영과 유지·관리를 전담하는 운영구조는 두레정원과 매우 다른 전개를 나타낼 것이다. 두레정원의 조합원들이 향후 2~3년 내로 조직의 수명을 예측하는 것은 이와 같은 행정주도적 운영에 대한 한계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일 것이다. 복합적 가치를 가진 지역사회의 자산으로서 커뮤니티가든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다원화된 운영주체들의 역할과 가치를 인식하고 또 적절한 형태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커뮤니티가든 운영에는 명확하고 일반화된 정답이 없다. 다만 해당 지역사회와 공동체를 위한 정원이라는 그 본질에 초점을 맞추고 민주적으로 운영방안을 개선해 나간다면, 커뮤니티가든은 우리가 마주한 도시문제를 건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자원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참고문헌

[학위논문]

김미향. (2011). 도시 내 공지를 활용한 커뮤니티가든 모델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애니. (2017). 창신동을 기반으로 한 도시재생과정과 사회적경제 조직의 상호작용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노희영. (2012). 도시텃밭의 공동체 활성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상아. (2019). 저층주거지 내 마을정원의 도입 및 변천과정 연구 : 안산 석수골 마을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함연수. (2021). 정릉 교수단지의 정원가꾸기를 통한 커뮤니티 의식 형성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연구 및 보고서]

김진덕, 강내영, 이은수, 문보희, 김건우. (2019). 서울시 도시농업 활용 가능지 실태조사 용역 보고서. 서울특별시

송수정, 정미애, 진혜영, 이경미, 조민지, 류지영, 박지원, 변지우. (2020). 정원에서 만난 도시재생이야기. 국립수목원

이애란, 박재민, 김응주, 박지호, 장푸천, 정명일, 김광진, 한승원, 정나라. (2020). 사회적 통합을 위한 공동체정원 디자인가이드라인. 농촌진흥청

이양주(2021). 우리 정원에서 시작하는 정원도시. 경기연구원

임상연, 박세훈, 정우성, 임지영, 이민정, 이윤주. (2015). 도시활력 증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조직 활용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진혜영, 송수정, 이경미, 정미애, 조민지, 하유정, 현종영. (2020). 2020 정원산업 요소 및 현황. 국립수목원 수목원정원연구센터

최정민, 이애란, 정나라. (2020). 사회통합유도형 도시커뮤니티가든의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농촌진흥청

[학술논문]

김민선, 정윤남, 김세용. (2015). 공동주택단지 내 텃밭 운영 현황고찰 및 시사점.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31, 143-54

김소은, 오주석, 김세용. (2016). 커뮤니티 가든 활성화를 위한 공동주택단지 내 외부공간 선호도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17, 57-70

김채린, 장준호. (2017).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지역사회발전학회논문집. 42(2), 141

김혜주, 최정민. (2017). 국내 도시 커뮤니티가든의 실태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7(1), 48

박선희. (2014). 마을공동체 사업 성과 측정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49, 285-306

박은지, 이연숙. (2011). 도시 내 주민참여형 커뮤니티 가든 계획의 초기단계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35-140

박은지, 이연숙, 안창헌. (2011). 커뮤니티가든의 사회적 자본 관점 특성 연구.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논문집, 11(6), 117-125

신명진, 최정민. (2018). 북미 4개 도시 커뮤니티가든 사례조사에 의한 역할과 특성 비교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46(6), 26-40

심주영, 조경진. (2015). 도심주거지에 나타나는 일상문화로서의 도시정원가꾸기에 대한 고찰- 용산구 용산동2가 해방촌을 중심으로. 한국조경학회지. 43(2), 1-12

여혜진, 박성남, 김민지. (2015). 사회적 경제조직의 지역공동체 역량 형성에 관한 연구 - 생활환경개선사업을 수행하는 주민주도형 사회적 경제조직을 중심으로. 도시설계. 16(4), 47-62

오강임, 김인호. (2018). 취약계층 자활증진을 위한 커뮤니티가든 활동 유형별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한국정원디자인학회지, 4(2). 117-24.

오주석, 민병학, 최정민, 김세용. (2018). 지속가능한 공동주택단지 커뮤니티 가든 조성 및 운영방안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34(4), 57-67

유두호, 엄영호. (2020). 사회적 협동조합의 사회적 가치 창출 영향요인 분석 : 조직내부요인과 지방정부 역량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10, 59-92

이광희. (2021). 정원문화의 변천과 정원도시조성 추진 전략 수립. 한국산림경제학회

이나래, 이애란. (2018). 커뮤니티 가든 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국내 정원 관

련 가이드라인 사례 연구. 한국조경학회 학술발표논문집, 57
이성빈, 양성범, 최정민, 이춘수. (2019). 원예 활동가와 이용자의 도시 커뮤니티가든 이용행태와 인식 비교. 한국유기농업학회. 27(4), 409-24.
이애란, 박재민. (2018). 주민참여형 커뮤니티정원 조성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국외 사례 비교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46(3), 117-129
이종일, 권진욱. (2017). 도시농업공원 조성을 위한 전략 및 기본계획 연구 - 대구광역시 고산골마을을 대상으로. 한국조경학회지. 45, 23-34
정나라, 정명일, 한승원, 김재순. (2017). 마을만들기 사업을 위한 공동체정원 조성에 관한 연구. 인간식물환경학회지, 20(1), 7-17
조인숙, 최정민. (2019). 지속가능한 공동체정원을 위한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 국내외 공동체정원 사례를 중심으로. 주거환경한국주거환경학회지, 17(4), 91-107
최정민, 박동찬, 김유나. (2018). 국내 커뮤니티가든의 방향성 설정에 관한 연구. 주거환경(한국주거환경학회논문집), 39, 83-104
최정민, 서병학. (2016). 대도시 중고령층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근교 복지형 커뮤니티가든 모형개발에 관한 연구. 주거환경(한국주거환경학회논문집). 14(1), 97-116.
한승원, 남복희. (2015). 마을 정원을 통한 도시커뮤니티활성화 전략.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15, 1654
홍효석. (2022). 사회적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 문화기술의 융합, 8(1), 93-104
Bice MR, Ball J, Bickford N, Bickford SH, Hollman A, Coughlin A, et al. (2018). Community Gardens: Interactions between Communities, Schools, and Impact on Students. Health Educator. 50(1), 2-10

[단행본]

Claire Nettle. (2014). Community Gardening as Social Action (1st ed.).
Jeffrey Hou, Julie M Johnson, and Laura Lawson. (2009). Greening cities, growing communities
임업, 김동현. (2013). 사회적 기업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집문당

[웹사이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https://www.coop.go.kr/home/index.do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AURUM) 홈페이지
http://www.aurum.re.kr/Policy/PolicyOffice.aspx?pcode=B05

원미1동 156번길 ‘정이 넘치는 마을길로 재탄생’. 「부천타임즈」,
http://www.bucheon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186

시흥 옥터로길, ‘마을 정원’으로 재탄생. 「일간경기」,
https://www.1g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031

경기정원문화박람회, 마을정원 조성해 지역재생. 「한국조경신문」,
http://www.la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26178

인천시 민관협치 우수사례대회 ‘최우수·장려상’ 겹경사. 「경인일보」,
https://www.wikitree.co.kr/articles/380067 참고

인천 남구, 2015년 공동체정원 공모사업 최종 선정. 「일간경기」,
http://www.1g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991

남구, 용현녹지공동체 정원 ‘마을 숲 가드너’ 모집 「인천in뉴스」,
http://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3406

인천준법지원센터, 두레정원 꽃길 조성 지원. 「환경포커스」,
http://www.ecofocus.co.kr/news/article.html?no=12378

마을공동체의 삶을 변화시킨 6천평 ‘두레정원’. 「인천in뉴스」,
https://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7181

미추홀구, 지방자치박람회서 3개 분야 수상자로 선정. 「위키트리」,
https://www.wikitree.co.kr/articles/380067

미추홀구, 가족과 함께 여름꽃 심기 체험행사 개최. 「인천 소비자저널」,
http://iccj.kr/news/18708

인천 용현동 SK아파트 완충녹지… 내년 4월까지 ‘마을 정원’ 조성. 「경인일보」,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81209010002701

[부록]

3장. 1절. 1. 경기도 마을정원 조성사업 대상지(2018~2019년)

[표 5-1] 경기도 마을정원 조성사업 대상지(2018~2019년)
(참고: 마을정원만들기 프로젝트 스토리북, 경기도, 2018&2019)

조성년도	정원명	면적	주민공동체
2018	벌터마을정원	1,800㎡	벌터마을회
	한일마을정원	2,900㎡	한일두레
	세류풍류정원	850㎡	(사)대한노인회 수원시지회
	낭만가득 테마가든	4,730㎡	보정동주민자치위원회
	한마음 꽃마을정원	41,926㎡	해솔마을 마을정원사업단
	정감톡톡	3,000㎡	일등동네 주민협의회
	우리 사이 좋은 사이 함께 가든	30,000㎡	사이동 마을정원 만들기 주민협의체
	책피고 꽃피는 석수골 마을정원	4,200㎡	석수골마을정원협의체
	마을정원 함께 GARDEN	1,885.5㎡	선부3동 마을정원만들기협의체
	꽃잎 피우는 오좌행복마을정원	1,080㎡ 및 벽화 70m	오좌행복마을회
	구문천3리 초록마을정원	2,870㎡	초록마을공동체
	풍무동 꽃바람마을정원	1,100㎡	풍무동주민자치위원회
	세마아트마을정원	5,663㎡	세마아트정원 추진위원회
	물의 요정과 함께하는 역마을정원	15,000㎡	송현1리 역마을주민회
	문호천 따라 흐르는 물의 정원	875㎡	서종마을디자인운동본부
	일산2동 시민참여형 마을정원	1,340㎡	일산2동주민자치위원회
	오남금호어울림 마을정원	1,580㎡	오남금호어울림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구행복마을정원	1,360㎡	동구행복마을 정원추진협의회
	감악문화정원	15,920㎡	남면주민자치위원회
	하얀돌마을정원	4,390㎡	백석읍주민자치위원회
	울미연꽃마을정원	4,200㎡	울미연꽃마을 주민자치위원회
2019	소곤소곤 행복정원	60,000㎡	소곤소곤 행복공동체
	양짓말 마을정원('꽃길을 거닐다')	3,600㎡	해찬양짓말
	와리정원	5,000㎡	와동 마을정원 사업추진단
	파도정원	2,200㎡	초지동 마을정원만들기 주민협의체
	병점 가든 파크	700㎡	병점2동 주민자치위원회
	치동천 힐링마을정원	1,300㎡	치동천 힐링마을발전협의회
	숲어울림 마을정원	2,037㎡	진접 어울림 협의체
	매홀두레정원	2,840㎡	매홀지역아동센터, 수청7통 노인정 및 마을회관, 매홀고등학교
	봉우 마을정원	27,110㎡	회천3동 새마을부녀회
	프로뱅 장미정원	1,680㎡	백안2리 마을정원회
	질울고래실 마을정원	5,100㎡	질울고래실 마을주민회
	스마일 마을, 행복한 마을정원	1,280㎡	스마일 마을, 행복한 마을회

3장. 1절. 1. 경기도 마을정원 조성사업 대상지(2020년)

[표 5-2] 경기도 마을정원 조성사업 대상지(2020년)
(참고: 마을정원만들기 프로젝트 스토리북, 경기도,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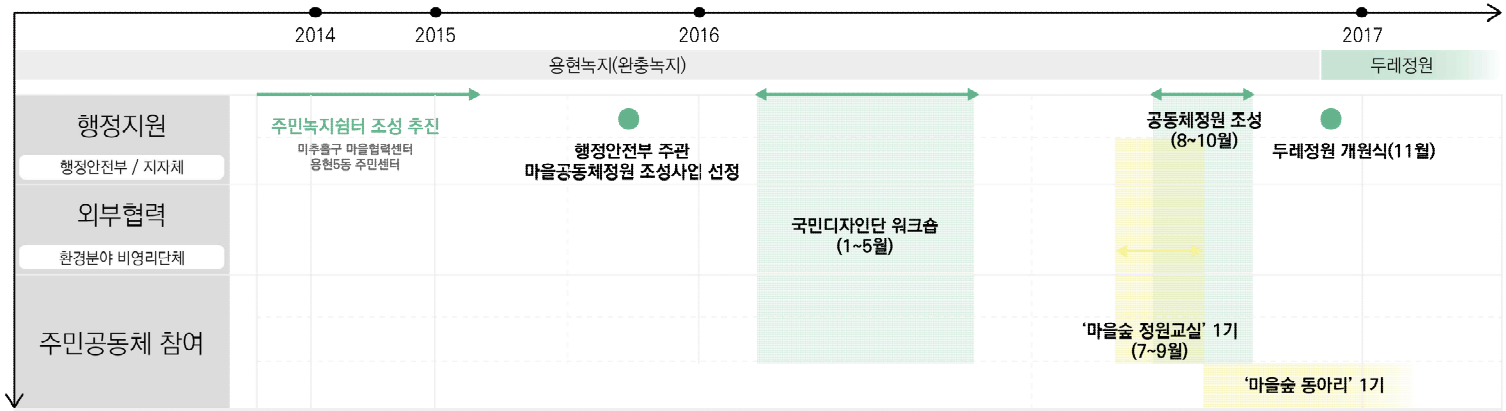
조성년도	정원명	유형	면적	주민공동체
2020	나르샤 하늘정원	커뮤니티정원	1,800㎡	야탑3동 마을 만들기 위원회
	동그랑방죽 문예 마을정원		6,532㎡	동그랑방죽 문예 마을
	함께 가든		4,820㎡	사동주민협의회
	이음 마을정원		2,325㎡	월피동 주민협의회
	금빛누리 마을정원		1,816㎡	금빛누리시민연합회
	꽃피는 마을정원		3,500㎡	원동 꽃피는 마을정원 추진위원회
	한여울 정원		1,713㎡	대심1리 새마을회
	아뜨리에 정원		955㎡	화전2리 새마을회
	붓꽃이 전하는 사랑의 먹거리 정원		1,868㎡	연수2리 마을회
	웃음꽃 피는 마을정원		4,000㎡	웃음꽃피는 마을회
	거북정원		2,357㎡	거북마을공동체
	교동 장독대마을정원		4,420㎡	교동 장독대마을영농조합법인
	봄봄 비밀정원	한뼘정원	-	태평1동 마을만들기 기획단
	동화 속 피고 지고			동화빌라자치위원회
	갈산 한뼘정원			갈사모협동조합
	부안리 중앙 한뼘정원			부안2리 새마을회
	꽃 향 가득 마을정원			가산3리 마을 부녀회
	우리 마을 둥이정원			영통1동 마을만들기협의회
	용사마을 둘레길 정원			용사마을 부녀회
	행복 마을정원			그랜드힐2차 행복봉사단
	상록아파트 한뼘정원			상록아파트 늘푸른서가

3장. 1절. 2. 행정안전부 ‘마을공동체 정원사업’ 대상지

[표 5-3] 행정안전부 ‘마을공동체 정원사업’ 대상지
(참고 :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AURUM)의 홈페이지; 국립수목원, 2020; 언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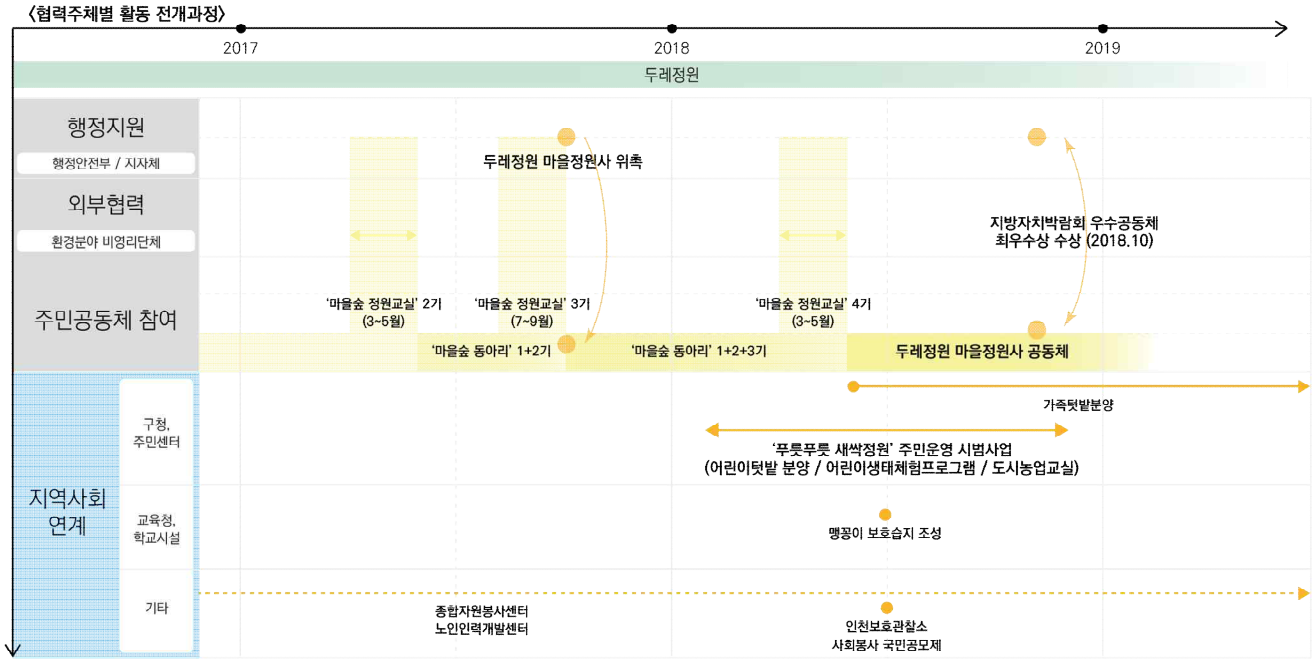
선정년도	선정지역	정원명
2015	부산 강서구 신호동 300-3	신호동 마을공동체 정원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627-509	두레정원
	강원 삼척시 미로면 내미로리 167(미로초 두타분교)	미로정원
	경기 시흥시 신천동 178-2	백년공동체정원
	경기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 125-1(청평역 구 역사)	청평 쉬엄마을 공동체정원
	경북 포항시 북구 두호동 산31	두호동 마을공동체 정원
	경북 김천시 황악예술촌	봉산면 마을공동체 정원
	경남 통영시 서피랑마을	서피랑 음악정원
2016	경기 이천시 신둔면 장동리	장동리 마을공동체 정원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142-1	무한상상 시민정원
	충북 충주시 용산동 충주천 고수부지 내	무궁화동산 공동체정원
	전북 고창군 심원면 도천리 일대	담바우마을 공동체정원
	경남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 토지세트장 내	상평마을 정원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3리	허브마을 공동체정원
	강원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89-5외 53필지	고한 야생화정원
	강원 삼척시 미로면 고천리 19-1	미로 나라 정원
	전북 정읍시 상동 115-12(사랑병원 뒤편)	왕솔밭 공동체정원
2017	서울 금천구 독산4동 일원	독산 정감 마을공동체 정원
	부산 동구 범일동 1460-1(희망100계단) 일원	이중섭거리 마을공동체 정원
	세종시 고운동 2105 고운뜰공원	고운뜰공원 행복정원
	강원 평창군 평창읍 중리 노람뜰	백일홍 꽃밭 마을공동체 정원
	강원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10-2	꽃과 함께 하나되는 Y진지 꺽정동산
	충남 예산군 예산읍 향천리 210-1 삽티공원	삽티공원 마을공동체 정원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리 984(월곡뉴타운 단지 내)	꿈에그린마을 공동체정원
	전남 고흥군 호형리 장수저수지 상부	장수 마을공동체 정원
	경북 영양군 입암면 양항리 339-1	양항리 마을공동체 정원
	경북 영양군 수비면 수하리	수하 마을공동체 정원
	경북 안동시 길안면 천지3리	길안면 마을공동체 정원
	경남 남해군 고현면 관음포 둑방공원	둑방공원 마을공동체 정원
	경남 합천군 용주면 봉기리 폐교부지	참살이 팜&아트빌리지 정원
2018	경남 의령군 부림면 입산리 일원	설뫼충효 마을공동체 정원
	경남 고성읍 기월리 일원	공룡나라 두레-팜
	경남 하동군 고전면 성평리 일원	성평마을 공동체정원
	경남 합천군 묘산면 도옥리 일원	묘산 희망나눔 공동체정원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664-9	자연숲 놀이정원

4장. 2절. 1. (8). Phase 1 - 공동체정원 계획 및 조성(2015~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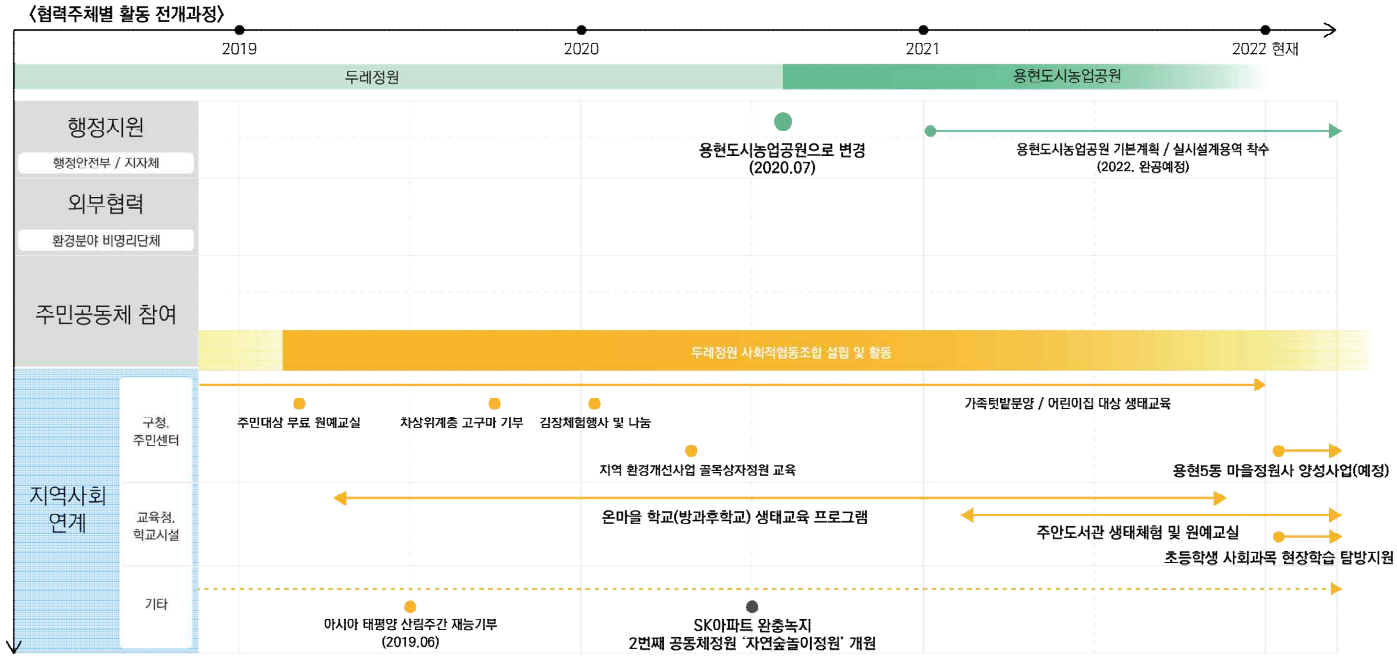
[그림 5-1] 두레정원 전개과정(1) - 공동체정원 계획 및 조성(2015~2017)

4장. 2절. 1. (8). Phase 2 - 주민 자원봉사를 통한 두레정원 운영 및 관리(2017~2019)



[그림 5-2] 두레정원 전개과정(2) - 주민 자원봉사를 통한 두레정원 운영 및 관리(2017~2019)

4장. 3절. 4. (2). Phase 3 - 사회적협동조합의 두레정원 운영 및 관리(2019~현재)



[그림 5-3] 두레정원 전개과정(3) - 사회적협동조합의 두레정원 운영 및 관리(2019~현재)

A Study on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Social Cooperatives for Urban Community Gardening

- Focused on Incheon 'Doore-Jeongwon' -

Yonsu, Oh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Urban community gardens can be defined as gardens and flower beds owned or operated by residents of certain regions to grow crops, flowers, and trees with their neighbors. In Korea, community gardens have been created in the form of urban gardens, but due to the recent increase in interest in gardens and demand for community spaces, they have also been created in a comprehensive form encompassing gardens and horticulture. These community gardens are linked to the government's urban regeneration policy projects, and represent social, environmental, and economic values as a way to provide welfare services in the residential environment, such as improving urban landscape, securing green resources in the neighborhood, promoting a sense of community, producing healthy food, and creating jobs.

Due to the high proportion of apartment residential environments in urban areas in Korea, community gardens using public sites are being mass-produced through projects organized by the government. However, most

of the contents of the project focus on the creation of a garden, and since then, it has been evaluated that sustainability has not been secured in terms of operation. Therefore, Chapter 3 of this study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the community garden created through public projects. The projects organized by Gyeonggi Provincial Government,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the Korea Forest Service were examined, and the details of the project, the list of places, and the size and operating entity of gardens were identified. Based on the surveyed data, the contents of each project's garden design plan and post-operation management plan were analyzed in terms of environmental, social, and economic aspects, which are the three ranges of sustainability. As a result, the purpose of each garden project is to foster a sense of community, improve urban landscapes or living conditions, and in the case of the Korea Forest Service and Gyeonggi Province, the economic expectation effect of creating new jobs was added. The project period varies for each site, but the Korea Forest Service is the shortest at 6 months, and Gyeonggi Province expanded to 10~15 months, and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expanded to 18~20 months. In particular, the contents of the garden development of each project suggested a relatively monotonous plan for economic use, and the post-operation plan suggested an administrative-led and performance-oriented plan linked to the operation of local projects, programs, and events.

In Chapter 4 of this study, a case study was conducted by selecting a community garden created through public projects and its resident operating entity. Doore-Jeongwon(garden) in Yonghyeon-dong, Incheon, which was created as a project for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in 2015, is a

community garden that utilizes undeveloped buffer green(18,540㎡) in apartment-intensive area, and the local community has been operating as a social cooperative for seven years.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site was archived in time series, and it was organized in the order of the background and initial operation patterns of the garden, the formation of the resident social cooperative, and the process of developing the activities of the social cooperative.

Three spatial situations played a role in the background of the Yonghyeon-dong buffer green area being created as a community garden. First, it is a dense area of large and medium-sized apartment complexes, second, five school facilities are located within 500m, and finally, there is a potential as a park facility as the site can be used to build a green network amid a lack of park area per household. Another background is that 199,265ft² of buffer green area has not been created for a long time due to changes in the factory's relocation and surrounding conditions, and local governments' park plans have been discussed since 2014. The main body that led the project promotion stage of Doore-Jeongwon was the local government's Civic Community Division, which operated a design workshop for residents' participation and a curriculum to foster local gardeners and form a garden community from the beginning of the project. The Doore-Jeongwon, which opened in October 2016, was operated as a pure volunteer of the local gardener community, support for community activities with the Community Division, support for land and facility management with the Parks Division. At that time, the Community Division provided opportunities for local gardeners to provide ecological and urban agricultural education to residents in community gardens cultivated by themselves, and

also operated community workshops to strengthen the internal capabilities of the gardeners community.

The local gardeners community in Doore-Jeongwon experienced the economic limitations of volunteer activities and recognized the need for more systematic residents-led operation plans, and a social cooperative was established at the suggestion of local governments. The "Doore-Jeongwon Social Cooperative" was established by five multi-interested parties combined with producers and volunteer members, and a total of 20 members are currently classified as education and garden groups. All of the union members are residents of Yonghyeon-dong, and the age group consists of people in their 40s and 60s. Most of them were appointed as local gardeners of Doore-Jeongwon, and in particular, the members in charge of education have expert certificates such as horticultural managers, organic agricultural technicians, and urban agricultural managers.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Doore-Jeongwon Social Cooperative' is as follows. First, by using the community garden as a local asset, the garden ecological experience and after-school programs for horticulture classes were operated through a local public project. In addition, as a social cooperative based on volunteer activities through gardens, horticultural programs, crop cultivation, and donation activities were actively carried out. Second, through various opportunities, cooperation with various local entities was expanded through educational projects in connection with local child welfare centers or elementary schools, or environmental projects in connection with other neighboring area. Third, the operation case of Doore-Jeongwon played an important role in promoting the second community garden project in other buffer green areas nearby as a pilot model for community gardens. Fourth,

in 2020, the buffer green area where the Doore-Jeongwon was created was changed to an urban agricultural park. As a result, the current Doore-Jeongwon has been converted to "Yonghyeon Urban Agricultural Park" , and aims to be completed by 2022 by expanding urban gardens and office space. Taken together, the main operating entities of Doore-Jeongwon are the Civic Community Division of local governments, the Park Division, and the garden community(Doore-Jeongwon Social Cooperative). Their cooperation system largely changed from the end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project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Doore-Jeongwon Social Cooperative. The current cooperation system in 2022 can be seen as the leading operation and management stage of the Park Department, and the reason is the reduction of the role with the Community Division due to the independence of social cooperatives in 2019 and the transition to urban agricultural parks in 2020.

The performance and activation factors of Doore-Jeongwon and its Social Cooperative are as follows. First of all, the creation and operation of Doore-Jeongwon improved the landscape and restored the ecological environment of the previously damaged buffer green areas, and socially improved the quality of life of residents and expanded leisure and educational opportunities. In terms of economy, there are results of creating jobs for vulnerable residents and producing healthy food. There are four main factors to activate this: securing suitable places(appropriate location and size of the buffer green area), community support(local gardener education program, community workshop, community operation pilot project), high participation of residents, and financial resources(financial resources for

residents' activities through social cooperatives and for the operation of the urban agricultural park).

On the other hand, several limitations were observed in the Doore-Jeongwon Social Cooperative. First of all, it is difficult to form appropriate governance between major cooperative entities, local government Community Division, Park Division, and garden community(Doore-Jeongwon Social Cooperative). This will serve as a reference not only to the case of Doore-Jeongwon, but also in many cases of community gardens built on public land to find a better direction for public-private cooperation. Second, the value of the community was reduced as the Doore-Jeongwon was changed to an urban agricultural park and the department in charge was transferred to the Park Division. This is feared that the resident-led operation method of the Doore-Jeongwon will be changed administratively, and the garden community will be excluded from the cooperative group. Third, since it is a 'social cooperative', there are difficulties experienced by residents. Currently, the Doore-Jeongwon Social Cooperative is facing difficulties in distributing and adjusting roles in the organization, limitations in raising operating funds as an educational service industry, and limitations in profit activities based on community gardens, which are also in line with the general limitations of social cooperatives in Korea.

Community Garden, where resident participation is a key factor, can secure sustainability through resident-led operation rather than top-down operation led by the administration. Therefore, in order to revitalize the urban community gardens in Korea, it is essential to establish a public-private cooperation system that can continuously support the residents'

post-operation, management, and garden activities. There are several characteristics for residents participating in the community garden. They have a genuine interest in the garden. and altruistic attitudes that are willing to voluntarily serve the community. The social cooperative is in the same context as it is an organization aimed at promoting welfare services for the vulnerable and contributing to the local community. The establishment of a social cooperative by local gardeners is a decision to acquire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garden that no one guarantees, and to maintain the worth and pride experienced through community gardening for a long time. It is time to go further from proving the diversified value of the urban community garden and specify how to maintain its operation in the right direction. As a first step, this study, which examines the value of residents' participation one more time and analyzes the possibility of an alternative to social cooperatives, will be a reference to the community garden operation plan in the future.

.....

Keywords: Urban Community Garden, Community Garden Governance, Community Garden Public Project, Social Cooperatives, Public Private Partnership, Garden Education

Student Number: 2020-29579